

보험동향 2014년 여름호

Ⅰ 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Ⅱ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아름 (연구원) 국내경제 채원영 (연구원) 금융경제 이해랑 (연구원)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진억 (수석담당역) 이해랑 (연구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원) 채원영 (연구원)
Ⅳ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이해랑 (연구원) 영 국 김진억 (수석담당역) 일 본 이아름 (연구원) 중 국 이소양 (연구원)

■ 목차

I. 테마진단

간편심사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 1

보험회사의 GA 채널 활용에 대한 소고: 자회사 형태를 중심으로 / 17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34

2. 국내경제 / 52

3. 금융경제 / 65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71

2. 생명보험 / 74

3. 손해보험 / 88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 / 109

2. 영국 동향 / 117

3. 일본 동향 / 126

4. 중국 동향 / 134

부록 I. 통계표 / 143

부록 II.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150

I. 테마진단

◆ 간편심사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김석영 연구위원, 변혜원 연구위원

1. 검토배경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보험수요 및 투자수익 감소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수익성 창출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최근 보험회사들은 고연령층 및 전통적 보험상품 가입이 거절된 그룹을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간편심사 보험상품을 도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함.

■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보험수요와 투자수익이 감소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여 신 성장동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활동이 둔화되고 가계소득도 감소하면서 보험수요가 줄게 됨.

■ 한편 저출산과 기대여명 연장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9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¹⁾

1) 윤성훈 외(2011),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정책보고서 2011-4, 보험연구원.

■ 따라서 최근 보험회사들은 고연령층 및 보험가입거절체 그룹을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동 그룹을 대상으로 한 간편심사 보험상품(SI: Simplified Issue Insurance Product)을 판매하기 시작함.

○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연령 소비자들이나 각종 질병을 경험한 유병자들은 정상적인 언더라이팅을 통과할 수 없어 지금까지 보험가입이 어려웠음.

■ 그러나 국내 간편심사 보험상품은 위험률 산출의 어려움과 리스크 관리의 문제점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경험통계의 부족으로 정확한 위험률 산출에 한계가 있어 위험률의 변동 가능성이 높음.

○ 현재 국내에서는 위험률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할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품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동 연구는 간편심사 보험상품의 특징 및 시장 현황, 해외 간편심사 보험상품 등을 검토한 후, 간편심사 보험상품이 기존에 위험관리가 부족했던 소비자 그룹을 포함함으로써 시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함.

2. 간편심사 보험상품

간편심사 보험상품이란 보험인수 시 전통적인 가입심사(underwriting)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고지항목을 축소하여 완화된 가입심사를 거치는 상품을 의미함. 간편심사 보험상품은 가입심사 방법에 따라 인수기준완화형, 한정고지형, 가입한정형으로 나눌 수 있음. 국내에서 판매되는 실버암 보험상품은 한정고지형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당뇨CI상품이나 고혈압OK상품 등은 가입한정형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간편심사 보험상품이란 보험가입 시 전통적인 가입심사(underwriting) 과정 대신,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을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으로 축소하여 가입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상품을 의미함.

- 보험회사는 간편심사 보험상품을 통해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전통적인 완전고지(Full Underwriting) 상품대비 보험가입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짐.

- 한편 Paul(2011)은 최근 간편심사 상품 발달의 요인들을 인터넷 채널을 통한 판매 확대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 찾았음.

- 인터넷을 통한 생명보험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바쁜 소비자들을 위한 빠르고 단순화된 언더라이팅이 필요해짐.
- 최근 보험회사들은 단순하고 저비용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동화된 언더라이팅 시스템의 장점을 사용하고 있음.

- 전통적인 완전고지 상품의 가입심사를 완화한 상품으로는 간편심사 상품과 무심사 상품(Guaranteed Issue Insurance Product)이 있음.

- 간편심사 상품이 청약서 질문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 반면, 무심사 상품은 모든 항목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 상품임.
- 따라서 간편심사 상품의 언더라이팅 강도는 일반 완전고지 보험상품보다는 약하고 무심사 보험상품보다는 강하다고 할 수 있음.

〈표 1〉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별 가입대상 및 심사내용

상품	가입대상	가입시 심사 내용
일반심사 상품	표준체 (가입연령제한: 통상 60세 미만)	• 암·고혈압·당뇨 등 질병보유 여부 및 최근 5년간의 치료내역에 대해 심사
간편심사 상품	표준체 + 일부 표준 미달체 (가입연령확대: 통상 75세까지)	• 암 등 질병보유 여부 및 최근 2년내 치료내역에 대해 심사 • 다만, 일부 특정(고혈압·당뇨병 등) 질병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음
무심사 상품	모든 대상자	• 모든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해 심사하지 않음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5. 15), “만성질환자의 보장성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수정 인용함.

■ 간편심사 보험상품은 심사방법에 따라 인수기준완화형 상품, 한정고지형 상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처음부터 판매대상을 축소시킨 가입한정형 상품이 있음.

■ 인수기준완화형 상품이란 인수기준을 완화하여 회사가 정한 특정인수 기준을 만족하는 표준 미달체도 표준체로 인수하는 상품을 말함.

- 인수기준완화형 상품은 전통적인 간편심사 상품으로서, 피보험자의 상태가 표준체 인수기준에는 미흡하지만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표준체로 인수함.
- 상품 판매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완화된 언더라이팅 기준이 전체 대상자 집단의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짐.

■ 한정고지형 상품이란 특정한 질병에 대한 고지를 생략하여 특정 질병을 갖고 있는 유병자들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이룸.

- 특정 질병 보유자 집단의 질병 발생율과 건강한 집단의 질병 발생율의 가중평균으로 효율을 산출함으로써 인수기준완화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 그러나 질병 보유자는 저렴한 보험료를, 건강한 사람은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므로, 질병 보유자는 가입하고 건강한 사람은 가입을 꺼리거나 해약하려는 유인이 존재해 상품가입 집단의 포트폴리오 리스크²⁾가 존재함.
-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버암 보험상품이 대표적인 한정고지형 상품으로 분류됨.

2) 위험률은 전체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나, 실제 가입자는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만 가입해서 위험률 산출기준과 다른 계약자 집단을 가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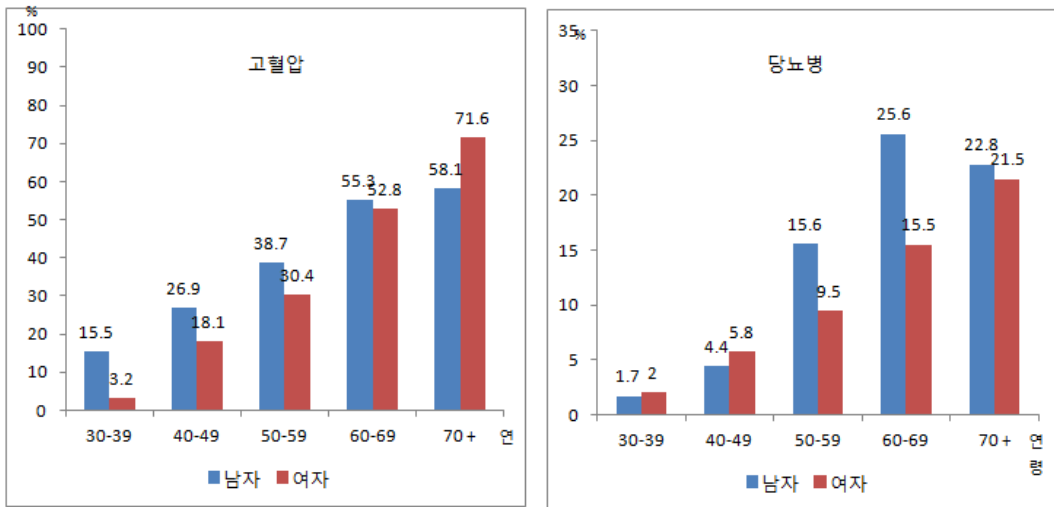
■ 가입한정형 상품은 특정한 질병 보유자들만을 피보험자로 한정하여 설계된 상품임.

- 특정한 질병 보유자 집단의 통계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담보의 효율산출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상품판매 대상이 되는 특정 질병 보유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짐.
 - 특정 질병 보유자만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입할 수 없음.
- 현재 판매되고 당뇨CI상품, 고혈압OK상품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당뇨CI 상품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당뇨 유병자만이 가입할 수 있음.

■ 간편심사 보험상품은 기존에 완전고지 보험상품에 가입이 거의 불가능했던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새로운 보험상품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당뇨, 고혈압, 암 등의 질병을 갖고 있는 만성질환자는 완전고지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움.
- 유병자들이 일반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일부 특정 담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형태로 상품을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할증체로서 상품을 가입하게 됨.
- 한편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당뇨, 고혈압, 암 등의 만성질환 발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의학기술의 발달로 유병자들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고 있음.
 - 65세 이상의 경우 남자는 59.3%, 여자는 68.5%가 고혈압 유병자이며, 같은 연령대의 남자 중 24.3%, 여자 중 19.3%가 당뇨병 유병자임.

〈그림 1〉 연령별 고혈압 유병자 및 당뇨병 유병자 비율



자료: 2012년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간편심사 보험상품들이 판매되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는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다양한 간편심사 상품개발에 장애가 되는 주요 요소로는 관련 경험통계가 부족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위험률 산출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간편심사 상품 관련 보험사고의 정확한 발생률을 추정하기 어려우나, 현재 이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하기 충분한 안전할증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편심사 보험상품은 일부 담보에 한정해서 갱신형으로만 개발된 상품들임.

○ 암, 고혈압 등 일정수준의 경험통계가 있는 담보에 한해서 갱신형 상품으로 개발됨.

3. 일본의 간편심사 건강보험(SI Health Insurance)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에서도 이전에 보험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유병자와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심사 상품과 한정고지형 간편심사 상품이 도입되어 판매되고 있음. 간편심사 건강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을 보완하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데, 일반상품 청약자 중 가입이 거절된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만기계약자를 재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안정적인 보험료의 산정은 간편심사 상품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인데, 일본의 경우 축적된 지급심사 경험자료를 바탕으로 한 요율 산정과 충분한 안전할증 반영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이전에 보험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유병자와 고연령자를 타겟으로 한 무심사 상품과 한정고지형 간편심사 상품을 도입함.

- 일본의 간편심사 보험상품은 2006년 중반에 도입되었음.
- 최초에는 표준제 보험가입 거절자들을 인수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이후 고령자 및 유병력자들을 판매대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일본의 간편심사 건강보험상품은 입원과 수술담보를 중점적으로 보장하여, 입원 및 수술과 관련된 3가지 또는 5가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확인한 후 청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승낙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보험회사별로 고지사항은 각각 다르나, 대체로 질병의 중한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전의 과거 병력을 확인함.
-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지, 과거 2년 이내에 질병으로 입원, 수술 등을 한 적이 있는지, 과거 5년 이내에 중대한 질병(암, 간경화 등)으로 입원, 수술 등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이 주요 확인 사항임.

■ 상품가입 후 기존 병력의 재발이나 악화에 의한 입원, 수술도 보장하고 입원급여금(질병, 재해), 수술급여금, 통원급여금을 보장함.

- 보험가입 금액은 입원일당과 수술지급금 규모 면에서 전통적 완전고지 상품과 큰 차이는 없으나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1회 입원에 최대 60일까지, 보험기간 통산 3년(1,095일)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등 (AFLAC社 등)의 보험금 지급총액에 최대 한도를 설정함.

■ 또한 간편심사 건강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을 보완하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데, 일반 상품 청약자 중 가입이 거절된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만기계약자를 재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 표준채 상품으로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표준채 상품의 언더라이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질병 보유자들에게 판매함.
- 기존상품의 만기 계약자들에게는 별도의 언더라이팅 절차 없이 신규상품으로 인수함.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간편심사보험은 피보험자가 건강체 외에 특정질병 보유자들이 집중될 수 있으며, 초기 역선택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 가입 이후 1년 이내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가입 초기의 보험사고에 대해 차등급부 설계함.
- 보험금지급률이 높은 모집조직이나 지점에 대해 회사가 정하는 벌칙(penalty)을 부여 함으로서 역선택 리스크를 관리함.

■ 간편심사 상품의 성장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본은 과거 30년 이상 축적된 지급심사 경험자료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안전할 증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

- 일본은 통계적 변동성만이 아니라 미래의 추세도 고려하여 안전할증을 산출함.
- 충분한 안전할증은 상품 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경험자료 축적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간편심사 상품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

■ 일본사례를 통해서 간편심사 상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통계집적과 충분한 안전할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상품개발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충분한 안전할증을 통한 상품 공급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험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4. 미국의 간편심사 보험

미국 생명보험시장에서 간편심사 보험상품은 종신보험, 정기보험, 유니버설 및 변액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음. 보험회사들은 쉽고 빠른 심사 처리과정에 대한 니즈, 낮은 처리비용에 대한 니즈, 시장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니즈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간편심사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었음. 대부분의 상품이 하나 이상의 건강 질문을 물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습관이나 취미 관련 정보 등을 묻는 경우도 있었음. 아울러 간편심사 보험상품의 신속한 가입심사를 위해 자동 언더라이팅, MIB 체크와 같은 다양한 언더라이팅 수단들이 사용되고 있었음.

■ Muise(2009)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편심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29개의 생명보험회사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음.

- 정기보험이 가장 보편적인 간편심사 보험 종류였는데, 29개 회사 중 17개의 회사가 38개의 간편심사 정기보험을, 18개 회사가 32개의 간편심사 종신보험을, 10개 회사가 26개의 간편심사 유니버설 및 변액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었음.

■ 모든 회사가 적어도 하나의 건강 질문을 물었으며, 간편심사 종신보험의 평균 질문 수는 세 개, 간편심사 정기 및 유니버설 및 변액생명보험의 평균 질문 수는 네 개였음.

- 특정한 질병, 일반 건강, 이식 등에 관한 추가적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
- 또한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생활습관(lifestyle) 및 취미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종신보험에는 3.6개, 정기 및 유니버설 및 변액보험의 경우 9개의 생활습관 및 취미 관련 질문을 하였음.

〈표 2〉 간편심사 보험상품이 수집하는 건강 관련 정보

(단위: %)

항목	종신보험	정기보험	유니버설/변액
신장 및 몸무게	65	100	100
병력(medical history)	88	88	80
최근 입원	47	75	70
최근 의료전문가의 상담(또는 빈도)	35	69	70
처방 약물	29	50	70
가족 병력	6	31	40

주: 각 항목을 요구하는 청약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Muise(2009), *Simplified Issue Marketplace*, LIMRA.

■ 동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보험회사들의 40%가 자동 언더라이팅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중 85%의 청약은 초기 언더라이팅 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65%의 청약은 마지막 언더라이팅 결정도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었음.

○ 자동 언더라이팅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언더라이터에 의해 수행되었던 심사기능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도록 고안된 기술을 의미하는데, 주로 생명보험계약 가입심사에 필요한 노동력과 시간, 데이터들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됨.³⁾

○ Paul(2011)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진화된 자동 언더라이팅 시스템은 외부 전문가 없이 보험회사가 새로운 언더라이팅 법칙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고안·발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보험회사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자동 언더라이팅 시스템과 더불어 보험회사 내부 및 외부 서비스를 이용한 수단들도 이용하고 있었음.

○ MIB⁴⁾의 언더라이팅 서비스는 일종의 정보교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원회사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언더라이팅 정보를 교환함.

- 미국과 캐나다의 생명보험회사 및 건강보험회사들로 이루어진 MIB 그룹의 회원들에게 서비스가 지원됨.

3) Batty et al.(2010), *Automated Life Underwriting: Phase 2*.

4) 이전에는 the Medical Information Bureau Inc.였으나, MIB Group, Inc.로 이름을 바꿈.
https://www.mib.com/facts_about_mib.html.

- 해당 회사들은 MIB 언더라이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CI 보험, 장기간병보험 계약 등의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위험 및 적격성을 평가함.

〈표 3〉 언더라이팅 수단

(단위: %)

수단	종신보험	정기보험	유니버설/변액
MIB 체크	71	87	100
APS	59	44	56
처방 데이터베이스	30	38	55
검사보고서	24	25	44
자동차 기록	18	50	56
혈액검사 또는 소변검사	18	44	44
타액 채취	6	31	11
신용평가보고	0	12	22

주: 1) 각 수단을 사용하는 상품의 비율을 의미함.

2) APS(Attending Physician Statement): 주치의 진단서.

자료: Muise(2009), *Simplified Issue Marketplace*, LIMRA.

■ 간편심사 보험상품의 언더라이팅 기간은 모든 종류의 간편심사 보험상품의 50%가 5일 내였으며, 90%의 상품이 10일 내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된 전통적 완전고지(fully underwritten) 보험상품 중 50%의 언더라이팅 기간은 20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여기서 언더라이팅 기간은 청약서를 받은 시점부터 보험계약 제안이나 청약거절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 정의하였음.

■ 보험회사들은 상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쉽고 빠른 심사 처리과정 에 대한 수요, 낮은 처리비용에 대한 니즈, 시장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니즈를 가진 시장을 타겟으로 삼고 있었음.

- 종신 간편심사 보험의 경우 쉽고 빠른 언더라이팅과 낮은 보장금액(face amount) 니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전통적 언더라이팅을 꺼리는 젊은 연령층이나 고령층, 그리고 보통의 보장금액을 필요로 하는 그룹 등이 이에 포함됨.

- 정기 간편심사 보험은 방카슈랑스 채널, 대출이나 젊은 가족의 니즈를 다루는 중산층 시장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직장 단체상품이나 교차판매상품으로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유니버설 및 변액 간편심사 보험은 부의 이전 니즈가 있는 고령층, 직장상품, 대체로 보통 수준의 보장금액을 제공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시납 종신 및 유니버설 및 변액 간편심사 보험은 고령층에게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납 상품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 걸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됨(2007년 기준).

〈표 4〉 연령별 판매 비율

(단위: %)

연령	분납(recurring premium)			일시납
	종신생명보험	정기보험	유니버설/변액	종신 및 유니버설/변액
25세 미만	16	11	19	0
25세~34세	6	25	23	0
35세~44세	9	29	26	0
45세~54세	17	24	19	2
55세~64세	23	11	11	12
65세 이상	29	0	2	86
전체	100	100	100	100

주: 1) 조사에 포함된 모든 보험회사의 응답을 평균하여 산출한 값임.

2) 계약 수 기준으로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3) 2007년 기준임.

자료: Muise(2009), *Simplified Issue Marketplace*, LIMRA.

■ 담보금액으로 판단한 계약 규모를 살펴보면, 정기보험상품이 가장 높은 최고 담보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신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담보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5〉 계약규모별 판매 비율

(단위: %)

담보금액	분납(recurring premium)			일시납
	종신생명보험	정기보험	유니버설/변액	종신 및 유니버설/변액
\$5,000 미만	5	0	13	3
\$5,000~\$24,999	75	6	27	42
\$25,000~\$49,999	15	18	20	19
\$50,000~\$99,999	5	30	27	17
\$100,000~\$249,999	0	41	7	18
\$500,000 이상	-	5	6	1
전체	100	100	100	100

주: 1) 조사에 포함된 모든 보험회사의 응답을 평균하여 산출한 값임.

2) 계약 수 기준으로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3) 2007년 기준임.

자료: Muise(2009), *Simplified Issue Marketplace*, LIMRA.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 생명보험 시장에서 판매되는 간편심사 보험상품들은 종신, 정기, 유니버설 및 변액 상품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주 대상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담보금액이나 보험기간을 제공하였음.

○ 국내에서는 암보험, CI보험 등과 같은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간편심사 보험상품이 도입되었으나, 빠른 가입심사와 간편한 보험가입을 선호하는 소비자 그룹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종목의 간편심사 보험상품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최근 가속화된 자동 언더라이팅 시스템의 발전은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간편심사 상품 설계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과의 연계를 통한 간편심사 상품의 발전가능성을 지적하였음.

5. 국내에서 간편심사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간편심사 보험상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해당 시장에 지속적으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합한 타겟 그룹을 선정하고, 가입대상자 및 보장범위와 관련된 질문을 선정해야 할 것임. 아울러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장금액의 적절한 한도 설정과 함께 가입 초기 보장금액을 감액하는 상품설계도 고려해야 함. 마지막으로 언더라이팅을 기준을 완화하였으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할증을 통해 이를 위험률 산출에 반영해야 할 것임.

■ 최근 국내에서도 고연령층 및 보험가입거절체 그룹을 대상으로 한 간편심사 상품들이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간편심사 보험상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지속적인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초기 역선택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가입 초기 보험사고에 대해 차등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간편심사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산정을 위한 안전할증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음.
- 미국의 경우 다양한 간편심사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자동 언더라이팅이나 간편심사 상품이 가질 수 있는 추가적 리스크들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었음.

■ 먼저 새로운 간편심사 상품을 개발, 판매하기 위해서는 간편심사 상품을 수요할 타겟 그룹을 선정해야 하며, 해당 상품을 판매할 유통채널과 단순화된 가입심사를 할 수 있는 기술 및 전문지식이 필요함.

- 보험회사들은 목표시장으로 삼은 시장 또는 피보험자 그룹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하며, 이들의 추세나 변화에 대해 파악하여야 할 것임.

■ 특히 가입심사 측면에서는 가입대상자 및 보장범위에 따른 적절한 질문사항을 선정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입원과 수술담보를 보장하는 상품이라면, 과거 입원과 수술경험에 대한 내용을 질의해야 할 것임.
- 미확인위험(Unidentified Risk)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허락을 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간편심사 상품에서의 보장금액 한도 및 간편심사 상품의 판매방법(채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후 상품설계가 필요함.

- 일반적인 완전고지 상품의 경우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보장금액 한도를 충분히 높게 설정할 수 있으나, 간편심사 상품은 3~5가지 심사항목을 통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도입 초기에는 가입금액을 낮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가 가입할 수 있도록 아웃바운드 채널을 통해 판매하거나, 인바운드 채널을 통한 판매를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언더라이팅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간편심사 상품의 특성상 역선택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 후 초기 보장금액을 감액 설계하여 초기 역선택 리스크를 완화하는 상품설계를 고려할 수 있음.

- 초기 보장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상품설계 시 초기 면책기간, 보험금 삭감기간 설정 등이 있음.
-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무심사 상품을 국내에 도입했을 때, 역선택으로 인한 초기 손해를 이 매우 높았던 경험이 있음.
- 일본의 경우 간편심사 상품 도입 초기에 손익관리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 판매가 위축된 경험이 있음.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언더라이팅 기준을 완화하여 판매대상을 확대하였으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할증을 반영한 위험률 산출이 필요할 것임.

- 정확한 위험률 산출을 위해서는 과거 지급심사 경험실적을 충분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경험실적을 집적하여야 함.
- 다양한 간편심사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에게 유연한 조발생률과 안전할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율산출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금융감독원(2013. 5. 15), “만성질환자의 보장성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국민건강통계.

윤성훈 외(2011),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정책보고서 2011-4, 보험연구원

Batty, Mike, David Moore, and Mke McCarty(2010), *Automated Life Underwriting: Phase 2*,
Society of Actuaries.

Donnelly, Paul(2011), *Enhanced Simplified Underwriting*, Munich Re.

Muise, Nancy(2009), *Simplified Issue Marketplace*, LIMRA.

◆ 보험회사의 GA 채널 활용에 대한 소고: 자회사 형태를 중심으로

황진태 연구위원 · 권오경 연구원

1. 검토배경

2000년 이후 보험시장의 성숙 및 경쟁심화로 인해 다양한 보험판매채널이 등장하였으며, 이 중 GA 채널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적극적으로 GA 채널을 활용하고 있음. 이에 본고는 국내외 GA 활용사례를 검토하여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 보험회사의 성공적인 GA 활용 전략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함.

■ 2000년 이후 보험시장이 성숙⁵⁾해지는 등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이 변모함에 따라 판매채널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Berlin & Wellborn(2008)의 시장성숙도 모형^{6),7)}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3단계에서 4단계 성숙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보험회사들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시장집중도⁸⁾가 크게 감소(HHI: FY2001 2,362 → FY2012 1,199)한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집중도도 지속적으로 완화(HHI: FY2001 1,524 → FY2012 1,431)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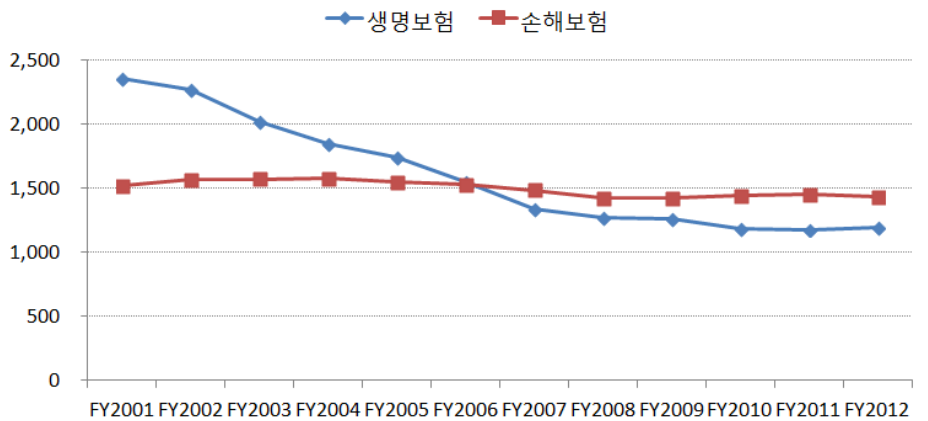
5)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2012년 현재 수입보험료 규모가 139,296백만 달러로 세계 8위 규모의 보험시장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는 12.1%, 보험밀도(국민 1인당 보험료)는 2,785.4달러를 기록하고 있음(Swiss Re 2013).

6) Berlin, J. and J. Wellborn(2008), The Market Maturity Model: Ring Around the World, LIMRA.

7) 시장성숙도 모형은 일반적으로 1~4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결정요인으로 주로 상품, 채널, 마케팅 전략, 규제 등 4가지 요소가 있어 이러한 요소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보험시장 성숙도를 평가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Berlin & Wellborn(2008)을 참조하기 바람.

8) 참고로 HHI $\geq 1,800$ 고집중시장, $1,000 \leq \text{HHI} < 1,800$ 집중시장, $\text{HHI} < 1,000$ 경쟁시장임.

〈그림 1〉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시장집중도(HHI) 추이



자료: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각 호.

○ 이러한 경쟁심화와 더불어 2000년 이후 다양한 보험판매채널이 등장하기 시작함.

- 시장성숙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채널의 경우 일반적으로 1·2단계에서는 전속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시장이 성숙하면서 점차 중개사나 독립대리인 등 다양한 채널이 나타나기 시작함.
-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TM/CM 영업, 방카슈랑스/홈슈랑스, 독립대리점(GA), 교차모집제도 등이 도입됨.

■ 이 중 GA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보험회사의 GA 채널 활용은 일반적으로 주로 신규시장 개척, 모집조직의 효율성 제고, 채널 다변화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음.

○ GA 채널은 대면채널로 전속설계사 채널의 주된 대안채널이며, 최근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 또한, 최근 10년간 GA 채널은 연평균 11.7% 성장하여 2013년 말 기준으로 그 사용인수가 16.1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교차설계사를 제외한 전체 모집인 수에서 41.6%에 해당함.

- 반면, 생·손보 설계사 수는 2013년 들어 감소하기 시작함.

〈표 1〉 전체 보험모집인 수

(단위: 명)

연도	생명보험 설계사	손해보험 설계사	GA 사용자	전체 모집인
2004	139,945	65,488	56,500	261,933
2005	124,494	75,728	57,121	257,343
2006	130,140	76,390	67,361	273,891
2007	139,510	71,742	102,190	313,442
2008	148,446	80,352	106,452	335,250
2009	141,067	86,856	113,932	341,855
2010	133,763	83,597	121,411	338,771
2011	141,034	87,893	138,532	367,459
2012	145,933	95,017	145,868	386,818
2013	135,729	90,167	160,870	386,766

주: 1) 생·손보 설계사의 표 안 수치는 각 연도(calender year) 4/4분기에 해당하는 설계사 수로 교차설계사는 제외된 것임.

2) 2008년 생·손보 설계사 수와 2009년 GA 사용자 수는 내삽법(interpolation)을 사용한 수치임.

3) GA 사용자 수는 각 연도 내 기준시점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각호; 금융감독원.

○ 아울러, GA 채널은 GA 간 인수·합병으로 중대형 법인의 형태로 성장하고 있음.

- 사용자 수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2013년에 29개(2010년 19개)에 달하며, 이러한 대형 GA 소속 사용자 수가 전체 사용자 수의 40.0%를 차지함.

■ 특히, 최근 들어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단순 제휴를 넘어 GA 채널을 자회사하는 등 GA 채널 활용방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고는 자회사 형태의 GA 활용방식을 중심으로 국내외 GA 활용 사례를 검토한 후 관련 시사점을 제시함.

○ 또한, GA 자회사의 실패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채널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보험회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제시함.

2. 보험회사의 GA 채널 활용

보험회사의 GA 채널 활용의 주된 목적은 신규시장 진출, 채널 다변화, 채널운영비용 절감 등이며, 최근 급속히 대형화되고 있는 GA 채널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음. 또한, 보험회사의 GA 채널 활용 유형에는 신규설립, M&A, 기존 조직분사, 단순 지분참여 등이 있음.

- 본 절에서는 GA 채널 활용의 주된 목적과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GA 채널 활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가. GA 채널 활용의 주된 목적

- 보험회사의 GA 채널 활용 목적은 주로 신규시장 개척, 채널 다변화, 채널운영상의 비용 절감이며, 특히 최근 들어 GA가 대형화되면서 이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GA 채널 활용의 목적은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채널의 단점이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또한,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조직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GA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최근 많아지고 있음.
 - 실제 전속설계사 조직 운영 시 리쿠르팅, 초기정착 및 교육수당으로 고정비용이 많이 발생함.
 - 이는 최근 저금리·저성장의 장기화 등 보험영업이 위축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보험회사 차원의 모집조직 내 고정비용을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아 보임.
 - 이론적으로 기업의 비용구조상 레버리지 효과에 의하여 고정비 비중이 클수록 매출액 변동에 따른 이익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등 경기변동에 대한 충격이 큼.
- 한편, GA 채널 활용 방법 중 하나인 GA 자회사 전략은 GA 채널의 급성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GA 자회사 전략은 경영권 통제가 가능한 장점으로 최근 보험회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제도 도입 이후 보험대리점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험회사의 비활동 설계사에 대한 해촉 조치와 함께 전속설계사들의 보험대리점으로서의 이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저축성보험에 대한 중도해지 환급률 상향 조정 및 수수료 분급 확대 등의 규제가 전속설계사들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GA로 이직하는 경향이 나타남.
 - 대형 GA의 경우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수수료 지급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수수료 분급 확대 차원의 보험회사 수당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전속설계사들이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할 경우 높은 수수료 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A 보험회사의 경우 100% 보험계약 유지 가정으로 월 보험료 대비 전속설계사에 335.3~429.3%, GA에는 432.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또한, 2014년 1월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발표된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이 보험회사의 TM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A 채널의 비중이 향후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보험회사의 GA 자회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15조와 「보험업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 업무에 대해서 신고로써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
 - 「보험업법」 제109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 수의 15% 이내에서 해당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음.
 - 그러나 단서를 통해 제115조의 금융위원회의 승인 또는 신고 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상품판매를 위한 자회사 소유에 대해서는 투자지분상 제약은 없음.

나. GA 채널 활용의 유형

- 보험회사의 GA 채널 활용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크게 신규설립, M&A, 단순지분참여, 기존 조직분사 등으로 대별됨.
 - 보험회사가 GA를 신규로 설립하여 자회사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된 이유로 채널

다변화 목적과 함께 GA들의 대형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수수료 부담 증대가 지적되고 있음.

- 이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GA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함으로써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영업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경영상 통제력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 다만, 이 경우 GA의 모집조직을 새로이 구축해야 하므로 그 구축과정에서 설계사 리쿠르팅, 교육 및 관리조직 구축에 따른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함.
 - 또한, 설계사들의 판매실적도 이 시기에 부진할 수밖에 없어 영업 초기에 누적적으로 결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험회사는 GA 자회사의 손익분기점(BEP)이 되는 투자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아울러, GA 자회사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모회사인 보험회사의 판매노하우 등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함.
- M&A나 단순 지분참여를 통한 GA 자회사 활용 방법은 신규설립이 가지는 초기 실적 부진과 발생 가능한 여러 경영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
- 그러나 M&A의 경우 신규설립에 비해 일반적으로 인수자금이 많이 들고, 피인수 GA의 이질적 문화 해소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 한편, 단순 지분참여의 경우 해당 GA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 단순히 영업망을 확충하는 이상의 의미는 없음.
 - 미국 Melife의 경우 2000년에 GenAmerica Financial을 인수하여 부유층 및 전문직 시장을 타깃으로 정하고 주로 연금과 VUL 상품을 위주로 판매함.
- 한편, 기존 모집조직을 분사하여 GA를 자회사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전속설계사 채널을 보유한 보험회사가 비용절감 차원의 모집조직 효율화가 주된 목적임.
- 주된 장점으로는 기존 조직의 분사 형태이므로 강한 통제력과 함께 초기 모집조직 구축과정에서의 실적부진 등의 경영상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 경우 분사된 조직에 대한 보험회사의 통제력 확보가 중요한데, 해당 조직이 비전속화될 경우 모회사인 보험회사의 실적 감소가 예상됨.
 - 한편, 영업조직을 분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필요한 분쟁이나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는 John Hancock(캐나다계 보험사인 Manulife에 2004년 인수됨)이 1999년 전속채널을 Signator Financial Network 판매자회사로 분리하였고,⁹⁾ 대표적 판매전문회사¹⁰⁾인 M Financial Group 등과 판매협약을 맺어 운영함.

〈표 2〉 GA 채널 활용 유형별 분석

유형	내용	국내외 사례 (모회사/자회사 또는 제휴 GA)	
		국내	해외
직접 신규설립	- 장점: 자회사에 대한 통제력 강하며, 보험회사의 실적 감소 가능성도 낮음 - 단점: 초기에 실적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조 가능성 상존	- 메리츠화재/메리츠금융서비스 - 라이나생명/라이나금융서비스 - 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금융서비스	- Minnesota Life(미국) - Prudential(미국)
기존 영업조직 분사	- 장점: 초기 안정적 판매실적 가능 - 단점: 분사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 가능성 - 이 경우 분사된 조직에 대한 보험회사의 통제력 확보가 중요	- 동부화재/ 동부MnS - AIG손보/ AIG어드바이저 - 푸르덴셜생명/ 지브롤터마케팅, 푸르덴셜파트너스	- AXA/AXA Advisors - John Hancock/JHFN
독립채널 M&A	- 장점: 신규설립에 비해 경영위험 회피 가능 - 단점: 인수자금이 많이 들고 피인수 GA의 갈등해소에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그린손보/ FN스타즈	- Metlife/GenAmerica Financial - AEGON/Origen (5개 IFA를 M&A, 영국)
단순지분 참여	- 장점: GA 특성 파악 후 적합한 GA 선별·투자 가능 - 단점: 보험회사의 약한 통제력	현대라이프/프라임에셋	- Aegon, Aviva, Friends Life & Standard Life/Tenet Group - Allianz(영국)
업무제휴	지분관계가 없어 통제력 없음	흥국화재·흥국생명/티시스	AIG, ING 등

주: 1) John Hancock은 Manulife에 인수됨.

2) 푸르덴셜생명의 판매자회사인 지브롤터마케팅과 푸르덴셜파트너스는 현재 사업을 철수하였음.

3) 그린손보(현 MG손보)는 2013년 청산되며 FN스타즈 지분을 매각하였음.

자료: 안철경·권오경(2010),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pp. 63~71, 보험회사 내부자료 재구성.

9) 2005년 1월 판매자회사 Signator Financial Network의 사명을 John Hancock Financial Network로 변경함.

10) 미국의 대표적인 판매전문회사는 NFP(National Financial Partners)와 M Financial Group이 있음. NFP의 경우 제조사와 소규모 독립판매채널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는데, 단순한 멤버십을 활용한 네트워크 형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소규모 독립판매회사를 직접 인수하는 방식을 채택함. 반면, M Financial Group은 116개 GA가 지분을 소유한 네트워크형 GA임(안철경·권오경 2010).

■ 현재 국내에서 보험회사와 지분 또는 계열사 관계를 가지고 있는 GA는 총 7개사로 파악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주로 손해보험업권에서 이러한 GA 활용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생명보험업권에서 자회사 형태의 판매전문회사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음.
- 보험업권에서 메리츠금융서비스와 AIG어드바이저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현재 메리츠금융서비스는 메리츠금융지주가 100% 출자한 GA로 보험회사 10개사와 제후를 맺고 있음.
 - 또한, AIG어드바이저는 국내 최초로 제판분리를 통해 AIG손보(구, 차티스)에서 영업조직이 분리된 GA로 생보 8개사, 손보 10개사와 제후를 맺고 있으며, 동부MnS는 동부화재의 100% 출자로 TM 채널이 분사된 GA임.
- 기타 지분참여와 계열사 업무위탁을 통한 GA 활용 형태도 있음.
 - 현대라이프는 2013년 프라임에셋 지분의 15%를 투자함.
 - 반면, 흥국생명·화재의 전속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티시스가 있으며, 이는 계열 IT 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형태임.

〈표 3〉 보험업권 관련 주요 GA 현황

회사명	등록/ 영업개시	자본금	계열회사 관계	전속 여부	비고
티시스	2007. 06	-	홍국생명, 홍국화재	전속	업무위탁 관계 태광그룹 계열 IT회사
프라임에셋	2009. 05	-	현대라이프	비전속	현대라이프의 지분참여(15%)
메리츠금융서비스	2009. 12	140억	메리츠화재	비전속	구, 리츠파트너스, 메리츠금융지주 100% 출자
AIG어드바이저	2012. 05	-	AIG손보	비전속	구, 컴파스어드바이저 AIG APAC Holdings Pte. Ltd.가 100% 보유
동부MnS	2013. 02	-	동부화재	전속	TM 분리 자회사, 동부화재 100% 출자, 비전속 지향
라이나금융서비스	2013. 09	50억	라이나생명	비전속	TM 연계 하이브리드 채널
미래에셋금융서비스	2014. 04	50억	미래에셋생명	비전속	-
동부금융서비스	2014. 06	70억	동부화재 손자회사	비전속	동부MnS 100% 출자

■ 한편, GA 채널 활용 시, 특히 GA 자회사의 경우 모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전속 및 비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비전속 형태의 G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비전속 형태에 해당하는 GA 채널 활용의 배경으로 GA 채널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인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 취급과 이로 인해 용이한 사용인 리쿠르팅을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3. 국내 주요 GA 자회사의 판매실적 및 평가

국내 GA 자회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에 대해 설립 초기 시 발생하는 영업부진과 높은 초기 비용이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큼. 특히, 국내 GA 자회사들 중 초기 설립 시 비용으로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어 보험회사는 GA 자회사의 누적 손익분기점이 되는 투자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가. 주요 GA 자회사의 판매실적

■ 우리나라 GA 자회사들 중 AIG어드바이저(구, 컴파스어드바이저)의 판매실적이 가장 두드러진 편이나, 현재 설립 초기인 관계로 그 영업실적이 상당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FY2012 기준 AIG어드바이저는 손보부문에서 391억 원에 이르는 원수보험료를, 생보부문에서는 2억 원에 해당하는 초회보험료를 기록함.

- AIG어드바이저 손보부문의 원수보험료 실적은 모회사인 AIG손보가 거수한 보험료 실적의 9.58%를 기록함.

○ 한편, 메리츠금융서비스는 메리츠금융 지주회사의 단독출자로 신규설립되었으며, 현재 총 10개 보험회사와 제휴 중임.

- 2009년 12월에 설립된 메리츠금융서비스는 FY2012 기준 생보 초회보험료 19.3억 원, 손보 원수보험료 3.7억 원에 해당하는 판매실적을 기록함.

○ 동부화재의 100% 자회사인 동부MnS의 실적은 2013년 상반기 14.4억 원에 해당하는 원수보험료를 기록하여 모회사 원수보험료 실적의 0.03%를 차지함.

○ 한편, 자회사는 아니나 흥국화재·흥국생명과 업무위탁 관계에 있는 티시스가 FY2011 기준으로 생보 초회보험료 93.0억 원, 손보 원수보험료 108.5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표 4> 보험업권 관련 주요 GA의 판매실적

GA 회사명	구분	모집 종사자(명)	신계약 건수(건)	보험료 수입 (천원)	불완전 판매율 (%)	모회사 보험료 대비 판매 자회사 실적(%)
AIG어드바이저	FY2012, 생보	생보 468	437	201,870	0.2	-
	FY2012, 손보	손보 672	258,492	39,141,691	0.1	9.58
메리츠금융서비스	FY2012, 생보	생보 328	6,437	1,925,821	13.0	-
	FY2012, 손보	손보 316	4,326	371,142	0.4	0.01
동부MnS	FY2013. 상반기, 손보	손보 610	47,897	1,444,950	0.1	0.03
티시스	FY2011, 생보	생보 938	26,063	9,298,335	1.9	0.97
	FY2011, 손보	손보 771	38,339	10,854,002	1.1	0.40

주: 1) 동일 회계기간 대비 초회보험료(생보), 원수보험료(손보) 기준.

2) 메리츠금융서비스 생보 모집종사자 수는 2013년 9월 기준임.

2) 2014년 3월 말 기준 AIG어드바이저 사용인 수는 760명임.

자료: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이용 작성.

■ 한편, GA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 중 GA를 판매자회사로 하는 경우 초기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해당 GA의 낮은 수익성이 보험회사에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실제 AIG어드바이저의 경우 누적 결손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설립 첫 해인 2012년에 33.4억 원에 해당하는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에도 결손금이 누적되어 누적 결손금이 63.3억 원에 달함.

○ 또한, 메리츠금융서비스에서도 설립 이후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음.

- FY2011~2012 동안 연간 영업손실이 25억 원을 상회함.

- FY2013 들어 영업수익 66.0억 원, 영업비용 78.0억 원으로 영업손실이 11.6억 원(연 환산 15.5억 원), 당기순손실이 12.6억 원(연 환산 16.8억 원)으로 축소됨.

- FY2013의 경우 이전에 비해 영업수익이 축소된 이유는 사용인 해촉 등 저효율 영업 조직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경영조직을 변경하면서 슬림한 형태의 조직으로 재정비 되었기 때문임.

〈표 5〉 GA 자회사의 판매실적 예시

(a) AIG어드바이저의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 원)

항목	2011년 말	2012년 말	2013년 말
- 유동자산	100	669	1,462
- 비유동자산	0	5,238	5,666
총자산	100	5,907	7,128
- 유동부채	0	971	1,673
- 비유동부채	0	8,179	11,682
총부채	0	9,150	13,355
- 자본금	100	100	100
- 이익잉여금	0	-3,343	-6,327
자본총계	100	-3,243	-6,227

자료: AIG어드바이저(http://www.compassadvisors.co.kr/subpage_business_announcement_k)

(b) 메리츠금융서비스의 손익계산서

(단위: 억 원)

항목	FY2011	FY2012	FY2013
영업수익	179.0	164.0	66.0
영업비용	208.0	190.0	78.0
영업이익	-28.0	-25.0	-11.6
당기순이익	-25.0	-25.1	-12.6

주: FY2013은 4~12월간 수치로 보험산업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것임.
 자료: 메리츠금융서비스.

나. GA 자회사에 대한 평가

■ 일각에선 GA 자회사의 적자 원인이 판매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손익구조와 높은 영업비용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설립 초기의 GA 자회사는 설계사 리쿠르팅 비용, 초기정착수당, 사무실 임차료, 전산비용, 통신비 지출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됨.

- 보험회사의 신규설립은 물론, 기존 조직의 분사 형태의 GA 설립에서도 모집조직 확충을 위해 요구되는 비용은 클 수 있음.
- 또한, GA 자회사의 손실에 대해 판매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업모형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GA 전반에 걸친 특성이자 GA 자회사에 국한된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험회사의 GA 설립에서 소요되는 초기 비용은 보험회사가 이미 고려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에 대해 근시안적인 영업손익보다는 손익분기점(BEP)이 되는 투자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 가령, 실제 메리츠금융서비스의 영업손실은 사용인 리쿠르팅을 위한 초기정착수당, 임차료 등 과다 지출비용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모회사인 메리츠화재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메리츠금융서비스의 경우 FY2014부터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효과로 BEP가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동부MnS도 FY2013 손실 22.3억 원, 결손금 21.8억 원을 기록하고 있음.
 - 그 원인으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수수료 분급 확대에 의한 비용 증가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누적 BEP 달성이 향후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보험회사 내부자료).

4. GA 자회사 국내외 실패사례와 시사점

국내외 GA 자회사 사례를 볼 때 보험회사의 GA 채널 활용 시 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경영상 통제력 확보 가능성, 자사 채널과의 마찰 가능성 및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보험회사는 GA 자회사 진출 시 자사 경영전략에 맞는 GA 채널 활용 유형을 신중히 고려하고 해당 GA에 대한 전속여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GA 자회사 실패사례

■ 한편,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도 국내에서 GA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업망 확충 시도가 있었으나 몇 차례 실패사례가 발생함.

○ 예를 들어, 푸르덴셜생명은 2004년 지브롤터마케팅컴퍼니, 2009년 푸르앤파트너스라는 GA자회사를 설립하였으나 곧 사업을 철수함.¹¹⁾

- 푸르덴셜생명은 종신보험 위주의 상품에서 탈피하여 연금시장으로의 외연확대를 위해 GA에 대해 자회사 설립이나 제휴를 시도함.
- 그러나 GA 자회사의 경우 지브롤터마케팅컴퍼니는 타 회사 경력자에 대해 배타적 방식의 리쿠르팅을 시행하면서 푸르덴셜생명 내 전속설계사가 반발하면서 실패함.
- 또한, 푸르앤파트너스의 경우 기존 채널과의 차별화 실패에다 과도한 자회사 판매 비중(80% 이상)을 요구받는 등 실질적 전속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설계사 증원이 힘들어지면서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음.

○ 그린손해보험(현, MG 손보)은 2010년 20억 원의 투자기분으로 2010년 FN스타즈 지분(76.9%)을 인수하였으나, 손실이 누적되고 모회사가 청산되면서 매각됨.

■ 한편, 해외의 경우 영국 생명보험회사 Aegon이 100% 지분투자를 통해 IFA 자회사인 Origen을 설립하였으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2013년에 전속대리점(tied agent network)화하기로 결정함.

11) 보험회사 내부자료.

- 설립 초기 지역 IFA를 단계적으로 인수하여 통합 IFA인 Origen을 출범시킴.
- Origen은 2004년 5월부터 판매활동을 개시하여 통합 후 첫 해 advisers 200명, 매출 3,600만 파운드를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한 바 있음.
- 그러나 Origen은 2013년 현재 영국 내 IFA Networks 순위 93위에 머물고 있으며, 매출액(gross sales)은 7,800만 파운드, 직원 수(CF30 individuals) 53명 정도임.
- 또한, 재무상황 측면에서도 2011년 3,500만 파운드, 2012년 2,900만 파운드 규모의 손실을 연달아 기록하면서 모회사 Aegon이 400만 파운드 규모의 재무적 지원을 하게 됨.

나. 시사점

■ 이러한 실패사례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GA 채널 활용 시 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경영상 통제력 확보 가능성, 자사 채널과의 마찰 가능성 및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GA 채널 활용과 관련하여 직접 설립, M&A, 단순 지분참여, 제휴 등 그 각각에 대해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맞춰 어떠한 채널전략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GA가 보험회사의 자회사라 할지라도 보험회사는 그의 전속여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모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약하거나 취급상품이 제한적이라면 비전속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임.

- 예를 들어, GA 자회사의 경우에도 모회사에 전속 시 취급상품이 제한되므로 이로 인해 사용인들을 리쿠르팅하기 어렵고, 동시에 이탈하는 사용인도 증가할 것임.

■ 아울러, 보험회사의 GA 자회사 활용은 자사 채널이 가지고 있는 비용측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이러한 활용이 보험회사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설립 초기에는 GA 자회사의 결손금 발생이 어느 정도 예상되므로 누적 BEP가 되는 투자시기를 보험회사의 경영사정에 맞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GA 채널 활용 시 보험회사 내 기존 채널과 마찰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모회사 내 기존 채널의 반발이 심할 경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GA 채널의 취급상품을 달리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메리츠금융서비스 내부자료.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보험회사 내부자료.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

안철경 · 권오경(2010),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보험연구원.

AIG어드바이저 홈페이지(http://www.compassadvisors.co.kr/subpage_business_announcement_k).

Berlin, J. and J. Wellborn(2008), *The Market Maturity Model: Ring Around the World*, LIMRA.

Swiss Re(2013), *Sigma No 3*.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2014년 1/4분기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일본의 경우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미국 및 유로 지역의 경우 하락함. 중국 등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지속함.

■ 2014년 1/4분기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세는 둔화됨.

- 미국의 실질 GDP는 2013년 4/4분기보다 2.9% 감소하였으며 유로 지역의 경우 저물가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전분기에 비해 0.7% 성장에 그침.
- 반면 일본의 경우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 인상(5%→8%)을 앞둔 소비 증가, 기업 수익성 및 고용 개선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전분기에 비해 6.7% 성장함.
- 중국의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1.4% 성장하며 2013년 2/4분기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세가 지속됨.

〈표 1〉 세계경제 성장률¹⁾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¹⁾	3.2	3.0	n.a.	n.a.	n.a.	n.a.	n.a.	n.a.	n.a.	n.a.
선진국 ¹⁾	1.4	1.3	n.a.	0.4		1.1		2.5		0.5
신흥국 ¹⁾	5.0	4.7	n.a.	5.1		4.6		5.2		n.a.
미국 ²⁾	2.8	1.9	1.2	2.8	0.1	1.1	2.5	4.1	2.6	-2.9
유로 ³⁾	-0.7	-0.4	-1.1	-0.6	-2.1	-0.8	1.3	0.5	1.0	0.7
일본 ⁴⁾	1.4	1.5	-2.5	-3.0	0.2	5.3	2.9	1.3	0.3	6.7
중국 ⁵⁾	7.8	7.7	2.1	2.0	1.9	1.5	1.8	2.3	1.7	1.4

주: 1) 분기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가율,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3) 국가별 분기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4. 4).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4. 6).

3) Eurostat(2014. 6).

4) 일본 내각부(2014. 6).

5) 중국 국가통계국(2014. 4).

■ 2014년 1/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와 유사한 99.9를 기록함.

○ 미국, 일본,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유로 지역은 전분기 대비 0.3 상승한 101.0을 나타냄.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²⁾	99.8	100.0	99.8	99.7	99.7	99.9	99.9	100.0	100.0	99.9
선진국 ³⁾	99.7	100.2	99.7	99.5	99.6	99.9	100.1	100.3	100.5	100.6
미국	99.8	100.4	99.8	99.7	99.9	100.2	100.4	100.6	100.6	100.5
유로	99.1	99.9	99.3	98.9	98.8	99.2	99.6	100.1	100.7	101.0
일본	99.7	100.6	99.8	99.5	99.5	99.9	100.5	100.9	101.2	100.9
중국	100.0	99.8	99.9	99.9	100.1	100.2	99.9	99.6	99.4	98.8

주: 1) 2007.1=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4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수출 둔화 및 미국의 호한으로 인한 산업 활동 부진으로 2013년 4/4분기보다 1.7%p 감소한 2.4% 증가함.

○ 선진국의 2014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무역규모 증가율은 2013년 4/4분기 2.5%에서 0.7%p 하락한 1.8%를 기록하였고 신흥국 무역규모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2.6%p 낮아진 3.1%를 기록함.

〈표 3〉 세계 무역규모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¹⁾	1.9	2.7	2.8	1.2	1.4	1.7	1.8	3.1	4.1	2.4
선진국	0.2	0.3	1.3	0.0	-1.6	-1.4	-0.2	0.5	2.5	1.8
신흥국	3.9	5.2	4.4	2.5	4.7	5.1	4.0	6.0	5.7	3.1

주: 1) 2014년 현재 OECD 국가 중 Luxembourg를 제외한 23개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6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함.

2)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의 분류 기준과 동일.

3)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4년 1/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로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한 3.0%를 기록한 반면, 원자재가격의 경우 두바이산 원유를 제외하고 소폭 상승함.

○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4/4분기 1.2%보다 0.1%p 증가한 1.3%를 기록하였으나 신흥국의 경우 같은 기간 5.3%에서 5.2%로 0.1%p 낮아짐.

○ 두바이 현물지수는 전분기대비 2.9% 하락한 반면, WTI 현물지수는 아프리카 원유공급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으로 4.1% 상승하였고,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곡물 등 상품 가격 상승으로 CRB지수¹⁾도 4.4% 상승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3				2014		2013				2014
	연간	2/4	3/4	4/4	1/4		연간	2/4	3/4	4/4	1/4
세 계	3.6	3.0	3.3	3.1	3.0	두바이 현물지수	105.7	100.2	106.6	107.7	104.5
선진국	1.4	1.3	1.5	1.2	1.3	WTI 현물지수	97.5	93.9	105.1	95.7	99.6
신흥국	5.8	5.1	5.5	5.3	5.2	CRB 상품지수 ²⁾	287.6	285.8	287.8	279.9	292.3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한국은행; Bloomberg.

1)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지수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예견되거나 그 상품의 수요 증가를 의미함.

가. 미국경제

2014년 1/4분기 미국의 실질 GDP는 투자 및 수출 둔화와 연초 이상 한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비해 크게 감소함.

〈경제성장〉

■ 2014년 1/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재고 감소 및 이상 기후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과 수출 감소로 2009년 1/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2.9%를 기록함.

- 민간소비는 2014년 초 흑한으로 전분기대비 1.0% 증가에 그침.
- 민간투자의 경우 2013년 4/4분기 이후 주택투자 감소가 지속되고 2014년 1/4분기에는 설비투자도 감소하며 전분기대비 11.7% 감소함.
- 수출은 기상악화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회복세 둔화, 2013년 4/4분기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8.9% 감소한 반면, 수입은 1.8% 증가함.
- 정부지출의 경우 연방정부의 지출은 증가했으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감소로 0.8% 감소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GDP	2.8	1.9	1.2	2.8	0.1	1.1	2.5	4.1	2.6	-2.9
민간소비	2.2	2.0	1.9	1.7	1.7	2.3	1.8	2.0	3.3	1.0
재화	3.3	3.5	2.2	3.7	3.7	3.7	3.1	4.5	2.9	0.2
서비스	1.6	1.2	1.7	0.7	0.6	1.5	1.2	0.7	3.5	1.5
민간투자	9.5	5.4	-1.6	6.5	-2.4	4.7	9.2	17.2	2.5	-11.7
설비	7.3	2.7	4.5	0.3	9.8	-4.6	4.7	4.8	5.7	-1.2
주택	12.9	12.2	5.7	14.1	19.8	12.5	14.2	10.3	-7.9	-4.2
수출	3.5	2.7	3.8	0.4	1.1	-1.3	8.0	3.9	9.5	-8.9
수입	2.2	1.4	2.5	0.5	-3.1	0.6	6.9	2.4	1.5	1.8
정부지출	-1.0	-2.2	0.3	3.5	-6.5	-4.2	-0.4	0.4	-5.2	-0.8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4. 6),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내수부문〉

■ 2014년 1/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겨울철 이상 한파의 영향으로 2013년 4/4분기보다 0.7%p 감소한 0.2%를 기록함.

○ 2014년 4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날씨 호전에 따른 자동차 판매증가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며 0.5%를 기록하였고, 5월에는 0.3%로 낮아짐.

○ 1/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전분기보다 7.1 높아진 80.5를 기록하였으며 4월 81.7, 5월 83.0을 나타내며 상승세를 지속함.

■ 2014년 1/4분기 주택가격 상승세는 정체되었고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으로 신규주택 착공은 감소하는 등 주택경기 회복세가 둔화됨.

○ 2014년 1/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는 전분기대비 9.8% 감소한 후, 4월 12.7% 증가하였다가 5월 6.5% 감소로 전환되며 변동성이 확대됨.

○ 2014년 1/4분기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와 유사한 165.9를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내수부문 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5.1	4.2	1.1	1.5	1.5	0.5	0.9	0.9	0.2	0.5	0.3
소비자신뢰지수 ²⁾	67.1	73.1	65.7	69.7	62.8	75.1	81.0	73.4	80.5	81.7	83.0
신규주택착공호수 ³⁾ (%)	28.1	18.6	5.5	16.4	4.3	-8.7	2.0	16.2	-9.8	12.7	-6.5
주택가격지수 ⁴⁾	141.3	158.2	145.5	146.0	147.0	155.9	164.2	165.8	165.9	n.a.	n.a.

주: 1)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4년 1/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²⁾는 하락하였으나 설비가동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선행지수 상승세를 이끌었음.

○ 2014년 1/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1.1%를 나타냈으며 2014년 4월 -0.3%로 하락한 후 5월 0.6%로 상승함.

- 설비가동률은 1/4분기 78.7을 기록하였고 4월 78.9, 5월 79.1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감.

○ 1/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보다 4.0 낮아진 52.7을 기록하였지만 4월과 5월 항공,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 경기선행지수는 소비자신뢰지수 상승의 영향으로 1/4분기 100.1, 4월과 5월 각각 101.2, 101.7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산업생산증가율 ¹⁾ (%)	3.8	2.9	0.4	0.6	1.0	0.5	0.6	1.2	1.1	-0.3	0.6
설비가동률 ²⁾	77.3	78.0	77.2	77.3	77.7	77.8	77.9	78.4	78.7	78.9	79.1
ISM제조업PMI	51.8	53.9	51.3	50.4	52.3	50.8	55.7	56.7	52.7	54.9	55.4
경기선행지수 ³⁾	93.6	96.9	93.6	94.1	95.1	96.0	97.3	99.1	100.1	101.2	101.7

주: 1)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값의 증가율.

2) 2007=100

3) 2004=100

자료: 국제금융센터;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2)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고용과 물가〉

■ 2014년 1/4분기 취업자 수 증가세는 전분기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미국 연준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³⁾으로 실업률 하락세는 지속됨.

○ 전분기대비 비농업 취업자 증감은 1/4분기 56만 9,000명으로 전분기대비 2만 6,000명 감소하였지만,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1/4분기 33만 1,000명으로 전분기대비 1만 4,000명 감소하였고 4월과 5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함.

○ 1/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6.7%를 기록하였고, 2014년 4월과 5월에도 각각 6.3% 수준을 유지함.

- 포괄적 실업률도 2014년 1/4분기 12.7%, 4월 12.3%, 5월 12.2%를 기록하며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

■ 2014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료품과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전분기대비 0.7%p 상승함.

○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1.4%, 4월 2.0%, 5월 2.1%를 기록함.
- 1/4분기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6% 상승하였고 4월 1.8%, 5월 2.0%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함.

○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 1.5%, 4월 3.1%로 상승하였고, 5월에는 2.4%를 기록함.

- 근원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1/4분기 1.8%, 4월 1.9%, 5월 1.8% 수준을 유지함.

3)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월 29일 새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와 중산층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고용·노동 정책을 마련함. 고용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연준은 첨단기술 분야 및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제조업 연구개발센터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으로 유턴한 해외진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함.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물가 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업률 ¹⁾ (%)	8.1	7.4	8.0	7.8	7.7	7.5	7.2	7.0	6.7	6.3	6.3
포괄적 실업률(u-6) ²⁾ (%)	14.7	13.8	14.8	14.4	14.2	14.0	13.7	13.3	12.7	12.3	12.2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만 명)	223.6	233.1	47.1	64.2	61.8	60.3	51.5	59.5	56.9	28.2	21.7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만 명)	37.5	34.4	37.5	37.6	35.5	34.6	33.0	34.5	33.1	32.0	31.1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2.1	1.5	1.7	1.9	1.7	1.4	1.6	1.2	1.4	2.0	2.1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2.1	1.8	2.0	1.9	1.9	1.7	1.7	1.7	1.6	1.8	2.0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9	1.3	1.5	1.7	1.5	1.5	1.2	0.8	1.5	3.1	2.4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2.6	1.5	2.5	2.2	1.8	1.7	1.2	1.4	1.8	1.9	1.8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3) 전분기대비 증감.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나. 유로경제

2014년 1/4분기 유로경제는 투자와 수출 증가세 둔화로 전분기에 비해 0.2% 성장에 그침.

〈경제성장〉

■ 2014년 1/4분기 유로 지역⁴⁾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하며 2013년 2/4분기 이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성장세 부진으로 2013년 4/4분기보다 0.1%p 하락함(〈표 9〉와 〈표 12〉 참조).

4) 2014년 여름호부터 2014년 1월 1일 신규 가입한 라트비아를 포함하여 유로화 사용 18개국(EA18)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됨.

- 2014년 1/4분기 유럽 주요 5개국 경제성장률의 경우 독일, 스페인 및 영국이 회복세를 유지한 가운데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전분기에 비해 둔화됨(〈표 12〉 참조).
 - 2014년 1/4분기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4/4분기보다 0.4%p 상승한 0.8%를 기록하였고 영국의 경우 전분기 대비 0.1%p 높아진 0.8%를 기록하며 유로 지역 성장을 견인함.
 - 한편 1/4분기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4/4분기보다 0.2%p 상승한 0.4%를 기록함.
 -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전분기대비 0.2%p 감소하며 유로 지역 경제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나타남.
-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프랑스의 민간소비가 0.4% 감소하였으나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민간소비 증가로 0.1%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의 경우 독일을 제외한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고정자본투자 감소로 전분기대비 0.6%p 감소한 0.3%를 기록한 반면, 정부지출은 전분기대비 0.3% 증가함.
- 유로 지역 수출은 독일과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의 부진으로 2013년 4/4분기보다 1.1%p 감소한 0.3%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전분기대비 0.8% 증가함.

〈표 9〉 유로 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EA18 GDP	-0.7	-0.4	-0.3	-0.2	-0.5	-0.2	0.3	0.1	0.3	0.2
민간소비	-1.3	-0.7	-0.6	-0.1	-0.5	-0.2	0.2	0.1	0.0	0.1
고정자본투자	-4.0	-2.9	-1.8	-0.6	-1.4	-1.6	0.2	0.5	0.9	0.3
정부지출	-0.6	0.1	-0.2	-0.2	0.1	0.2	0.0	0.2	-0.4	0.3
수출	2.5	1.4	0.9	0.8	-0.6	-0.8	2.4	0.0	1.4	0.3
수입	-0.9	0.4	-0.2	0.3	-1.0	-0.8	1.6	0.9	0.7	0.8

주: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2014, 6, 24).

〈생산 및 내수부문〉

■ 2014년 1/4분기 유로 지역 산업생산의 경우 2013년 4/4분기보다 소폭 둔화되었으나 4월 0.8% 증가함.

■ 2014년 1/4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0.7% 증가하였으며 향후 경기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음.

○ 1/4분기 유로 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01.6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고 4월 102.0, 5월 102.7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지속됨.

○ 유로 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1/4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4/4분기보다 개선되었으며 4월과 5월에도 회복세를 유지함.

〈표 10〉 유로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유로 지역 ESI ¹⁾	90.8	93.8	87.8	87.2	90.5	90.2	95.3	99.1	101.6	102.0	102.7
소매판매 증가율 ²⁾ (%)	-1.7	-0.9	0.0	-1.2	0.0	0.1	0.5	-0.4	0.7	0.4	n.a.
소비자신뢰지수 ³⁾	-22.1	-18.6	-23.6	-25.9	-23.5	-20.8	-15.9	-14.4	-11.2	-8.6	-7.1
산업생산 증가율 ⁴⁾ (%)	-2.5	-0.7	0.1	-2.0	0.3	0.6	0.0	0.5	0.3	0.8	n.a.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3)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4) 비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자료: Eurostat; Bloomberg.

〈고용과 물가〉

■ 2014년 1/4분기 유럽 주요국을 비롯한 동유럽과 남유럽의 실업률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북유럽의 경우 2013년 3/4분기 이후 동일한 수준을 지속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2014년 1/4분기 실업률은 2013년 4/4분기보다 0.1%p 하락한 7.4%를 기록한 반면, 북유럽은 전분기와 동일한 6.7%를 나타냄.

○ 또한, 1/4분기 동유럽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9.8%를 기록하였으며 남유럽 실업률도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19.9%를 기록함.

■ 2014년 1/4분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남유럽을 제외한 유럽 지역에서 상승세가 둔화됨.

○ 1/4분기 유럽 주요국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4/4분기보다 0.2%p 하락한 1.2%를 기록하였으며 북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p 하락한 1.0%를 기록함.

○ 또한, 1/4분기 동유럽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0.6%를 나타냈으나 남유럽의 경우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2%를 기록함.

〈표 1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3년 3/4	7.7	6.7	10.3	20.6	1.8	1.5	1.7	0.5
2013년 4/4	7.5	6.7	10.1	20.3	1.4	1.1	0.8	-0.3
2014년 1/4	7.4	6.7	9.8	19.9	1.2	1.0	0.6	-0.2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4. 6. 24).

〈표 12〉 유럽 주요국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독일 GDP	0.7	0.4	-0.1	0.2	-0.5	0.0	0.7	0.3	0.4	0.8
민간소비	0.8	0.9	0.0	0.3	0.1	0.3	0.7	0.3	-0.3	0.7
고정자본투자	-2.1	-0.8	-1.7	-0.1	-0.7	-1.4	1.2	1.3	0.7	3.2
수출	3.2	0.9	1.4	0.5	-1.6	-0.7	2.5	-0.1	2.5	0.2
수입	1.4	1.5	0.7	0.1	-0.9	0.2	1.5	0.8	1.3	2.2
프랑스 GDP	0.0	0.2	-0.3	0.3	-0.3	0.0	0.6	-0.1	0.2	0.0
민간소비	-0.3	0.3	-0.6	0.1	-0.1	0.4	0.2	-0.1	0.2	-0.4
고정자본투자	-1.2	-2.3	-0.2	0.0	-0.4	-0.4	0.2	-0.2	-0.1	-0.9
수출	2.4	0.6	0.1	0.4	-0.5	0.3	2.7	-0.4	1.6	0.3
수입	-1.1	0.5	-0.2	0.0	-0.8	0.5	1.7	1.2	0.5	1.0
이탈리아 GDP	-2.4	-1.9	-0.5	-0.4	-0.9	-0.6	-0.3	-0.1	0.1	-0.1
민간소비	-4.0	-2.6	-0.5	-1.5	-0.7	-0.8	-0.5	-0.2	0.0	0.1
고정자본투자	-8.0	-4.7	-1.4	-1.1	-1.1	-2.7	0.0	-0.9	0.8	-1.1
수출	2.1	0.1	-0.1	1.0	-0.2	-1.4	0.6	0.6	1.2	0.8
수입	-7.0	-2.8	-0.8	-1.5	-1.7	-1.1	-0.2	1.0	0.2	0.3
스페인 GDP	-1.6	-1.2	-0.5	-0.4	-0.8	-0.3	-0.1	0.1	0.2	0.4
민간소비	-2.8	-2.1	-1.1	-0.7	-2.0	-0.4	0.1	0.5	0.5	0.4
고정자본투자	-7.0	-5.1	-3.3	0.2	-3.0	-1.2	-1.9	0.7	0.7	-0.6
수출	2.1	4.9	0.6	6.5	0.6	-4.5	7.0	0.6	0.8	-0.4
수입	-5.7	0.4	-2.2	4.6	-2.6	-4.6	6.1	2.1	-0.6	1.5
영국 GDP	0.3	1.7	-0.4	0.8	-0.2	0.4	0.8	0.8	0.7	0.8
민간소비	1.4	2.2	0.5	0.3	0.4	1.0	0.3	0.8	0.3	n.a.
고정자본투자	0.8	-0.6	-1.5	-2.7	-5.1	0.9	4.0	1.9	1.9	n.a.
수출	1.7	1.0	-1.4	3.3	-1.1	-1.0	2.5	-1.9	2.8	n.a.
수입	3.4	0.5	1.2	0.5	0.0	-2.4	2.3	1.5	-0.4	n.a.

주: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 Bloomberg.

다. 일본경제

2014년 1/4분기 일본경제는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수요 증가와 수출 회복으로 전분기대비 1.6% 성장함.

〈경제성장〉

■ 2014년 1/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 수출 회복 등의 영향으로 1.6%를 기록함.

-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 인상⁵⁾을 앞둔 소비 증가로 전분기대비 1.8%p 증가한 2.2%를 기록함.
- 또한, 2014년 1/4분기 설비투자는 기업 수익성 개선으로 2013년 4/4분기보다 7.6% 증가하였으며 주택투자 증가율은 3.1%를 기록함.
- 2013년 1/4분기 이후 지속된 정부지출 둔화세로 2014년 1/4분기 정부지출 증가율은 0.1% 기록하였고 공공투자는 2.7% 감소함.
- 1/4분기 수출은 전분기대비 6.0% 증가하였고 수입은 설비투자 확대에 전분기대비 6.3% 증가함.

〈표 13〉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 GDP	1.4	1.5	-0.6	-0.8	0.0	1.3	0.7	0.3	0.1	1.6
민간소비	2.0	2.0	0.4	-0.5	0.5	1.0	0.7	0.2	0.4	2.2
설비투자	3.7	-1.5	0.5	-1.5	-0.2	-2.2	0.9	0.9	1.6	7.6
주택투자	2.9	8.9	3.1	1.8	2.4	1.8	0.8	3.3	4.3	3.1
정부지출	1.7	2.0	-0.6	0.4	0.7	0.9	0.4	0.2	0.2	0.1
공공투자	2.8	11.4	-2.0	-2.4	-0.3	4.6	6.4	6.8	1.1	-2.7
수출	-0.1	1.7	-0.5	-4.0	-3.0	4.3	2.9	-0.7	0.5	6.0
수입	5.3	3.4	1.4	-0.4	-1.9	1.1	1.8	2.4	3.7	6.3

주: 전분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2014. 6).

5) 2012년 8월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법'을 제정하여 소비세율을 5%에서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2단계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생산 및 내수부문〉

■ 2014년 1/4분기 광공업생산은 완만한 내수·수출 회복세로 전분기에 비해 3.0% 증가함.

○ 한편 일본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으로 4월 광공업생산은 2.8% 감소로 전환됨.

■ 2014년 1/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한 38.8을 기록하였고 4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가다 5월 39.3을 기록하며 소폭 상승함.

○ 2014년 1/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둔 소비 증가로 2013년 4/4분기보다 2.5%p 증가한 3.9%를 기록하였고 기업의 임금인상⁶⁾으로 4월 13.6%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감.

■ 2014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일본정부의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투자 감소로 전분기에 비해 9.5%p 낮아진 3.4%를 기록하였고 4월에는 -3.3%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확대됨.

○ 1/4분기 민간기계수주액은 전분기대비 4.2% 증가하였으나 4월에는 9.1% 감소함.

〈표 14〉 일본의 주요 내수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0.2	-0.6	-3.3	-1.8	0.5	1.6	1.7	1.8	3.0	-2.8	n.a.
소매판매 증가율 ²⁾ (%)	1.8	1.0	-0.9	-0.2	0.7	0.7	0.3	1.4	3.9	13.6	n.a.
소비자신뢰지수 ³⁾	40.0	43.6	40.1	40.0	44.1	44.7	44.0	41.7	38.8	37.0	39.3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5.8	11.0	-1.1	15.0	5.1	11.8	13.5	12.9	3.4	-3.3	n.a.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4.6	4.7	-1.0	-0.6	-0.3	6.4	4.8	1.9	4.2	-9.1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전분기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6) 일본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4년 3월 기준 1인당 급여총액 평균은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으며 4월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본급이 인상되며 민간소비 증가가 지속됨.

〈고용과 물가〉

■ 2014년 1/4분기 실업률은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은 소폭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광공업생산이 증가하면서 1/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3%p 감소한 3.6%를 기록하였고 4월에도 3.6%를 기록함.
- 또한, 유효구인배율은 1/4분기 1.05, 4월 1.08로 상승세를 지속하며 고용여건 개선을 나타냄.

■ 소비자물가는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감.

- 2014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를 기록하였고 4월에도 3.4%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임.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1/4분기 0.7%, 4월 2.3% 기록함.

〈표 1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업률(%)	4.3	4.0	4.3	4.2	4.2	4.0	4.0	3.9	3.6	3.6	n.a.
유효구인배율(배) ¹⁾	0.80	0.93	0.81	0.82	0.85	0.90	0.95	1.00	1.05	1.08	n.a.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0.0	0.4	-0.4	-0.2	-0.6	-0.3	0.9	1.4	1.5	3.4	n.a.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0.6	-0.2	-0.6	-0.5	-0.8	-0.4	-0.1	0.5	0.7	2.3	n.a.

주: 1) 구인 수/구직자 수

2) 2010=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라. 중국경제

2014년 1/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수출 감소와 고정자산 투자 둔화로 2013년 4/4분기에 비해 소폭 둔화된 7.4%를 기록함.

〈경제성장〉

■ 2014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⁷⁾ 따른 투자 감소로 2013년 4/4분기 대비 0.3%p 하락한 7.4%를 기록함.

- 1/4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전분기 증가율보다 2.1%p 하락한 17.8% 증가하였으며 4월 17.3%, 5월 17.2% 증가하며 둔화세를 보임.
- 1/4분기 수출 증가율은 춘절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12.2%p 하락한 -4.7%를 기록하였으나 4월 0.9%, 5월 7.0%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임.
- 한편 1/4분기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4.3%p 하락한 2.8%를 기록하였고 4월과 5월 각각 0.8%, -1.6%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지속함.

〈표 1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질 GDP(%) ¹⁾	7.8	7.7	2.0 (7.4)	1.9 (7.9)	1.5 (7.7)	1.8 (7.5)	2.3 (7.8)	1.7 (7.7)	1.4 (7.4)	n.a.	n.a.
고정자산투자 ²⁾ (%)	20.6	20.3	20.4	20.7	21.1	20.4	20.2	19.9	17.8	17.3	17.2
수출 증가율(%) ³⁾	8.4	8.6	4.5	9.5	18.9	4.1	4.0	7.5	-4.7	0.9 ⁴⁾	7.0
수입 증가율(%) ³⁾	5.1	7.6	1.5	2.8	9.6	5.1	8.5	7.1	2.8	0.8	-1.6

주: 1) 전분기(월)대비, 괄호는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전년동기대비.

4) 4월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며 수출 증가율이 상승하였고 위안화 약세 유도, 중소 수출업체 조세지원 등 수출 지원책으로 5월에도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7) 201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 방향은 ① 민생개선: 사회보장제도 강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② 물가안정: 유통구조 및 시장가격에 대한 감독 강화와 물가상승률 목표치 하향, ③ 질적성장: 민간부분의 소비 확대를 주도하되, 투자의 질과 효율성 개선 등 세 가지임.

〈내수부문〉

■ 소매판매 증가율은 소폭 하락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 및 기업가신뢰지수는 상승함.

- 2014년 1/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3%p 하락한 12.2%를 기록하였으며 4월과 5월에도 전년동기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1/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104.0을 기록하였고 4월에도 상승세를 유지함.
- 또한, 1/4분기 기업가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6.1% 상승한 124.3을 나타냄.

〈표 17〉 중국의 주요 내수관련 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4.4	13.2	13.5	14.9	12.6	13.0	13.3	13.5	12.2	11.9	12.5
소비자신뢰지수	102.4	101.2	99.5	105.0	105.1	99.9	98.3	101.4	104.0	104.8	n.a.
기업가신뢰지수 ²⁾	120.3	119.0	116.5	120.4	122.4	117.0	119.5	117.1	124.3	n.a.	n.a.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생산부문〉

■ 2014년 1/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 및 구매자관리지수는 2013년 4/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함.

- 2014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2%p 하락한 8.8%를 기록함.
- 1/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춘절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50.3을 나타냈으나 4월과 5월에는 50.4, 50.8로 소폭 상승함.

〈표 18〉 중국의 주요 생산관련 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9.9	9.7	9.1	10.0	8.9	9.1	10.1	10.0	8.8	8.7	8.8
구매자관리지수 ²⁾	50.8	50.8	49.7	50.5	50.5	50.5	50.8	51.3	50.3	50.4	50.8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물가〉

■ 2014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매판매가 감소하는 등 수요가 위축되면서 2013년 하반기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생산자물가 하락폭은 커짐.

○ 2014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4/4분기보다 0.6%p 낮아진 2.3%를 기록하였으며 4월과 5월 각각 1.8%, 2.5%를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 -2.0%를 기록하며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나, 4월과 5월 각각 -2.0%, -1.4%를 기록하며 하락폭이 둔화됨.

〈표 19〉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2.6	1.9	2.1	2.4	2.4	2.8	2.9	2.3	1.8	2.5
생산자물가 상승률(%)	-1.7	-1.9	-3.3	-2.3	-1.7	-2.7	-1.7	-1.4	-2.0	-2.0	-1.4

주: 전년동기(월)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2. 국내경제

2014년 1/4분기 국내경제는 투자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세 확대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경제성장〉

■ 2014년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세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와 수출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총 취업자 증가율 상승,⁸⁾ 개별소비세 인하,⁹⁾ 1월 명절효과 및 2013년 4/4분기 가계대출 증가 등으로 2013년 4/4분기대비 0.3%p 상승한 2.5%를 기록함.
-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1.1%p, 3.6%p 하락하였고, 지식생산물 투자 증가율 역시 전분기대비 2.4%p 하락하며 투자 증가세가 둔화됨.
- 재화수출 증가율은 자동차 및 IT 수출 확대로 전분기대비 0.9%p 상승한 3.9%를 기록한 반면 재화수입 증가율은 내수 둔화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1.5%p 하락한 3.4%를 기록함.

〈표 20〉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³⁾	2/4 ³⁾	3/4 ³⁾	4/4 ³⁾	연간 ³⁾	1/4 ³⁾
실질 GDP	2.4 (0.5)	2.1 (0.4)	2.1 (0.6)	2.3	2.1 (0.6)	2.7 (1.0)	3.4 (1.1)	3.7 (0.9)	3.0	3.9 (0.9)
민간소비	0.7	2.6	2.7	1.9	1.7	2.1	2.1	2.2	2.0	2.5
설비투자	-1.8	-4.2	-4.0	0.1	-12.7	-3.9	1.5	10.9	-1.5	7.3
건설투자	-5.4	-2.7	-6.2	-3.9	1.9	9.8	8.8	5.4	6.7	4.3
지식생산물투자	6.3	9.7	5.1	8.6	6.6	7.3	5.3	9.7	7.3	7.3
재화수출(F. O. B)	3.6	4.8	6.0	4.4	6.6	6.5	2.4	3.0	4.5	3.9
재화수입	-1.5	3.7	0.7	1.9	-1.5	0.8	0.4	4.9	1.2	3.4

주: 1)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2) ()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3)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8) 총 취업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013년 4/4분기 2.2% → 2014년 1/4분기 3.0%

9) 2014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2000CC 이상 차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7%에서 6%로 하향 조정됨. 이에 따라 2014년 1/4분기 승용차 판매가 14.1% 증가하였음.

〈산업생산 · 경기〉

- 2014년 1/4분기 산업생산은 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는데 그침.
- 2014년 1/4분기 광공업생산은 제조업 생산 둔화로 0.7% 증가에 그쳤으나 4월(+2.5%)과 5월(-2.1%)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
 - 2014년 1/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을 제외한 분야의 증가세에도 1.9%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4월과 5월에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됨.

〈표 21〉 생산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²⁾	4월 ²⁾	5월 ²⁾
전산업생산 ³⁾	1.2	0.5	2.0	1.2	2.6	1.6	1.7	1.4	-0.7
광공업	1.3	-0.8	0.0	0.2	1.7	0.3	0.7	2.5	-2.1
제조업	1.4	-0.8	0.0	0.1	1.8	0.3	0.6	2.7	-2.3
자동차	-0.2	-3.6	-2.2	5.4	5.6	1.2	7.6	11.9	0.0
ICT	2.4	2.7	4.3	8.1	-1.2	3.3	-0.8	1.9	-4.3
서비스업	1.6	0.9	1.7	0.8	2.1	1.4	1.9	0.9	0.6
도매 및 소매업	0.8	-0.5	0.3	-0.7	0.2	-0.2	0.5	-1.2	0.1
운수업	1.2	1.9	2.6	-0.6	0.7	1.1	0.6	0.2	-0.9
숙박 및 음식점업	-1.2	-0.8	-0.9	0.8	2.4	0.4	0.5	-1.7	-2.7
금융 및 보험업	2.8	1.0	2.9	-0.9	-0.5	0.5	1.4	2.8	1.8
부동산 및 임대업	-4.8	-2.3	5.7	1.8	4.8	2.5	4.1	7.2	5.3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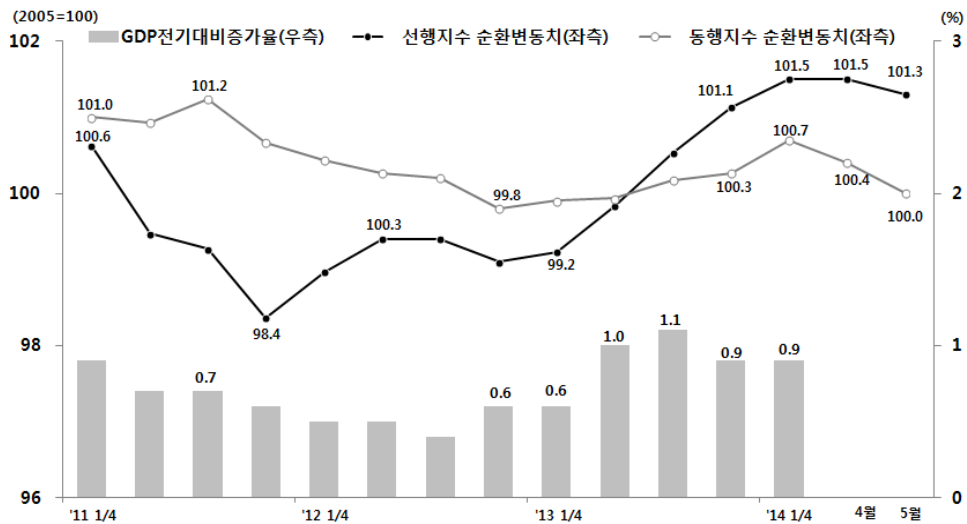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2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4년 1/4분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됨.

- 2014년 1/4분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비자기대지수 상승,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한 101.5를 기록하였음.

- 2014년 4월에도 건설수주가 증가하면서 101.5를 나타냈으나 5월 구인구직비율 등이 하락하면서 101.3으로 소폭 하락함.
- 2014년 1/4분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건설기성액이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0.4 상승한 100.7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4월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하여 100.4를 나타냈으며 5월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함에 따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하락세를 지속함.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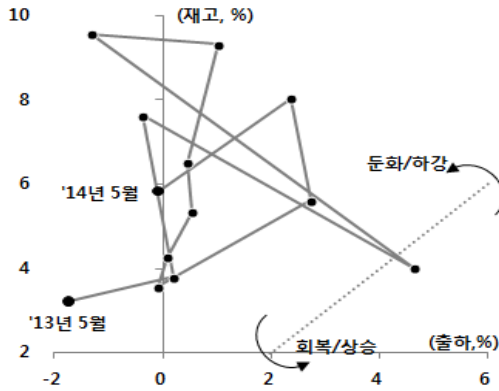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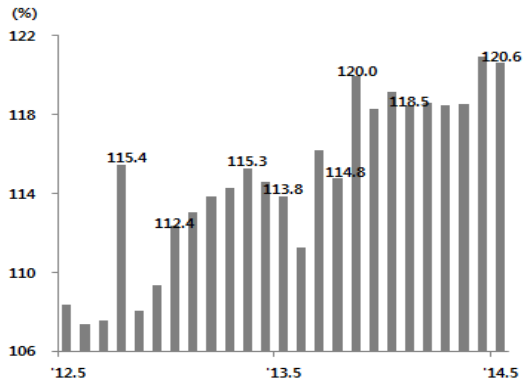
주: 2014년 1/4분기, 5월과 6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4년 5월 제조업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5.8% 증가하여 제조업 경기는 둔화/하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¹⁰⁾

○ 제조업 출하대비 재고비율(재고율)은 120.6%로 2013년 5월에 비해 6.8%p 상승하였음.

10) 2014년 2~5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그림 2〉 제조업 재고 출하 순환도

〈그림 3〉 제조업 재고/출하비율¹⁾

주: 재고출하 순환도는 X축에 출하 전년동월비(계절조정), Y축에는 재고 전년동월비(계절조정)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도표.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내수부문〉

■ 2014년 1/4분기 소매판매는 통신사 영업 정지 등의 영향에도 기저효과¹¹⁾와 승용차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4월에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2014년 1/4분기 내구재 판매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¹²⁾ 효과로 승용차 판매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한 후 4월 0.8% 감소하였다가, 5월 2.3% 증가함.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2012년보다 따뜻했던 겨울날씨로 인한 계절의류 판매 부진으로 1.8% 감소하였으며 4월과 5월에도 각각 1.4%, 2.4% 줄어듦.

11) 2013년 1/4분기 소매판매는 0.3% 증가하는데 그침.

12) 2014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2000cc 이상 차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7%에서 6%로 하향 조정됨.

- 2014년 1/4분기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1월 명절효과 및 신학기 효과로 2.7% 증가하였으나 4월 0.9%, 5월 1.9% 늘어나는데 그쳤음.

〈표 22〉 소비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²⁾	4월 ²⁾	5월 ²⁾
민간소비	1.9	1.7	2.1	2.1	2.2	2.0	2.5	-	-
소매판매	2.4	0.3	1.2	0.7	1.2	0.8	2.5	0.0	1.0
내구재	5.3	1.4	2.9	-1.4	-1.5	0.3	6.0	-0.8	2.3
승용차	2.4	4.1	2.1	6.3	-3.4	2.1	14.1	17.2	9.1
준내구재	-0.4	2.7	1.6	2.9	1.0	2.0	-1.8	-1.4	-2.4
비내구재	2.0	-1.4	0.2	0.7	2.8	0.6	2.7	0.9	1.9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4년 1/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2013년 1/4분기 13.1%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5.9% 증가에 그쳤고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증가세가 둔화됨.

- 2014년 1/4분기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4.5%p 하락한 5.9%를 기록하였고 4월과 5월 운송장비 투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20.9%, 11.4% 증가함.
- 2014년 1/4분기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은 2013년 1/4분기 -11.4%를 나타냈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013년 4/4분기 32.4%보다 14.5%p 하락한 17.9%에 그침.

〈표 23〉 투자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²⁾	4월 ²⁾	5월 ²⁾
설비투자	0.1	-12.7	-3.9	1.5	10.9	-1.5	7.3	-	-
설비투자지수	-2.8	-13.1	-4.0	2.7	10.4	-1.3	5.9	10.7	4.8
기계류	-2.7	-16.5	-5.7	1.9	12.3	-2.6	4.8	7.1	2.4
운송장비	-3.0	-2.6	0.9	4.8	5.6	2.3	8.6	20.9	11.4
국내기계수주 ³⁾	-13.9	-11.4	8.8	2.2	32.4	6.7	17.9	22.9	-16.0
건설투자	-3.9	1.9	9.8	8.8	5.4	6.7	4.3	-	-
건설기성(불변)	-5.0	4.4	15.0	10.5	9.7	10.1	6.5	3.1	-1.8
건축	-6.6	3.9	19.7	15.3	18.7	14.8	17.1	12.8	10.5
토목	-3.0	5.2	9.3	4.3	-0.4	4.3	-7.4	-10.7	-18.4
국내건설수주(경상)	-6.2	-40.8	-29.5	-10.6	22.4	-15.3	15.5	47.0	1.5
건축	-4.7	-34.0	-29.6	-10.8	17.9	-13.4	10.7	61.6	52.1
토목	-9.1	-50.4	-29.4	-10.0	33.4	-19.1	24.4	23.6	-54.5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단,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경우 2013년, 2014년 모두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3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4년 1/4분기 건설기성 증가율은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지연으로 전분기대비 3.2%p 감소한 6.5%를 기록함.

- 2014년 4월에도 건축 부문의 증가세로 건설기성은 3.1% 증가하였으나 5월 토목 부문 둔화세가 확대되면서 1.8% 감소하였음.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2013년 상반기에 기록한 큰 폭의 감소세로 인한 기저효과로 2014년 1/4분기 15.5%, 4월 47% 증가함.

- 2014년 4월 대형사 건설수주액 증가가 국내 건설수주 증가세를 견인하였으나 5월 토목 부문의 감소세로 국내건설수주는 1.5% 증가에 그침.

〈대외거래〉

■ 2014년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한 478억 4,000만 달러, 수입은 0.3% 증가한 425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는 53억 1,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함.

○ 수출 품목별로는 식료 및 직접소비재(-3.0%)와 경공업 제품(-6.4%), 중화학 공업품(-1.4%)은 감소하였으나, 원료 및 연료(+6.5%)는 증가하였음.

○ 수입 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입¹³⁾을 중심으로 소비재(+7.4%)는 증가하였으나 원자재(-0.6%)와 자본재(-0.5%)는 감소하였음.

〈표 24〉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4.5	0.9	-3.2	-7.2	2.7	-1.7	4.8	9.2	-3.0
	원료 및 연료	5.9	2.9	-8.5	-9.3	-10.6	-6.5	-7.4	15.2	6.5
	경공업 제품	3.9	-3.6	-1.2	-8.5	-1.0	-3.6	-2.5	2.0	-6.4
	중화학 공업품	-2.9	0.3	2.3	6.0	7.6	4.0	3.4	8.9	-1.4
	전체	-1.3	0.3	0.7	2.8	4.7	2.1	1.7	9.0	-1.0
	금액(억 달러)	5,479	1,353	1,412	1,368	1,464	5,596	1,376	503.1	478.4
수입	소비재	2.0	5.5	7.2	6.3	10.8	7.5	9.6	13.2	7.4
	원자재	0.1	-3.4	-6.9	-2.9	-1.4	-3.7	1.0	2.5	-0.6
	자본재	-4.2	-4.9	3.1	5.1	8.1	2.8	1.6	7.0	-0.5
	전체	-0.9	-2.9	-2.8	0.3	2.5	-0.8	2.1	5.0	0.3
	금액(억 달러)	5,196	1,297	1,268	1,260	1,331	5,156	1,324	458.4	425.3
무역수지(억 달러)		282.9	55.9	144.0	107.6	133.0	440.5	52.0	44.7	53.1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3) 수출과 수입은 2014년 5월까지 확정치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13) 자동차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1500cc 초과 가솔린자동차 수입증가율(%): ('14. 3월) 30.5 → (4월) 42.5 → (5.1-20일) 27.7

2500cc 이하 디젤자동차 수입증가율(%): ('14. 3월) 86.0 → (4월) 49.1 → (5.1-20일) 46.1

■ 지역별로는 2014년 5월 미국 및 EU와의 수출입이 증가함.

○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미국(+5.5%)과 EU(+32.0%)로의 수출이 증가하였는데 EU의 경우 IT 제품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미국의 경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늘어남.

- 그러나 태국 정세 불안 및 선박, 일반기계 등 자본재 수출 부진으로 중국 및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의 IT 수출 확대로 미국(+4.6%) 및 EU(+14.1%)로부터의 일반기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늘어남.

〈표 25〉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5월	증감률	1~5월	증감률	5월	증감률	1~5월	증감률
미국	60.6	5.5	277.8	6.7	37.0	4.6	193.4	10.0
일본	27.1	-0.8	136.3	-4.6	43.2	-12.1	224.2	-13.3
EU	51.9	32.0	231.4	14.9	51.6	14.1	258.1	12.5
동남아	105.9	-3.9	548.6	3.7	54.0	-12.9	294.1	0.9
중동	29.3	0.2	143.0	0.2	98.3	5.6	519.6	-1.5
중국	113.1	-9.4	581.7	0.1	75.2	3.2	363.2	5.1
중남미	22.9	-39.1	129.1	-13.4	13.1	-9.1	71.8	-5.1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물가 및 고용〉

2014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지속하였고,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가계소득 증가세는 확대되었고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기저효과와 물가 안정세로 상승하였음.

■ 2014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1.1%를 나타냈으나 4월과 5월 상품 및 서비스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5%, 1.7%를 기록함.

○ 2013년 1/4분기 상품가격 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원화 강세,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업제품 및 전기·수도·가스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1.0%를 기록하였고 4월과 5월에도 각각 1.3%, 1.7%를 기록함.

- 농축수산물 물가는 양파와 배추 가격 폭락으로 2013년 4/4분기부터 2014년 4월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반면 2014년 1/4분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1.3%를 기록하였으나 4월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로 1.6%로 상승함.

■ 2014년 1/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118.4를 기록하였고 2014년 4월에도 119.6을 기록하였으나, 5월 111.3으로 하락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소비자기대지수 ¹⁾	97.5	107.8	111.3	112.5	114.1	111.4	118.4	119.6	111.3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2.2	1.6	1.2	1.4	1.1	1.3	1.1	1.5	1.7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²⁾ 〉									
상품	3.1	1.5	0.7	1.2	0.8	1.0	1.0	1.3	1.7
농축수산물	3.1	2.2	-0.6	0.1	-4.3	-0.6	-4.7	-3.5	-2.0
공업제품	2.8	0.8	0.2	1.1	1.4	0.9	1.6	2.0	2.2
전기·수도·가스	5.0	4.8	5.7	3.5	4.2	4.5	5.4	4.2	4.2
서비스	1.4	1.6	1.7	1.5	1.3	1.5	1.3	1.6	1.6
집세	4.2	3.0	2.6	2.5	2.5	2.7	2.5	2.5	2.4
공공서비스	0.5	0.9	0.8	0.4	0.6	0.7	0.7	0.7	0.7
개인서비스	1.1	1.5	1.8	1.7	1.3	1.6	1.2	1.8	1.8

주: 1)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가 2008년 8월까지 통계청에서 작성된 후 2008년 9월부터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지수로 개편되었으나,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85.0/77.0 × 향후경기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로 산출함.

2)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계절적 요인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 따른 구직 기대감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2014년 1/4분기 취업자 증가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였으며 고용률은 소폭 하락함.

○ 2014년 1/4분기 총취업자 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8%p 상승한 3.0%를 기록하였으나 4월 2.3%, 5월 1.6%를 나타내며 하락세를 보임.

- 1/4분기 취업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설명절 특수,¹⁴⁾ 2013년 1/4분기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임.

- 청년취업자 수는 1/4분기 2.6% 증가하였으며 4월에도 2.5% 증가하는 등 2013년 4/4분기에 비해 회복된 모습을 보였으나 5월 0.6% 늘어나는데 그침.

○ 고용률은 2014년 1/4분기 58.8%를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4월 60.6%, 5월 60.8%를 나타내며 소폭 상승함.

- 2014년 1/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1.2%p 상승한 4.0%를 나타냈는데 이는 졸업, 취업 시즌 등 계절적 특성 등으로 실업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구직 증가 등으로 실업률이 상승하였기 때문임.

- 청년실업률의 경우 2014년 1/4분기 9.8%, 4월 10.0%를 기록하며 2013년 4/4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시험 접수 일정 변경¹⁵⁾에 따른 청년층 구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14) 1월은 설명절 특수,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도소매(12.6만), 농림어업(4.7만)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2월은 작년 2월 설연휴(고용동향 조사기간 중 설연휴 이틀 포함)로 취업자 증가가 부진한데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하였음(기획재정부(2014. 4. 9), “2014년 3월 고용동향”).

15) 국가직 9급 공채시험 접수(19만 4,000명 지원) 일정이 2013년 4월에서 2014년 2월로 변경되었고 1차 경찰공무원(2014년 2월 접수) 채용이 1,452명에서 2,98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자 수가 3만 4,000명에서 5만 6,000명으로 증가함.

〈표 27〉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총취업자 ¹⁾	1.8	1.1	1.3	1.7	2.2	1.6	3.0	2.3	1.6
청년취업자 ¹⁾	-0.9	-3.0	-2.3	-1.1	1.2	-1.3	2.6	2.5	0.6
고용률 ²⁾	59.4	57.7	60.2	60.3	60.0	59.5	58.8	60.6	60.8
실업률 ³⁾	3.2	3.6	3.1	3.0	2.8	3.1	4.0	3.9	3.6
청년 ⁴⁾ 실업률 ³⁾	7.5	8.4	7.9	7.9	7.9	8.0	9.8	10.0	8.7
〈산업별 취업자 ¹⁾ 〉									
농림어업	-0.9	-0.7	-1.6	1.1	-1.0	-0.5	1.0	-1.8	-3.4
광공업	0.3	3.0	3.0	0.6	1.2	1.9	2.9	2.2	3.5
제조업	0.3	3.0	3.0	0.6	1.2	1.9	3.0	2.3	3.6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2.4	0.8	1.2	2.0	2.6	1.6	3.2	2.7	1.7
건설업	1.3	-3.7	-0.4	0.2	-0.5	-1.1	1.6	-0.2	0.8
도·소매, 음식, 숙박	1.9	-0.7	-0.2	0.7	2.6	0.6	5.5	5.5	3.1
전기, 운수, 통신, 금융	3.2	3.1	1.7	2.5	3.6	2.7	1.9	2.4	1.6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4	-0.4	3.1	3.8	1.9	2.1	2.4	0.1	-0.4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4년 1/4분기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모두 취업자 수 증가율이 상승하였으나 4월과 5월 취업자 수 증가율은 하락하였음.

○ 2014년 1/4분기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하였으나 4월 1.8%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5월에도 3.4% 감소함.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¹⁶⁾는 경기개선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였으며 4월에는 소폭 둔화한 2.2%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5월에는 3.6% 늘어남.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13년 1/4분기 기저효과 등에 따른 건설업, 도·

16) 제조업 포함.

소매·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 증가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였으며 4월에도 2.7% 늘어나 회복세를 보였으나 5월에는 증가세가 둔화됨.

- 2014년 1/4분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기저효과로 1.6% 증가하였으나 4월 0.2% 감소함.
- 2014년 1/4분기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취업자 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7%p 하락한 1.9%를 보였으며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대비 2.9%p 상승한 5.5% 증가하였음.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하였으며 4월에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5월 0.4% 감소하였음.

■ 2014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고용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¹⁷⁾로 전년동기대비 5.0%를 기록하였으며 월평균 소비지출도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함.

- 2014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0만 3,000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0% 증가하였고 실질소득 증가율도 3.9%를 기록함.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65만 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90만 9,000원으로 7.3% 증가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처분가능소득 증가 및 1월 명절효과 등에 따라 265만 4,000원으로 4.4%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비지출은 3.2% 증가하여 흑자액은 7.3% 증가함.
- 평균소비성향이 74.5%로 전년동기보다 0.5%p 감소하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25.5%로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함.

17)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임금인상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 근로소득 증가율: 2013년 1/4분기 2.5% → 2014년 1/4분기 5.3%

** 협약임금 인상률: 2012년 1/4분기 5.5% → 2013년 1/4분기 4.6% → 2014년 1/4분기 2.7%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기비): 2012년 1/4분기 46.7만 명 → 2013년 1/4분기 25.7만 명 → 2014년 1/4분기 72.9만 명

〈표 28〉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지표

(단위: %, %p)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만 원)	407.7	419.3	404.1	426.0	416.3	416.2	440.3
	증감률 ¹⁾	6.1	1.7	2.5	2.9	1.7	2.1	5.0
	실질증가율 ²⁾	3.8	0.3	1.3	1.6	0.7	0.8	3.9
처분가능 소득	금액(만 원)	331.7	339.1	328.7	345.2	340.4	338.1	365.3
	증감률 ¹⁾	6.4	1.7	2.1	3.1	1.3	1.9	5.1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만 원)	245.7	254.3	240.3	249.4	248.4	248.1	265.4
	증감률 ¹⁾	2.7	-1.0	0.7	1.1	3.0	0.9	4.4
	실질증감률 ²⁾	0.5	-2.4	-0.4	-0.1	1.9	-0.4	3.2
흑자액	금액(만 원)	86.0	84.8	88.4	95.9	92.0	90.0	90.9
	증감률 ¹⁾	18.4	10.8	6.1	8.6	-3.0	4.7	7.3
평균소비성향 ³⁾		74.1	75.0	73.1	72.2	73.0	73.4	74.5
흑자율 ⁴⁾		25.9	25.0	26.9	27.8	27.0	26.6	25.5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3. 금융경제

〈금리〉

2014년 6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기로 결정함. 2014년 2/4분기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지속, 원화 강세,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4년 1/4분기 2.87%보다 5bp 하락한 2.82%를 기록함.

■ 2014년 6월 12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 경기회복세 지속, 유로 지역 경기부진 완화, 국내 산업 활동 회복세 지속을 전망하였으나,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 둔화 우려 및 세월호 사고 이후 민간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하여 금리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 2014년 2/4분기 평균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지속, 미국채금리 하락,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5bp 하락한 2.82%를 기록함.

- 4월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인상 기대 약화, 외국인 선물 순매도 증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89~2.86%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평균 2.88%를 기록함.
- 5월 국고채 금리는 원화 강세와 그에 따른 내수부진 우려, 외국인 채권 순매수 확대 등으로 월평균 2.84%를 나타내며 전월대비 소폭 하락함.
- 6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 안전자산 선호 현상 심화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며 평균 2.75%를 기록함.

■ 2014년 2/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2.65%로 2013년 4/4분기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장단기 금리차이는 전분기대비 줄어들었고, 신용 스프레드는 2013년 4/4분기 이후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4년 2/4분기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CD 금리는 평균 2.65%를 나타내며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함.

- ‘국고채(3년) - CD(91일)’ 간 스프레드는 2/4분기 평균 17bp로 전분기대비 5bp 감소함.
- 회사채 금리는 2/4분기 평균 3.25%로 전분기대비 5bp 감소하였고, 시중 자금 경색현상이 지속되며 신용스프레드는 평균 43bp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함.
- 2/4분기 우량 회사채 금리는 특수채 공급 감소에 따른 대체 수요가 더해지면서 하락폭이 확대됨.

〈표 29〉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단위: %, %p)

구분	2013 2/4	2013 3/4	2013 4/4	2014 1/4	2014 2/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기준금리	2.50	2.50	2.50	2.50	2.50	0.00	0.00
CD(91일)	2.74	2.67	2.65	2.65	2.65	0.00	- 0.09
국고채(3년)	2.66	2.92	2.90	2.87	2.82	- 0.05	0.16
회사채(3년, AA-)	3.02	3.33	3.33	3.30	3.25	- 0.05	0.23
스프레드(국고채-CD)	- 0.08	0.25	0.25	0.22	0.17	- 0.05	0.25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36	0.41	0.43	0.43	0.43	0.00	0.07

주: 금리는 분기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환율〉

2014년 2/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30.4원으로 2014년 1/4분기 1,069.0원보다 38.6원 하락함. 2/4분기에도 경상수지 흑자 지속, 수출업체 달러매도 등의 영향으로 원화 강세가 지속됨.

■ 2014년 2/4분기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수출업체 달러 매도 등의 영향으로 원화강세가 지속되어 평균 1,030.4원을 기록함.

○ 2014년 4월, 5월, 6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각각 1,044.6원, 1,025.0원, 1,019.4원임.

〈표 30〉 환율 추이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3			2014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원/달러	1,122.2	1,112.2	1,061.8	1,069.0	1,030.4	1,044.6	1,025.0	1,019.4
엔/달러	98.7	98.9	100.5	102.8	102.2	102.6	101.8	102.0
달러/유로	1,306	1,324	1,361	1,370	1,371	1,381	1,372	1,359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 2/4분기 달러화는 미연준의 저금리 기조 유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의 영향으로 엔화와 유로화에 대하여 약세를 보였으나 미국 경제지표의 지속적인 개선의 힘입어 5월과 6월 강세를 보임.

- 4월 엔/달러 환율은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양적완화 가능성과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개인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의 영향으로 3월 환율 102.3에 비하여 상승하였으며, 달러/유로 환율은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양적완화에 대한 기대로 3월 환율 1.383에 비하여 하락함.
- 5월 엔/달러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저금리 기조유지 발언의 영향으로 하락하였고, 달러/유로 환율은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추가경기 부양 발언, 미국 경제지표 개선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하락함.
 - 5월 미국 제조업지표는 56.2로 전월 수치인 55.4보다 상승하였고, 4월 기존주택판매는 연율 465만 채로 전월대비 1.3% 증가함.
- 6월 엔/달러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개선과 미국채 금리 소폭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하였고, 달러/유로 환율은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하여 약세를 보이며 하락함.
 - 미국 5월 제조업지수는 전월 54.9에서 55.4로 소폭 상승함.

〈주가지수〉

2014년 2/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이라크 내전, 미국 1/4분기 경제성장률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경제지표 호조, 경기 회복 기대감, 외국인 순매수 등의 영향을 받아 분기 말 상승세로 전환하여 분기 말 2002.21포인트를 기록함.

■ 2014년 2/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이라크 내전 등의 하방위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외국인 순매수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임.

○ 4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1991.19포인트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인 순매수,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4월 말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하향세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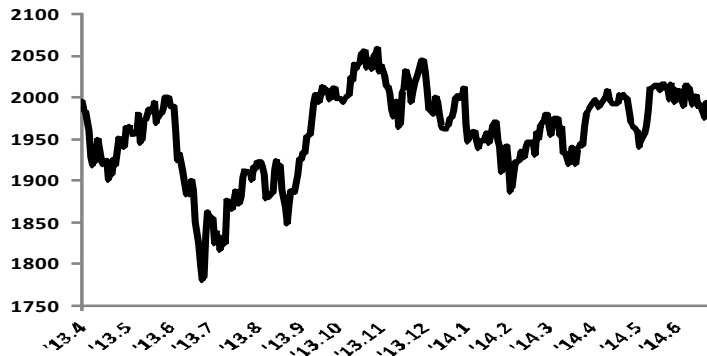
○ 5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1994.13포인트를 기록하였음.

- 2014년 1/4분기 발생하였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4월 말 다시 악화되며 5월 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불안감 고조로 주가가 하락하였으나 5월 말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과 외국인 주식 순매수로 상승세로 전환됨.

○ 6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1995.08을 기록하였는데, 월 초 이라크 전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과 미국 1/4분기 경제성장률 부진 등으로 하향세였으나 6월 말 글로벌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2002.21포인트로 상승함.

- 미국의 6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28만 8,000명으로 예상치 21만 5,000명을 상회하였고, 영국의 6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자지수)는 예상치 57.0을 상회하는 57.5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의 6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역시 전월치 50.8을 상회하는 51.0을 기록함.

〈그림 4〉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자금흐름〉

2014년 1/4분기 금융권 순수신의 경우 은행, 증권, 자산운용, 종합금융은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나 보험권은 전분기대비 18.6% 감소함.

■ 2014년 1/4분기 보험권 총순수신은 13조 3,551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18.6% 감소함.

- 1/4분기 생명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24.7% 감소한 10조 1,936억 원임.
 - 수입보험료는 전분기대비 10.4% 감소하였고, 지급보험금은 전분기대비 2.4% 증가함.
- 1/4분기 손해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2.4% 증가한 3조 1,615억 원임.
 - 원수보험료와 원수손해액이 각각 전분기대비 1.9%, 5.8% 감소함.
 - 원수손해액이 원수보험료보다 크게 하락하여 손해보험 순수신이 증가함.

■ 2014년 1/4분기 은행, 증권, 자산운용, 종합금융 등의 순수신은 모두 증가함.

- 은행 신탁계정은 전분기대비 28.1% 감소하였으나 일반계정이 전분기대비 55.2% 증가하여 전체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18.5% 증가한 27조 2,496억 원을 기록함.
-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 RP 매도, CMA 순수신 모두 증가하여 전체 순수신이 전분기대비 5조 4,417억 원 증가한 6,904억 원에 이름.

- 자산운용업의 총순수신은 전분기 4조 1,835억 원 감소에서 9조 6,918억 원 증가로 전환됨.
- 기업의 연말 재무비율 관리 등을 위해 일시 유출되었던 법인자금의 재유입으로 MMF 순수신이 증가하였고, 파생상품 펀드가 증가하여 자산운용 총순수신은 증가함.
- 종합금융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6,419억 원 증가한 8,863억 원을 나타냄.

〈표 31〉 금융권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보험 ¹⁾	139,042	174,037	201,794	195,836	139,623	138,497	164,155	133,551	-
- 생보	105,806	145,350	169,906	166,114	109,365	108,554	135,447	101,936	-
수입보험료	245,286	281,233	313,339	313,227	245,003	240,001	287,363	257,467	-
지급보험금	139,480	135,883	143,434	147,113	135,639	131,447	151,916	155,531	-
- 손보	33,236	28,687	31,889	29,722	30,258	29,943	28,708	31,615	-
원수보험료	167,964	167,265	180,624	169,569	173,584	171,156	186,613	183,082	-
원수손해액	134,729	138,578	148,736	139,847	143,326	141,213	157,905	151,466	-
은행	120,525	113,355	104,974	123,354	182,746	-31,782	229,979	272,496	258,539
- 일반 ²⁾	108,131	54,395	118,680	48,120	147,443	-40,955	128,580	199,612	201,535
- 신탁	12,394	58,960	-13,706	75,234	35,303	9,173	101,399	72,884	57,004
증권 ³⁾	-33,365	67,718	-22,900	96,983	9,232	-5,597	-47,513	6,904	19,088
자산운용 ⁴⁾	83,820	32,104	21,299	183,595	44,093	-9,264	-41,835	96,918	16,689
종금 ⁵⁾	-490	-17,161	-2,493	-21,220	-11,420	1,082	2,444	8,863	2,733

주: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2014년 1/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은 17.8% 감소하고 손해보험은 8.0%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 8.8% 감소한 44조 548억 원을 기록함.

■ 2014년 1/4분기¹⁾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 기저효과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장기손해보험 회복세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증가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²⁾ 8.8% 감소한 44조 548억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저축성보험 기저효과로 개인보험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17.8% 감소한 25조 7,467억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회복세와 퇴직연금 실적 증가로 8.0% 늘어난 18조 3,082억 원을 나타냄.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1/4
생명보험	24.5 (16.5)	28.1 (35.9)	31.3 (32.3)	31.3 (39.9)	115.3 (31.3)	24.5 (-0.1)	24.0 (-14.7)	28.7 (-8.3)	77.2 (-8.0)	25.7 (-17.8)
손해보험	16.8 (19.4)	16.7 (17.8)	18.1 (8.7)	17.0 (5.5)	68.5 (12.4)	17.4 (3.3)	17.1 (2.3)	19.3 (6.8)	53.8 (4.2)	18.3 (8.0)
합계	41.3 (17.6)	44.8 (28.5)	49.4 (22.6)	48.3 (25.5)	183.9 (23.6)	41.9 (1.3)	41.1 (-8.3)	48.0 (-2.8)	130.4 (-3.4)	44.1 (-8.8)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3)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회계연도 개편으로 FY2013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으며, 2014년 1/4분기는 2014년 1월부터 3월 까지를 말함.

2) 2014년 1/4분기의 전년 동기간은 FY2012 4/4분기인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를 의미하며, 이하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함.

나. 총자산

2014년 1/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총자산이 모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2.4% 늘어난 786조 1,329억 원을 기록함.

■ 2014년 1/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특별계정 자산 증가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자산이 모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2.4% 늘어난 786조 1,329억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특별계정 자산과 일반계정 운용자산 가운데 채권 위주의 수익증권이 늘어나 전분기대비 2.0% 증가함.
- 손해보험 총자산 규모는 보험료적립금 증가로 일반계정 자산이 늘어나고 퇴직연금 실적 호조로 특별계정 자산도 늘어나 3.7% 증가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1/4
생명보험	505.4	529.2	547.8	569.8	569.8	569.5	584.1	597.5	597.5	609.2
	(10.3)	(4.7)	(3.5)	(4.0)	(24.4)	(-0.1)	(2.6)	(2.3)	(9.1)	(2.0)
손해보험	138.5	146.0	151.8	156.5	156.5	160.3	165.1	170.6	170.6	176.9
	(6.7)	(5.4)	(4.0)	(3.1)	(20.5)	(2.5)	(3.0)	(3.3)	(12.4)	(3.7)
합계	643.9	675.2	699.6	726.3	726.3	729.8	749.2	768.0	768.0	786.1
	(9.5)	(4.8)	(3.6)	(3.8)	(23.5)	(0.5)	(2.6)	(2.5)	(9.8)	(2.4)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2)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2014년 1/4분기 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기간보다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한 2.1%를 기록함.

■ 2014년 1/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제외) 자본이익률이 모두 상승하여 전년동기인 FY2012 4/4분기에 비해 0.6%p 높아진 2.1%를 나타냄.

○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의 경우 총자본이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 0.5%p 상승한 1.9%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일부 대형사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힘입어 0.7%p 상승한 2.6%를 기록함.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1),2)}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1/4	2/4	3/4	4/4	연간 ³⁾	1/3	2/3	3/3	연간 ^{3),4)}	1/4
생명보험	1.9	1.9	1.4	1.4	6.6	1.6	1.8	0.7	4.1	1.9
손해보험	4.1	3.4	1.8	1.9	11.6	2.9	2.4	1.5	7.0	2.6
합계	2.4	2.3	1.5	1.5	7.8	2.0	2.0	0.9	4.8	2.1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농협생명·화재보험의 진입으로 FY2012 1/4분기부터 각각 24개, 18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FY2013 3/3분기 생명보험회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진입으로 25개 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3)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개요〉

■ 2014년 1/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인 FY2012 4/4분기에 비해 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13.2% 증가하였으나 개인보험 수입보험료가 19.2%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7.8% 감소한 25조 7,467억 원을 기록함(〈표 4〉와 〈표 5〉 참조).

○ 개인보험의 경우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그 증가폭이 감소하였고,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4/4분기까지 급증한 이후 기저효과의 지속으로 대폭 감소하여 전체 수입보험료는 19.2% 감소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3.2% 증가함.

■ 2014 1/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특별계정 자산과 일반계정 운용자산 중 채권위주의 수익증권 증가로 2.0% 증가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1/4
수입보험료 ²⁾	24.5	28.1	31.3	31.3	115.3	24.5	24.0	28.7	77.2	25.7
	(16.5)	(35.9)	(32.3)	(39.9)	(31.3)	(-0.1)	(-14.7)	(-8.3)	(-8.0)	(-17.8)
총자산	505.4	529.2	547.8	569.8	569.8	569.5	584.1	597.5	597.5	609.2
	(10.3)	(4.7)	(3.5)	(4.0)	(24.4)	(-0.1)	(2.6)	(2.3)	(9.1)	(2.0)

주: 1) () 안은 수입보험료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하였고,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2014년 1/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도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9.2% 감소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3년 2월 세제개편안 시행 전의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지속으로 40.6% 감소하였음.
 - 생존보험 가운데 비중이 큰 연금보험 수입보험료가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46.4% 감소함.
 - 개인연금 수입보험료는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2% 성장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과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6% 늘어났으나 증가세가 둔화됨.
 - 종신보험 수입보험료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3.5%로 둔화되었으나 질병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5.5%로 3분기 연속 증가함.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2013년 2월 세제개편에 따른 기저효과 지속으로 25.5% 감소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의 부진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함.
 - 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7.3% 감소하였는데, 이는 8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며 초회보험료는 40.0% 감소함.
 - 변액유니버설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됨.
 - 변액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함으로써 3분기 연속 증가하였으나 변액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에 불과함.

■ 2014년 1/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일반단체 보험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13.2% 증가함.

- 이는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를 상향(→60%)에 따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15.9% 증가한데 기인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²⁾		FY2012					FY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생존	보험료	58,357	89,359	91,316	97,580	336,612	53,144	53,996	55,496	162,636	58,006
	증가율	42.6	107.5	108.6	88.9	87.6	-8.9	-39.6	-39.2	-32.0	-40.6
	구성비	23.8	31.8	29.1	31.2	29.2	21.7	22.5	19.3	21.1	22.5
사망	보험료	76,376	76,309	77,232	78,494	308,411	78,913	79,458	80,289	238,660	81,286
	증가율	6.8	6.5	7.6	8.8	7.4	3.3	4.1	4.0	3.8	3.6
	구성비	31.1	27.1	24.6	25.1	26.7	32.2	33.1	27.9	30.9	31.6
생사 혼합	보험료	46,073	54,615	52,905	68,084	221,677	47,606	46,222	45,910	139,738	50,697
	증가율	68.5	91.7	79.9	83.3	81.1	3.3	-15.4	-13.2	-9.0	-25.5
	구성비	18.8	19.4	16.9	21.7	19.2	19.4	19.3	16.0	18.1	19.7
변액 보험	보험료	52,354	51,775	52,803	55,297	212,230	52,577	51,368	51,498	155,443	51,884
	증가율	-1.2	-5.4	1.3	4.1	-0.3	0.4	-0.8	-2.5	-0.9	-6.2
	구성비	21.3	18.4	16.9	17.7	18.4	21.5	21.4	17.9	20.1	20.2
개인계	보험료	233,160	272,058	274,256	299,455	1,078,929	232,239	231,044	233,194	696,477	241,873
	증가율	20.9	37.5	39.1	39.9	34.6	-0.4	-15.1	-15.0	-10.6	-19.2
	구성비	95.1	96.7	87.5	95.6	93.6	94.8	96.3	81.1	90.2	93.9
단체	보험료	12,126	9,175	39,083	13,772	74,156	12,765	8,957	54,169	75,891	15,594
	증가율	-32.0	1.5	-1.8	40.1	-3.1	5.3	-2.4	38.6	25.7	13.2
	구성비	4.9	3.3	12.5	4.4	6.4	5.2	3.7	18.9	9.8	6.1
합계	보험료	245,286	281,233	313,339	313,227	1,153,086	245,003	240,001	287,363	772,367	257,467
	증가율	16.5	35.9	32.3	39.9	31.3	-0.1	-14.7	-8.3	-8.0	-17.8

주: 1) 단체보험에는 특별계정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함.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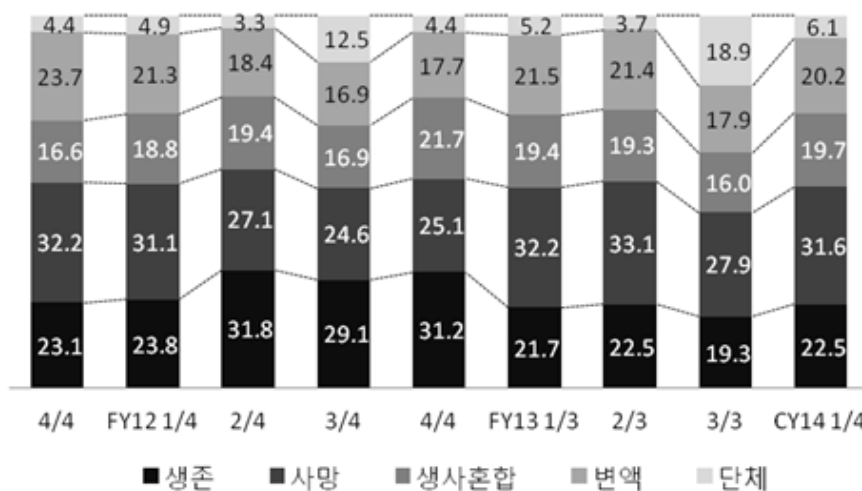
■ 2014년 1/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단체보험과 사망보험의 경우 상승하고, 수입보험료가 크게 줄어든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하락하였으며, 변액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소폭 높아짐.

○ 사망보험비중은 전년동기대비 6.5%p 상승한 31.6%로 생명보험 종목 중 가장 비중이 컸고 단체보험 비중은 1.7%p, 변액보험 비중은 2.5%p 높아져 각각 6.1%, 20.2%를 나타냄.

○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비중은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8.7%p, 2.0%p 줄어든 22.5%, 19.7%를 기록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4년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의 경우 상위 3사의 점유율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반면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이 상승함.

○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3.1%p 하락한 47.5%를 기록함.

○ 외국사의 점유율은 대다수 외국사의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9%p 상승한 17.7%로 나타남.

○ 국내중소형사의 경우 점유율이 상승한 보험회사와 하락한 보험회사가 혼재하면서 전체 점유율은 0.2%p 소폭 상승한 34.8%를 기록함.

■ 2014년 1/4분기 허핀달 지수는 일부 대형사와 규모가 큰 중소형사의 점유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0202 하락한 0.1070으로 나타남.

〈표 6〉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¹⁾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⁵⁾	1/4
상위 3개사	45.8	50.9	53.0	50.6	50.3	46.8	48.1	53.2	49.6	47.5
국내중소형사 ²⁾	37.2	33.2	33.2	34.6	33.9	36.7	34.6	31.3	33.5	34.8
외국사 ³⁾	17.0	15.9	13.8	14.8	15.8	16.4	17.3	15.6	16.9	17.7
허핀달 지수 ⁴⁾	0.1031	0.1176	0.1308	0.1272	0.1199	0.1062	0.1072	0.1284	0.1140	0.1070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국내중소형사(13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정의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으로 2014년 3월 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국내 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5)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2014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지급률이 모두 상승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3.4%p 상승한 60.4%를 기록함.

- 개인보험 중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큰 폭의 수입보험료 감소로 각각 23.7%p, 24.2%p 상승한 53.1%, 64.8%로 나타남.
- 사망보험은 수입보험료가 소폭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률이 전년동기대비 2.7%p 감소한 55.8%를 나타냈으며, 변액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소폭 감소로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55.5%로 나타남.
- 단체보험의 경우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상승하여 전체 단체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8%p 상승한 113.7%를 기록하였음.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14.1%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FY2013 1/3분기보다 0.1%p 상승한 2.6%를 기록함.³⁾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보험금 지급률 ¹⁾										
개인	56.9	48.3	45.8	47.0	49.1	55.4	54.8	52.9	54.2	60.4
생존	53.9	45.6	45.7	44.3	47.1	52.9	53.0	57.8	54.6	57.0
사망	44.1	30.1	31.8	29.4	32.8	49.1	49.0	53.8	50.7	53.1
생사혼합	55.0	56.9	54.8	58.5	56.3	54.3	53.9	55.1	54.4	55.8
변액	65.3	44.0	43.8	40.6	47.3	58.1	54.5	60.4	57.6	64.8
단체	53.1	57.5	58.5	54.8	56.0	49.8	54.6	64.1	56.1	55.5
단체	113.9	127.7	46.2	105.7	78.4	100.7	100.1	31.7	51.3	113.7
사업비율 ²⁾	15.4	14.0	13.1	13.7	14.0	15.0	15.5	14.0	14.8	14.1
해지율 ³⁾	2.8	5.4	7.8	10.0	10.0	2.5	5.0	7.2	7.2	2.6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3)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해지율은 누계치이므로 이전 회계연도(FY2013) 1/3분기와 비교함.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2014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의 경우 전년동기에 비해 보험영업이익은 감소한 반면 투자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하고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29.7% 증가한 9,409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은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급감으로 전년동기대비 57.8% 감소하였고 준비금전입액도 39.6% 감소한 반면 투자영업이익은 3.4% 증가함.

〈표 8〉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1/4
총수익	보험영업	18,563	22,505	22,621	24,951	88,640	18,476	18,446	18,694	55,616	19,541
	투자영업	5,656	5,600	6,129	5,266	22,651	6,540	5,753	6,180	18,473	6,120
	영업외	984	1,000	1,018	1,037	4,039	1,011	1,012	1,079	3,102	1,031
	소 계	25,204	29,105	29,768	31,254	115,330	26,027	25,211	25,953	77,190	26,693
총비용	보험영업	14,023	13,958	14,107	15,057	57,144	14,028	13,883	14,893	42,804	15,370
	투자영업	1,049	699	1,420	217	3,385	1,494	728	1,175	3,397	900
	영업외	165	168	181	161	674	205	190	301	695	204
	소 계	15,236	14,825	15,708	15,435	61,203	15,726	14,801	16,369	46,896	16,474
수지차	보험영업	4,540 (27.0)	8,547 (175.3)	8,514 (166.0)	9,895 (130.6)	31,496 (122.2)	4,448 (-2.0)	4,563 (-46.6)	3,801 (-55.4)	12,812 (-40.7)	4,171 (-57.8)
	투자영업	4,608 (9.6)	4,901 (28.2)	4,709 (13.6)	5,049 (11.1)	19,266 (15.2)	5,046 (9.5)	5,024 (2.5)	5,005 (6.3)	15,076 (6.0)	5,220 (3.4)
	영업외	820	832	837	876	3,365	807	822	778	2,407	828
	소 계	9,968	14,280	14,060	15,819	54,127	10,301	10,410	9,584	30,294	10,218
	책임준비금전입	8,909	13,103	13,146	15,057	50,216	9,142	9,207	9,112	27,461	9,096
법인세		215	252	208	36	711	309	296	135	740	182
당기순이익		844 (-22.6)	925 (78.3)	706 (-3.6)	726 (-29.5)	3,200 (-5.1)	850 (0.7)	906 (-2.0)	337 (-52.2)	2,093 (-15.4)	941 (29.7)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함.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부채 및 자본〉

■ 2014년 1/4분기 총부채는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 부채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하였으며, 총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로 6.9% 감소함.

○ 총부채 항목 중 책임준비금은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하였고, 총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매도가능채권 평가이익이 축소되면서 28.9% 감소함.

〈표 9〉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¹⁾		FY2012				FY2013			2014
		1/4	2/4	3/4	4/4	1/3	2/3	3/3	1/4
책임준비금	금액	352	366	379	394	403	412	421	431
	증가율	23.1	24.6	26.1	27.6	14.3	12.8	11.3	9.3
계약자지분조정	금액	7	9	9	9	7	7	7	7
	증가율	19.2	54.1	34.1	29.6	0.4	-15.8	-21.0	-25.6
기타부채	금액	14	14	14	15	14	13	13	13
	증가율	23.9	13.5	12.7	18.5	-0.4	-6.3	-9.6	-11.7
특별계정부채	금액	86	90	94	97	96	100	106	107
	증가율	4.0	13.5	14.4	12.0	11.7	11.5	12.6	11.0
부채총계	금액	460	478	496	515	520	533	547	558
	증가율	19.0	22.5	23.4	24.1	13.2	11.5	10.3	8.4
자본금	금액	9	9	9	9	9	10	10	10
	증가율	5.7	6.0	7.6	7.6	1.9	3.5	2.8	2.8
자본잉여금	금액	5	5	6	6	6	6	6	6
	증가율	76.6	77.6	89.9	89.5	9.8	9.2	2.4	1.8
이익잉여금	금액	19	20	21	21	22	22	23	23
	증가율	15.3	16.9	15.3	12.7	13.1	12.2	10.4	8.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13	17	17	19	14	14	13	14
	증가율	23.8	67.6	46.5	48.7	5.2	-16.5	-22.5	-28.9
자본총계	금액	46	51	52	55	49	51	50	51
	증가율	18.3	31.0	27.2	27.1	7.7	0.2	-3.1	-6.9
부채및자본총계	금액	505	529	548	570	570	584	597	609
	증가율	18.9	23.2	23.8	24.4	12.7	10.4	9.1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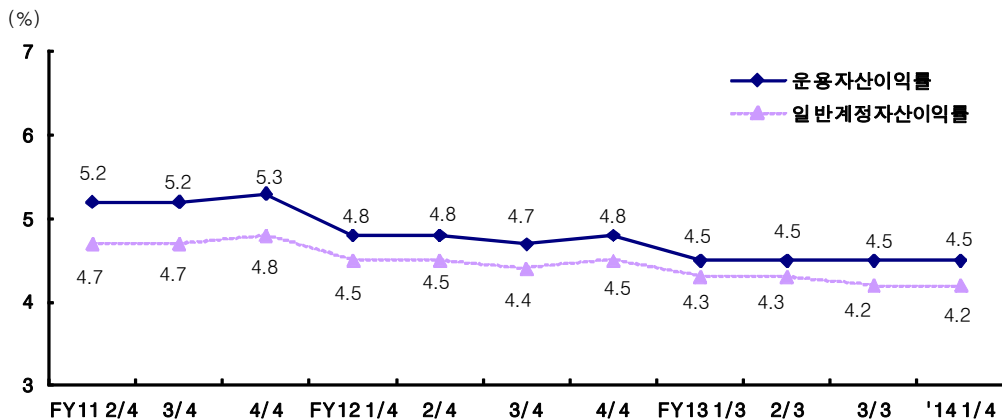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 운용〉

■ 2014년 1/4분기 운용자산이익률과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0.3%p 하락한 4.5%와 4.2%로 나타남.

○ 운용자산 중 가장 비중이 큰 매도가능증권 중 채권 등의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4.2%로 나타남.

■ 일반계정 중 투자자산 비중은 유가증권 70.9%, 대출채권 17.8%, 부동산 3.0%, 현금과 예금 2.7%임.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1),2),3)} 추이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10〉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1/3		2/3		3/3		1/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4.5	100.0	4.3	100.0	4.3	100.0	4.2	100.0	4.2
운용자산 계	94.1	4.8	93.9	4.5	94.3	4.5	94.3	4.5	94.4	4.5
현금과 예금	3.6	3.5	3.1	3.3	2.8	2.8	2.7	2.8	2.7	3.1
유가증권	70.5	4.3	70.2	4.2	70.8	4.1	70.7	4.1	70.9	4.2
○당기손익인식증권 ³⁾	3.2	4.5	2.8	-0.3	3.3	1.5	2.2	2.2	2.6	3.0
- 주식	0.1	1.4	0.1	-21.6	0.1	-3.6	0.1	0.0	0.1	-0.8
- 채권 등	0.7	7.4	0.6	0.0	0.7	2.1	0.7	2.9	0.7	4.3
- 수익증권	2.4	3.5	2.0	0.6	2.5	1.6	1.5	2.1	1.8	2.6
○매도가능증권	51.5	4.1	50.5	4.2	49.7	4.1	49.7	4.1	48.9	4.3
- 주식	5.0	0.3	4.6	0.9	4.5	1.6	4.4	1.2	4.3	4.4
- 채권 등	43.5	4.6	43.0	4.5	42.4	4.4	42.3	4.4	41.5	4.2
- 수익증권	3.0	3.5	2.9	4.3	2.9	4.0	3.1	3.8	3.2	5.0
○만기보유증권	14.2	5.3	15.3	4.7	16.2	4.6	17.2	4.6	17.8	4.4
- 채권 등	14.2	5.3	15.3	4.7	16.2	4.6	17.2	4.6	17.8	4.4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1.5	2.4	1.7	7.0	1.6	4.9	1.5	4.1	1.6	2.4
대출채권	17.0	6.9	17.6	6.4	17.7	6.4	17.9	6.4	17.8	5.9
부동산	3.0	3.8	3.1	3.6	3.0	3.7	3.0	3.4	3.0	3.2
비운용자산	5.9	0.1	6.1	0.2	5.7	0.3	5.7	0.3	5.6	-0.1
총자산	100.0	4.3	100.0	2.3	100.0	3.7	100.0	3.9	100.0	3.5
일반계정	83.2	4.5	83.5	4.3	83.0	4.3	82.9	4.2	82.6	4.2
특별계정	16.8	3.4	16.5	-7.3	17.0	1.1	17.1	2.1	17.4	0.3
총자산 규모	5,698,366		5,695,133		5,840,714		5,974,801		6,092,048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 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본이익률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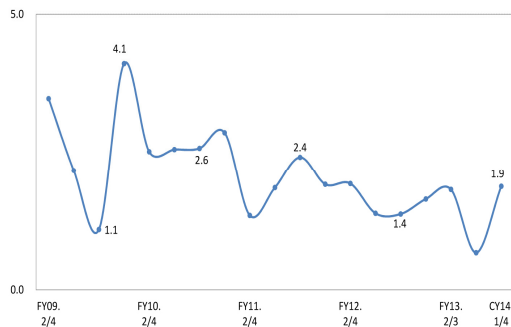
■ 2014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증가와 총자본 감소로 전년동기인 FY2012 4/4분기 대비 0.5%p 상승한 1.9%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9.7% 증가하고 총자본(자본총계)은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하면서 자본이익률이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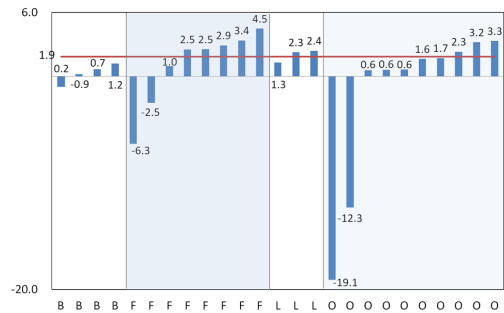
○ 2개의 외국사와 2개의 중소형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음(-)의 자본이익률을 나타냄.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4〉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4년 1/4분기 방카사를 제외한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자본이익률이 상승함.

○ 대형사와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증가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0.6%p, 1.2%p 상승한 2.1%, 2.1%를 기록함.

4)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E_t^o)을 의미하며, 분석 대상은 FY2012 1/4분기 농협생명보험, FY2013 3/3분기 교보라이프플래닛이 포함되어 25개 회사임.

- 주요 외국사의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국사의 자본이익률 상승폭이 확대됨.
- 중소형사의 자본이익률은 음(-)의 자본이익률을 나타낸 2개의 중소형사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미미하여 1.2%를 기록하였으며, 방카사의 경우 당기순이익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5%p 하락한 0.3%를 나타냄.

〈표 11〉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¹⁾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1/4	2/4	3/4	4/4	연간 ²⁾	1/3	2/3	3/3	연간 ^{2),4)}	1/4
대형사	1.7	1.9	1.2	1.5	6.4	1.5	1.8	0.6	3.8	2.1
중소형사	2.9	2.2	1.4	1.1	7.1	1.4	1.0	0.7	3.0	1.2
외국사	2.0	2.1	2.1	0.9	7.3	2.4	3.0	1.0	6.6	2.1
방카사 ³⁾	-0.2	-1.8	1.2	1.8	1.4	0.6	1.5	0.1	2.0	0.3
전체	1.9	1.9	1.4	1.4	6.6	1.6	1.8	0.7	4.1	1.9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방카사는 은행지주 계열사 중 KB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4개사를 대상으로 함.

4) FY2013 연간수치는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2014년 1/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방카슈랑스채널 판매비중이 높은 저축성 보험의 초회보험료가 전년동기인 FY2012 4/4분기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방카슈랑스채널 비중도 크게 하락한 반면, 단체보험 판매가 증가하면서 임직원 판매채널 비중은 상승함.

- 2014년 1/4분기 방카슈랑스 비중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0.3%p 하락한 60.5%를 기록함.
- 설계사 판매비중의 경우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9%p 하락한 18.0%를 기록하였으며, 대리점의 경우는 전년동기와 비슷한 5.7%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임직원 판매비중은 퇴직연금 초회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1.9%p 상승한 15.5%를 나타냄.

〈표 12〉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FY2012					FY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²⁾	1/4
임직원	5.3	2.6	6.9	3.6	4.5	12.1	9.6	27.8	17.3	15.5
설계사	19.3	19.6	23.9	19.9	21.0	20.3	22.2	18.9	20.3	18.0
대리점	5.4	5.3	8.3	5.6	6.3	5.7	7.2	7.2	6.7	5.7
중개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69.9	72.5	60.8	70.8	68.1	61.7	60.8	45.8	55.4	60.5
기타	0.1	0.0	0.1	0.0	0.0	0.2	0.2	0.3	0.3	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5,622	82,265	82,087	225,028	307,114	33,279	29,262	38,030	100,570	39,751

주: 1)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2)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2014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 모집조직의 경우 임직원과 대리점은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고, 설계사가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73명 증가한 30,453명으로 나타났으며, 상위3사와 중소형사의 임직원 수는 증가하였으나 외국사의 임직원 수는 감소함.

○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3,914명 감소하였으며, 전속설계사와 교차설계사가 각각 3,830명, 84명 감소하여 139,161명임.

- 상위3사, 중소형사, 외국사 모두 설계사 수가 감소함.

○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은 감소하고 법인대리점이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27개가 증가한 7,062개임.

〈표 13〉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2				FY2013			2014
	1/4	2/4	3/4	4/4	1/3	2/3	3/3	1/4
임직원	29,065	29,586	29,717	30,436	30,578	30,744	30,380	30,453
설계사	156,149	157,738	156,152	154,830	151,805	149,083	143,075	139,161
- 전속	144,736	147,004	145,933	145,113	142,391	140,943	135,729	131,899
- 교차	11,413	10,734	10,219	9,717	9,414	8,140	7,346	7,262
대리점	8,981	8,865	8,455	7,693	7,484	7,335	7,035	7,062
- 개인	5,624	5,514	5,157	4,451	4,141	4,023	3,855	3,820
- 법인	3,357	3,351	3,298	3,242	3,343	3,312	3,180	3,242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개요〉

■ 2014년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회복세로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한 18조 3,082억 원을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의 양호한 증가세와 장기 저축성 보험의 플러스 성장 전환으로 7.5% 늘어난 11조 858억 원을 기록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 29.5% 증가한 1조 9,558억 원을 시현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대물과 자차 담보 중심의 회복세와 전년 동기간 저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3.2% 증가한 3조 2,377억 원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 및 보증보험 감소세와 특종보험 저성장으로 1.5% 증가에 그친 2조 289억 원을 나타냄.

■ 2014년 1/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큰 폭의 특별계정 자산 증가로 전분기대비 3.7% 증가한 176조 9,154억 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 자산은 보험료적립금 증가로 전분기대비 3.2% 늘어났으며, 특별계정 자산은 퇴직연금 판매 증가로 전분기대비 14.7% 늘어남.

〈표 1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원수보험료	18.1 (8.7)	17.0 (5.5)	68.5 (12.4)	17.4 (3.3)	17.1 (2.3)	19.3 (6.8)	53.8 (4.2)	18.3 (8.0)
장기손보	10.0 (14.9)	10.3 (6.8)	40.2 (17.7)	10.3 (4.9)	10.6 (5.4)	10.6 (6.4)	31.5 (5.6)	11.1 (7.5)
연금부문 ²⁾	2.8 (0.3)	1.5 (7.0)	7.4 (11.1)	1.7 (3.1)	1.3 (-10.8)	3.3 (17.2)	6.3 (6.3)	2.0 (29.5)
자동차	3.2 (-1.6)	3.1 (-3.5)	12.8 (-1.5)	3.2 (-0.9)	3.2 (0.1)	3.3 (2.0)	9.7 (0.4)	3.2 (3.2)
일반손해	2.0 (11.0)	2.0 (13.5)	8.1 (13.9)	2.1 (2.6)	2.0 (0.1)	2.1 (1.6)	6.2 (1.5)	2.0 (1.5)
총자산 ³⁾	151.8 (4.0)	156.5 (3.1)	156.5 (20.5)	160.3 (2.5)	165.1 (3.0)	170.6 (3.3)	170.6 (12.4)	176.9 (3.7)
일반계정	146.0 (4.0)	150.2 (2.9)	150.2 (20.2)	154.3 (2.7)	158.9 (3.0)	164.0 (3.2)	164.0 (12.3)	169.3 (3.2)
특별계정	5.8 (3.4)	6.3 (8.6)	6.3 (27.8)	6.0 (-3.7)	6.2 (2.0)	6.6 (7.3)	6.6 (14.4)	7.6 (14.7)

주: 1) () 안의 경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고,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하였으며,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손해보험

■ 2014년 1/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호조세가 계속되고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한 11조 858억 원을 기록함.

-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제도 변경⁵⁾ 이전 급증한 신규계약의 계속보험료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각각 9.8%, 21.2% 늘어난 2조 8,306억 원, 2조 2,382억 원을 나타냄.
-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2012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⁶⁾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초회보험료 회복세가 나타나 3.3% 증가한 3조 2,267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증가세로 전환됨.
- 장기 재물보험과 장기 통합형보험 원수보험료는 신규수요 확대 요인 부재로 낮은 증가율을 지속함.

■ 2014년 1/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장기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감소세를 나타냄에 따라 전체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한 7,592억 원을 기록함.

- FY2012 4/4분기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2014년 1/4분기에 나타나 각각 34.2%, 4.6% 감소한 600억 원, 620억 원을 기록함.
- 장기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장기간 고성장과 2012년 세제개편안의 기저효과로 5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2014년 1/4분기에는 이러한 기저효과가 사라진 데다 타 금융권 대비 금리경쟁력으로 8.9% 증가한 5,946억 원을 기록함.
- 장기 재물보험과 장기 통합형보험 초회보험료는 각각 13.0%, 62.6%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지속됨.

5) 2013년 1월 1일부터 단독상품 출시, 갱신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시행되었으며, 제도변경 이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규수요가 급증하였음.

6) 2012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동 개편안 발표 이후 제도 변경 이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였음.

〈표 15〉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¹⁾			FY2012			FY2013				201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²⁾	1/4
원 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4,678	25,782	97,301	26,497	26,923	27,604	81,024	28,306
		증가율	16.7	17.8	16.5	15.1	13.1	11.9	13.3	9.8
	운전자	보험료	6,151	6,128	24,555	6,156	6,233	6,305	18,694	6,386
		증가율	8.3	8.6	7.8	0.2	1.7	2.5	1.4	4.2
	재 물	보험료	9,456	9,266	37,429	9,451	9,417	9,330	28,198	9,258
		증가율	25.5	19.6	29.1	1.5	0.3	-1.3	0.1	-0.1
	질 병	보험료	17,665	18,468	69,485	19,390	20,482	21,418	61,290	22,382
		증가율	12.4	15.2	11.2	18.0	21.0	21.2	20.1	21.2
	저축성	보험료	29,689	31,247	124,559	29,351	30,682	29,267	89,300	32,267
		증가율	17.7	-6.4	27.8	-6.6	-4.7	-1.4	-4.3	3.3
초 회 보험료	통합형	보험료	12,047	12,151	48,196	12,337	12,265	12,219	36,821	12,216
		증가율	5.7	3.4	6.1	3.4	1.6	1.4	2.2	0.5
	자산 연계형	보험료	96	73	371	56	51	45	151	42
		증가율	-44.9	-46.1	-49.3	-45.7	-48.5	-53.3	-49.1	-42.5
	소 계	보험료	99,782	103,114	401,896	103,238	106,053	106,187	315,478	110,858
		증가율	14.9	6.8	17.7	4.9	5.4	6.4	5.6	7.5
	상 해	보험료	682	912	2,735	447	482	574	1,503	600
		증가율	39.3	51.3	38.4	-20.5	-16.8	-15.9	-17.6	-34.2
	운전자	보험료	104	105	419	115	138	124	378	115
		증가율	45.3	36.7	50.1	14.7	25.8	19.3	20.1	10.1
계 속 보험료	재 물	보험료	285	259	1,249	353	250	232	836	225
		증가율	-31.5	-25.0	-20.2	-11.6	-18.2	-18.4	-15.6	-13.0
	질 병	보험료	498	650	1,828	480	587	584	1,651	620
		증가율	82.4	96.4	58.9	58.6	55.7	17.3	40.2	-4.6
	저축성	보험료	5,595	5,461	30,539	3,919	4,034	3,036	10,989	5,946
		증가율	-22.5	-60.2	7.2	-61.9	-56.1	-45.7	-56.2	8.9
	통합형	보험료	130	230	653	67	75	75	217	86
		증가율	-11.2	15.9	8.3	-56.3	-46.8	-42.0	-48.8	-62.6
	자산 연계형	보험료	0	0	0	0	0	0	0	0
		증가율	-	-	-	-	-	-	-	-100.0
계 속 보험료	소 계	보험료	7,294	7,616	37,423	5,379	5,568	4,626	15,574	7,592
		증가율	-15.3	-50.1	9.9	-54.5	-48.0	-36.6	-47.8	-0.3
	상 해	보험료	23,995	24,870	94,566	26,050	26,441	27,030	79,521	27,707
		증가율	16.1	16.8	15.9	16.0	13.8	12.6	14.1	11.4
	운전자	보험료	6,047	6,023	24,136	6,040	6,094	6,181	18,315	6,271
		증가율	7.9	8.2	7.3	-0.1	1.2	2.2	1.1	4.1
	재 물	보험료	9,171	9,007	36,180	9,098	9,167	9,098	27,362	9,033
		증가율	28.8	21.7	31.9	2.0	0.9	-0.8	0.7	0.3
	질 병	보험료	17,167	17,817	67,658	18,910	19,895	20,834	59,639	21,762
		증가율	11.2	13.5	10.3	17.3	20.2	21.4	19.7	22.1
계 속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	24,094	25,787	94,020	25,433	26,647	26,231	78,311	26,321
		증가율	33.8	31.2	36.3	20.3	15.9	8.9	14.8	2.1
	통합형	보험료	11,917	11,921	47,543	12,271	12,190	12,143	36,604	12,130
		증가율	5.9	3.2	6.1	4.2	2.2	1.9	2.8	1.8
	자산 연계형	보험료	96	73	371	56	51	45	151	42
		증가율	-45.5	-46.1	-49.5	-45.7	-48.5	-53.3	-49.1	-42.5
	소 계	보험료	92,488	95,498	364,472	97,858	100,484	101,562	299,904	103,266
		증가율	18.2	17.5	18.6	13.0	11.8	9.8	11.5	8.1

주: 1)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함.

2)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4년 1/4분기 장기손해보험 누적 해지율은 장기 상해보험 해지율 상승과 장기 질병보험과 장기 저축성보험 해지율 하락으로 FY2013 1/3분기⁷⁾와 같은 3.1%를 기록함.

- 장기 상해보험 해지율의 경우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증가하여 FY2013 1/3분기보다 0.4%p 상승한 3.3%를 나타냄.
- 장기 질병보험 해지율의 경우 보유계약액 증가율이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 증가율보다 더 크게 나타나 0.1%p 하락한 2.6%를 기록함.
- 장기 저축성보험 해지율은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 감소로 0.1%p 하락한 3.0%를 나타냄.

〈표 16〉 장기손해보험 해지율^{1),2)}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3/4	4/4	1/3	2/3	3/3	1/4
상 해	8.8	11.9	2.9	6.4	9.2	3.3
운전자	9.0	12.2	3.2	6.2	8.8	3.2
재 물	12.7	15.5	5.0	8.6	11.6	4.1
질 병	9.1	12.7	2.7	5.2	7.5	2.6
저축성	9.6	12.8	3.1	6.1	8.9	3.0
통합형	7.7	10.2	2.4	4.8	7.0	2.4
계	9.4	12.5	3.1	6.2	8.9	3.1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2014년 1/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감소하였으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29.5% 늘어난 1조 9,558억 원을 나타냄.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효과⁸⁾ 약화와 수수료 인하⁹⁾ 등으로 2.6% 감소한 1조 34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7) 해지율은 누계치이므로 이전 회계연도(FY2013) 1/3분기와 비교함.

8)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011년 1월부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한 연금저축 신규가입이 증가하였음.

9) 금감원(2013. 1. 10),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 계획 안내」 참조.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상승¹⁰⁾과 일부 회사들의 관계사 신규계약 체결 등으로 106.1% 증가한 9,209억 원을 기록함.

〈표 17〉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1),2)}		FY2012			FY2013				201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1/4
개인 연금	보험료	10,707	10,628	41,489	10,622	10,573	10,633	31,829	10,349
	증가율	17.1	13.8	21.1	7.8	2.7	-0.7	3.1	-2.6
	구성비	38.0	70.4	55.8	62.9	80.7	32.2	50.5	52.9
퇴직 보험	보험료	2	0	9	3	0	7	10	0
	증가율	-97.7	-100.0	-99.0	229.6	-100.0	233.6	18.8	-
	구성비	0.0	0.0	0.0	0.0	0.0	0.0	0.0	0.0
퇴직 연금	보험료	17,465	4,469	32,840	6,251	2,527	22,374	31,152	9,209
	증가율	-7.4	-1.7	3.3	-4.1	-42.4	28.1	9.8	106.1
	구성비	62.0	29.6	44.2	37.0	19.3	67.8	49.5	47.1
합계	보험료	28,174	15,097	74,337	16,877	13,100	33,014	62,991	19,558
	증가율	0.3	7.0	11.1	3.1	-10.8	17.2	6.3	29.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함.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2014년 1/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3조 2,377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종합보험이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전년 동기간 역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도 나타났기 때문임.

1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6호」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기준책임준비금대비 최소적립비율이 2012. 7. 26~2013. 12. 31까지 60%, 2014. 1. 1~2015. 12. 31까지 70%, 2016. 1. 1~2017. 12. 31까지 80%로 조정되며, 2015. 7. 25까지 3년간 검토 후 폐지 또는 개정함.

-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판매 증가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¹¹⁾ 등 보험료 할인 요인이 증가하여 2.1% 감소한 7,606억 원을 기록함.

〈표 18〉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대인 I		8,048	7,765	31,915	7,992	7,849	7,918	23,759	7,606
		(-3.2)	(-3.3)	(-4.5)	(-1.5)	(-1.8)	(-1.6)	(-1.6)	(-2.1)
종합 보험	대인 II	3,310	3,200	13,072	3,295	3,271	3,393	9,960	3,270
		(-1.5)	(-3.4)	(-1.9)	(0.2)	(-0.1)	(2.5)	(0.9)	(2.2)
	대물	10,450	10,335	41,325	10,923	10,956	11,348	33,227	11,011
		(6.0)	(3.7)	(7.8)	(6.3)	(6.8)	(8.6)	(7.2)	(6.5)
	자차	7,620	7,311	30,652	7,144	7,168	7,211	21,523	7,505
		(-9.9)	(-13.5)	(-10.5)	(-10.4)	(-7.5)	(-5.4)	(-7.8)	(2.7)
	자손	1,170	1,120	4,561	1,167	1,191	1,277	3,635	1,220
(0.5)		(0.3)	(-0.2)	(3.5)	(4.2)	(9.2)	(5.6)	(8.9)	
무보험	250	227	982	231	233	232	695	220	
	(-5.7)	(-12.0)	(-8.6)	(-9.2)	(-6.8)	(-7.3)	(-7.8)	(-3.3)	
소계	22,801	22,193	90,593	22,760	22,820	23,461	69,041	23,225	
	(-1.3)	(-4.0)	(-1.0)	(-0.7)	(0.6)	(2.9)	(0.9)	(4.7)	
외화표시		33	25	111	34	23	34	91	20
		(-14.2)	(-2.9)	(-8.9)	(11.9)	(2.7)	(1.1)	(5.3)	(-17.2)
이륜자동차 ²⁾		161	152	792	250	212	173	635	167
		(8.0)	(0.7)	(24.2)	(-6.7)	(0.7)	(7.2)	(-0.8)	(9.8)
기타 ³⁾		1,225	1,241	5,006	1,303	1,285	1,321	3,909	1,358
		(1.8)	(4.2)	(6.9)	(1.5)	(2.3)	(7.9)	(3.8)	(9.4)
합계		32,268	31,376	128,416	32,338	32,190	32,907	97,435	32,377
		(-1.6)	(-3.5)	(-1.5)	(-0.9)	(0.1)	(2.0)	(0.4)	(3.2)

주: 1)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함.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1) 보험 가입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기본 보험료가 할인되며, 2013년 9월 이후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하도록 함(금감원 보도자료, 2013. 7. 8).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대물 담보의 실적 향상과 자차 담보의 증가세 전환 등으로 4.7% 늘어난 2조 3,225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증가세가 커지고 있음.

■ 2014년 1/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¹²⁾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84.1%를 기록하였으나, FY2013 2/3분기와 3/3분기의 높은 손해율에 비해서는 개선됨.

- 대인배상 I 손해율은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¹³⁾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손해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13.2%p 하락한 69.8%를 기록함.

〈표 19〉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¹⁾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대인 I	95.4	83.0	86.9	83.9	89.9	91.7	88.5	69.8
종합보험	대인 II	91.0	87.7	90.9	94.2	102.3	79.5	91.3
	대물	97.2	86.9	89.3	90.0	91.4	95.6	92.4
	자차	83.7	78.7	73.3	76.6	81.3	88.7	82.1
	자손	92.1	98.6	85.4	77.2	91.4	79.2	82.6
	무보험	56.2	40.2	53.0	55.1	80.5	54.4	63.3
	소계	90.8	84.3	83.3	85.1	89.3	89.8	88.1
외화표시	88.6	74.5	84.7	57.5	69.3	71.5	66.1	77.9
이륜자동차 ²⁾	77.6	67.7	81.2	90.8	94.3	94.9	93.3	79.4
기타 ³⁾	92.2	80.1	79.8	70.8	85.0	88.4	81.5	72.8
합계	91.9	83.7	84.0	84.4	89.3	90.2	87.9	84.1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2) 도로교통공단의 발표로는 2014년 1/4분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만 8,719건(잠정치)으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함.

13) 대인 I 에서 지급하는 손해 항목인 척추 염좌가 8등급(최대 보상금 240만 원)에서 12등급(최대 보상금 8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인 I 발생손해액은 감소하고 대인 II 발생손해액은 증가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4년 2월 7일 시행).

- 종합보험 손해율의 경우 경과보험료 감소로 자차 담보 손해율이 상승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인Ⅱ 담보 손해율도 높아져 전체적으로 5.3%p 상승한 89.6%를 기록함.

4) 일반손해보험

■ 2014년 1/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 및 보증보험 감소와 특종보험 저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에 그친 2조 289억 원을 기록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시장침체 지속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¹⁴⁾에 따른 수요확대 효과 약화로 6.1% 감소한 759억 원을 기록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해양종합보험이 증가하여 17.0% 늘어난 1,747억 원을 나타냄.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4.3% 감소한 3,842억 원을 기록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기저효과로 기술보험 증가율이 상승하였으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저성장으로 2.6% 증가에 그친 1조 2,566억 원을 나타냄.
 - 기술보험 원수보험료는 19.2%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전년 동기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임.
 - 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실적 부진으로 5.0% 증가에 그쳤으며,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업성 물건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3.8% 늘어남.

14) 2013년 3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2013년 8월 22일까지 해당 법률에서 기존 다중이용업주들의 가입을 완료하도록 규정하였음.

〈표 20〉 일반손해보험¹⁾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²⁾		FY2012			FY2013				201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1/4
화재	보험료	946	808	3,293	755	734	923	2,413	759
	증가율	24.8	23.2	25.0	-3.4	-3.1	-2.4	-2.9	-6.1
	구성비	4.6	4.0	4.1	3.6	3.7	4.5	3.9	3.7
해상	보험료	2,165	1,493	8,230	2,122	2,257	1,638	6,016	1,747
	증가율	18.1	-36.1	-5.4	-9.9	1.8	-24.3	-10.7	17.0
	구성비	10.6	7.5	10.2	10.0	11.4	7.9	9.8	8.6
보증	보험료	3,913	4,013	15,816	3,801	3,461	3,976	11,238	3,842
	증가율	0.1	-1.7	4.2	-6.9	-9.1	1.6	-4.8	-4.3
	구성비	19.2	20.1	19.6	18.0	17.5	19.2	18.2	18.9
특종	보험료	12,063	12,249	48,557	13,064	11,673	12,435	37,172	12,566
	증가율	9.4	28.6	17.8	5.6	-1.6	3.1	2.4	2.6
	구성비	59.1	61.3	60.1	61.8	58.9	60.0	60.3	61.9
해외 원보험	보험료	1,314	1,418	4,876	1,390	1,688	1,762	4,840	1,376
	증가율	53.8	40.8	54.1	39.5	47.1	34.0	40.0	-3.0
	구성비	6.4	7.1	6.0	6.6	8.5	8.5	7.8	6.8
합계	보험료	20,401	19,981	80,773	21,132	19,813	20,733	61,679	20,289
	증가율	11.0	13.5	13.9	2.6	0.1	1.6	1.5	1.5

주: 1)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함.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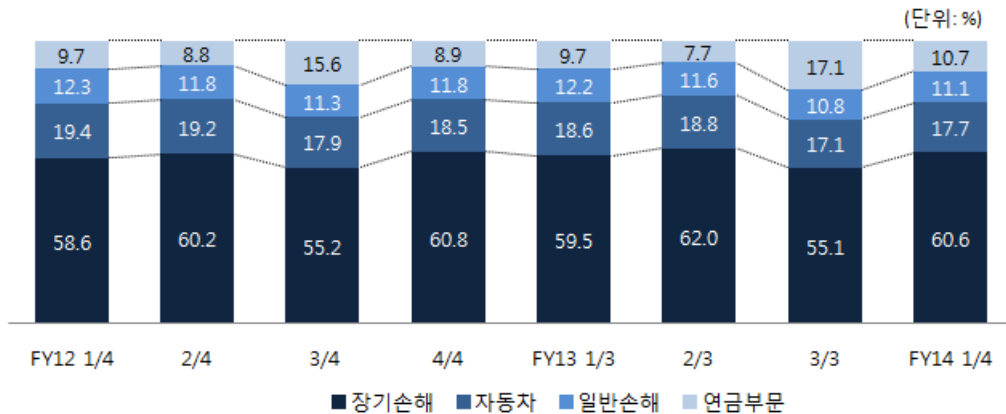
■ 2014년 1/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연금부문 비중은 전년동기인 FY2012 4/4분기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그리고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모두 축소됨.

○ 연금부문 비중은 퇴직연금 원수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8%p 확대된 10.7%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장기 저축성보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비중이 확대되어 0.2%p 감소한 60.6%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원수보험료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각각 0.8%p, 0.7%p 축소된 17.7%, 11.1%를 기록함.

〈그림 5〉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4년 1/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으나 상위 4사¹⁵⁾와 전업사 점유율은 하락하였으며, 허핀달 지수는 상위 4사 점유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0039 감소한 0.1386을 기록함.
 -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은 일부 회사들의 원수보험료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2%p 상승한 28.4%를 기록함.
 - 상위 4사 점유율은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 확대와 일부 회사들의 원수보험료 실적 악화로 2.0%p 하락한 67.4%를 나타냄.
 - 전업사 점유율은 원수보험료 실적 부진으로 0.2%p 축소된 2.1%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사 점유율은 전년 동기와 같은 2.1%를 나타냄.

15)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를 의미함.

〈표 21〉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⁶⁾	1/4
상위 4사 ²⁾	70.7	69.4	70.0	70.3	69.9	70.2	70.1	67.4
국내 중소형사 ²⁾	25.0	26.2	25.5	25.4	25.9	25.8	25.7	28.4
전업사 ³⁾	2.2	2.3	2.3	2.2	2.0	2.1	2.1	2.1
외국사 ³⁾	2.1	2.1	2.2	2.1	2.2	2.0	2.1	2.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⁴⁾	2.0	2.1	2.1	2.0	2.1	1.9	2.0	2.1
허핀달 지수 ⁵⁾	0.1465	0.1425	0.1448	0.1459	0.1459	0.1448	0.1453	0.1386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상위 4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는 국내 온라인사를 포함한 8개 회사를 의미함.

3)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하며, 외국사는 외국계 온라인사를 포함함.

4)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5) 허핀달 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이면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6)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2014년 1/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대부분 종목의 손해율 악화로 전년동기인 FY2012 4/4분기 대비 1.7%p 상승한 83.3%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경과보험료 증가율보다 발생손해액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1.9%p 상승한 85.1%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간보다 0.4%p 상승한 84.1%를 기록하였으나, FY2013 연간 손해율 87.9%에 비해서는 3.8%p 개선됨.

■ 2014년 1/4분기 사업비율은 대부분 종목의 사업비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2.0%p 하락한 19.1%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의 경우 보유보험료는 전년 동기간보다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어들어 각각 1.9%p, 0.6%p 하락한 18.0%, 20.8%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실적 부진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5.0%p 하락한 22.6%를 나타냄.

■ 2014년 1/4분기 합산비율은 사업비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3%p 낮아진 102.4%를 나타냄.

〈표 22〉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손해율	장기손해보험 ²⁾	82.9	83.2	83.7	83.8	83.5	84.0	83.8	85.1
	자동차보험	91.9	83.7	84.0	84.4	89.3	90.3	87.9	84.1
	화재보험	52.7	56.1	59.2	56.8 ³⁾	60.9	44.0	33.8	73.2
	해상보험	56.1	77.8	61.5	48.6	58.0	67.5	57.7	89.5
	보증보험	48.1	72.3	62.3	155.0	31.7	45.8	76.5	72.5
	특종보험	72.1	69.3	70.6	59.8	71.1	66.1	65.8	69.2
	해외원보험	54.5	67.6	58.4	63.8	54.1	116.9	79.1	64.6
	해외수재보험	47.4	65.6	58.9	59.8	60.0	52.8	57.6	72.9
	전체	82.3	81.6	81.7	82.5	81.8	82.5	82.3	83.3
사업비율		20.0	21.1	19.5	19.5	19.2	20.4	19.7	19.1
합산비율		102.3	102.7	101.2	102.0	101.0	103.0	102.0	102.4

주: 1) 손해율, 사업비율, 그리고 합산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임.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고려한 재무손해율임.

3)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2014년 1/4분기 전체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의 경우 보험영업적자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줄어든 데다 투자영업이익도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31.2% 증가한 5,713억 원 흑자를 나타냄.

○ 보험영업이익은 발생손해액과 보험료적립금이 늘어나 5,799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적자규모는 전년 동기기간보다 380억 원 감소함.

○ 투자영업이익은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728억 원 늘어난 1조 3,856억 원 흑자를 기록함.

■ 2014년 1/4분기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¹⁶⁾의 당기순이익(B)은 일부 대형사들의 경영실적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31.5% 늘어난 4,601억 원 흑자를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은 6,191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투자영업이익은 1조 2,926억 원 흑자를 나타냄.

〈표 23〉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총수익	보험영업	15,915	16,189	63,681	16,196	16,590	16,698	49,484	16,835
	투자영업	1,773	1,588	6,438	1,868	1,603	1,805	5,276	1,780
	기타	666	227	1,674	328	143	949	1,419	245
	소계	18,354	18,004	71,793	18,392	18,336	19,451	56,179	18,860
총비용	보험영업	16,457	16,807	65,237	16,749	16,914	17,398	51,062	17,415
	투자영업	581	375	1,649	665	366	493	1,524	394
	기타	721	233	1,793	359	203	1,024	1,587	286
	소계	17,760	17,415	68,679	17,774	17,483	18,915	54,172	18,095
수지차	보험영업	-542	-618	-1,556	-553	-324	-701	-1,578	-580
	투자영업	1,192	1,213	4,789	1,203	1,237	1,312	3,752	1,386
	기타	-56	-6	-119	-31	-61	-75	-167	-40
	소계	594	589	3,114	618	852	536	2,007	765
법인세		156	142	726	180	173	163	515	194
당기순이익(A) ²⁾		438	446	2,388	439	680	374	1,492	571
		(-7.1)	(21.9)	(-2.4)	(-46.3)	(-1.0)	(-14.8)	(-23.2)	(31.2)
당기순이익(B) ³⁾		313	350	1,861	516	426	270	1,212	460
		(-14.9)	(-21.2)	(-6.7)	(-19.8)	(-23.1)	(-13.9)	(-19.8)	(31.5)

주: 1) 기간별 수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 실적이고, ()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함.

2)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6)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분석대상은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회사임.

〈총부채 · 총자본〉

■ 2014년 1/4분기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총계의 경우 총자본은 줄어들었으나 총부채가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한 176조 9,154억 원을 나타냄.

○ 총부채는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 증가로 16.0% 늘어난 154조 1,539억 원을 기록함.

○ 총자본의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3.4% 감소한 22조 7,615억 원을 나타냄.

〈표 24〉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¹⁾		FY2012		FY2013			2014
		3/4	4/4	1/3	2/3	3/3	1/4
책임준비금	금액	111.9	115.6	120.9	125.9	130.4	135.8
	증가율	24.0	21.0	18.1	16.5	16.5	17.5
기타부채	금액	11.2	11.0	11.4	10.5	10.4	10.7
	증가율	20.9	17.5	9.6	2.2	-7.4	-3.0
특별계정부채	금액	6.3	6.3	6.1	6.2	7.4	7.6
	증가율	28.7	24.8	14.1	10.9	17.5	21.5
부채총계	금액	129.4	132.9	138.5	142.5	148.2	154.2
	증가율	24.0	20.9	17.1	15.0	14.5	16.0
자본금	금액	2.1	2.1	2.0	2.1	2.3	2.3
	증가율	-4.7	-5.1	-6.5	-5.7	7.4	7.5
자본잉여금	금액	1.9	1.9	2.1	2.1	2.1	2.1
	증가율	30.1	24.6	12.8	16.6	9.7	9.7
이익잉여금	금액	14.1	14.4	14.7	15.3	15.6	15.8
	증가율	14.8	14.0	14.1	12.9	11.1	9.9
자본조정	금액	-0.6	-0.6	-0.6	-0.6	-1.0	-1.0
	증가율	87.1	148.7	140.9	9.2	72.4	72.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4.9	5.7	3.6	3.7	3.3	3.5
	증가율	45.6	51.4	-2.6	-27.2	-31.3	-38.0
자본총계	금액	22.4	23.6	21.9	22.6	22.4	22.8
	증가율	18.0	18.3	7.3	2.2	-0.1	-3.4
부채 및 자본총계	금액	151.8	156.5	160.3	165.1	170.6	176.9
	증가율	23.1	20.5	15.7	13.1	12.4	13.1

주: 1)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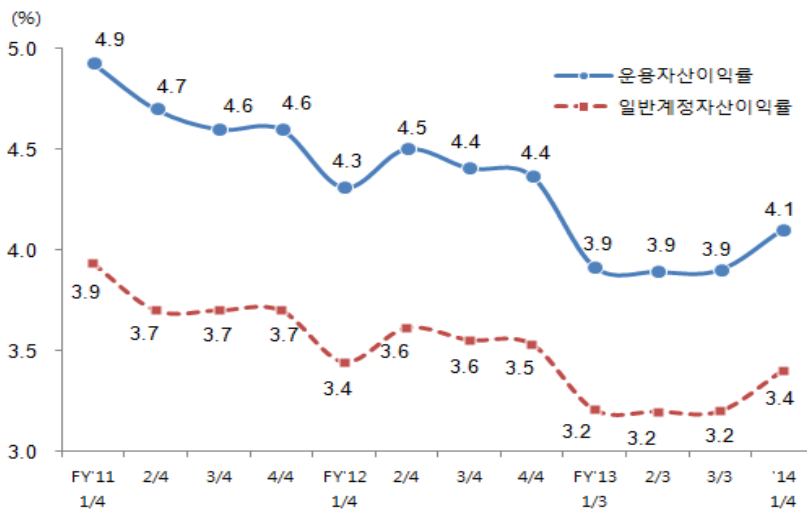
■ 2014년 1/4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이익률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3%p 낮아진 4.1%를 기록함.

○ 유가증권 이익률은 만기보유증권 이익률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3%p 낮아진 4.1%를 기록하였으며, 대출채권 이익률도 0.8%p 하락한 4.6%를 나타냄.

■ 2014년 1/4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4.3%, 대출채권 20.7%, 현금과 예금 4.3%, 부동산 3.8% 순으로 나타남.¹⁷⁾

○ 유가증권 비중은 전년 동기간과 같았으나 대출채권은 전년동기대비 2.0%p 확대되었고, 현금과 예금 및 부동산 비중은 각각 0.4%p, 0.5%p 축소됨.

〈그림 6〉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1),2)}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7)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25〉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1/3		2/3		3/3		1/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3.5	100.0	3.2	100.0	3.2	100.0	3.2	100.0	3.4
운용자산 계	81.9	4.4	81.9	3.9	82.4	3.9	82.9	3.9	83.1	4.1
현금과 예금	4.7	3.2	5.0	3.7	4.7	1.7	4.7	1.6	4.3	3.9
유가증권	54.3	4.4	53.2	3.8	53.8	3.9	54.0	3.9	54.3	4.1
○ 당기손익인식증권 ³⁾	4.4	4.1	3.3	-0.1	3.8	1.6	3.6	2.2	4.6	2.7
- 주식	0.1	6.3	0.1	-14.0	0.2	2.1	0.1	2.4	0.1	9.7
- 채권 등	2.2	5.2	1.5	-1.5	1.6	0.7	1.9	1.6	2.3	3.1
- 수익증권	2.1	2.2	1.7	2.0	2.1	2.4	1.7	2.8	2.2	1.5
○ 매도가능증권	45.4	4.5	44.3	4.0	42.5	4.2	42.2	4.2	41.2	4.3
- 주식	4.0	-0.6	3.6	-1.7	3.4	0.4	3.4	-0.1	3.2	5.0
- 채권 등	37.7	5.2	36.8	4.5	35.2	4.6	34.7	4.7	33.9	4.3
- 수익증권	3.7	3.4	3.9	5.0	3.9	3.7	4.1	3.9	4.1	3.5
○ 만기보유증권	2.9	6.1	4.2	4.9	6.2	4.1	6.8	4.2	6.9	4.0
- 채권 등	2.9	6.1	4.2	4.9	6.2	4.1	6.8	4.2	6.9	4.0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1.6	0.3	1.4	2.4	1.4	1.7	1.4	0.9	1.7	1.6
대출채권	18.7	5.4	19.5	5.0	19.9	5.0	20.2	5.0	20.7	4.6
부동산	4.3	1.0	4.2	1.3	4.1	1.1	3.9	1.1	3.8	1.1
비운용자산	18.1	0.0	18.1	0.0	17.6	3.9	17.1	0.1	16.9	0.0
총자산	100.0	3.4	100.0	3.1	100.0	3.0	100.0	3.1	100.0	3.2
일반계정	96.0	3.5	96.2	3.2	96.3	3.2	96.0	3.2	95.5	3.4
특별계정	4.0	0.0	3.8	0.0	3.7	0.0	4.0	0.0	4.5	0.0
총자산 규모	1,564,632		1,603,154		1,650,960		1,705,563		1,769,154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 분기 이후 당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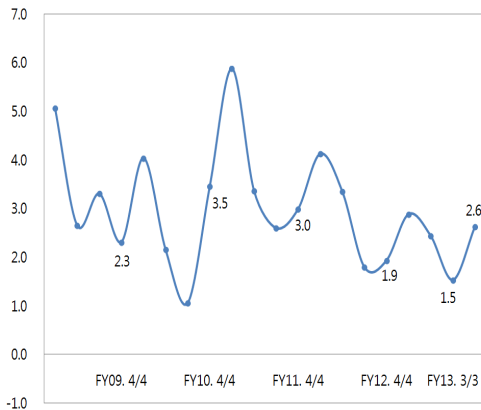
〈자본이익률〉¹⁸⁾

■ 2014년 1/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2.6%를 나타냈으며, 전분기대비로도 1.1%p 상승함.

○ 모든 대형사¹⁹⁾의 자본이익률은 손해보험 평균보다 높았으나, 대부분의 중소형사와 전업사의 자본이익률은 손해보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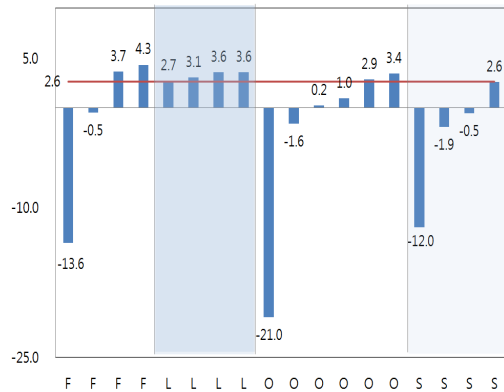
〈그림 7〉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8〉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4년 1/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는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으나, 중소형사, 외국사, 그리고 전업사는 하락함.

○ 대형사 자본이익률의 경우 기중자본이 줄어든 데다 투자영업이익 개선으로 당기순이익도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0%p 상승한 3.2%를 기록함.

○ 중소형사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 증가와 당기순이익 감소로 0.5%p 하락한 0.6%를 나타냄.

18)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FY2012 1/4분기부터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어 18개 회사임.

19)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를 의미함.

- 외국사와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감소로 각각 2.0%p, 0.8%p 하락한 -0.7%, -1.2%를 기록함.

〈표 26〉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추이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3/4	4/4	연간 ²⁾	1/3	2/3	3/3	연간 ^{2),3)}	1/4
대형사	2.3	2.2	12.6	2.9	3.0	1.9	8.0	3.2
중소형사	0.7	1.1	8.7	2.2	0.5	1.6	4.4	0.6
외국사	1.3	1.3	11.7	6.8	3.3	0.1	9.3	-0.7
전업사	-10.2	-0.4	-6.0	2.7	-5.3	-14.2	9.3	-1.2
전체	1.8	1.9	11.6	2.9	2.4	1.5	7.0	2.6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FY2013 연간수치는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2014년 1/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의 경우 임직원과 대리점 채널 비중이 전년동기 대비 확대되었으나,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축소됨.

- 임직원 채널 비중은 주요 판매상품인 퇴직연금 실적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2.1%p 확대된 14.9%를 나타냄.
- 대리점 채널 비중은 장기 저축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소폭 회복세에 힘입어 2.5%p 확대된 41.0%를 기록함.
-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임직원과 대리점 채널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각각 1.3%p, 3.2%p 줄어든 29.4%, 14.0%를 나타냄.

〈표 2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1/4
임직원	34,274	21,754	102,941	23,802	21,083	39,003	83,888	27,340
	19.0	12.8	15.0	13.7	12.3	20.2	15.6	14.9
설계사 ²⁾	52,267	52,017	206,290	53,442	53,409	53,038	159,889	53,797
	28.9	30.7	30.1	30.8	31.2	27.5	29.7	29.4
대리점	75,279	65,241	284,249	74,948	73,923	78,012	226,884	74,999
	41.7	38.5	41.5	43.2	43.2	40.5	42.2	41.0
중개사	1,421	1,063	4,803	1,248	1,334	1,795	4,377	1,206
	0.8	0.6	0.7	0.7	0.8	0.9	0.8	0.7
방카슈랑스	17,189	29,169	86,293	20,008	21,224	20,710	61,941	25,602
	9.5	17.2	12.6	11.5	12.4	10.7	11.5	14.0
공동인수	196	324	846	136	183	284	602	138
	0.1	0.2	0.1	0.1	0.1	0.1	0.1	0.1
전체	180,625	169,568	685,422	173,584	171,156	192,842	537,582	183,0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하는 분기 기준 원수보험료 실적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2014년 1/4분기 말 임직원, 설계사, 그리고 대리점 수가 모두 전분기대비 감소함.

- 임직원 수는 대형사 정규직 직원 수 감소와 기타 국내사 및 외국사의 비정규직 직원 수 감소로 전분기대비 159명 줄어든 3만 3,320명을 기록함.
- 설계사 수는 전속설계사 수 감소로 3,122명 줄어든 16만 1,131명을 기록하였으며,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 전체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 수 감소세로 393개 줄어든 3만 6,559개를 나타냄.
 - 개인대리점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2014년 1/4분기에도 542개 줄어든 2만 2,702개를 기록하였으나 법인대리점 수는 149개 늘어난 1만 3,857개를 나타냄.

〈표 28〉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2			FY2013			2014
	2/4	3/4	4/4	1/3	2/3	3/3	1/4
임직원	32,464	32,438	32,838	32,944	33,570	33,479	33,320
설계사	168,545	170,165	168,023	168,968	166,915	164,253	161,131
- 전속	93,400	95,017	93,167	93,712	92,952	90,167	86,988
- 교차	75,145	75,148	74,856	75,256	73,963	74,086	74,143
대리점	38,857	38,957	37,643	37,500	37,268	36,952	36,559
- 개인	26,929	26,399	24,419	24,063	23,666	23,244	22,702
- 법인	11,928	12,558	13,224	13,437	13,602	13,708	13,857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글로벌 생명보험 시장¹⁾은 미국과 일본의 생명보험 신규보험료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8%, 12.4% 감소하였고,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와 중국 인보험 수입보험료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4.3%, 44.1% 증가함. 미국의 경우 유니버설 보험 성장 감소가 생명보험 감소의 주요인임. 일본은 개인연금의 감소가 생명보험 감소의 요인임. 영국은 퇴직연금 보험료 증가의 영향으로 생명보험 신규보험료가 증가하였으며, 중국 인보험은 건강보험 수입보험료의 증가에 힘입어 성장함. 글로벌 손해보험 시장은 미국, 일본, 중국 모두 성장세를 보였음.

1. 미국 동향²⁾

가. 생명보험

■ 2013년 4/4분기 미국 생명보험 시장 신규보험료는 신규 연납화 보험료³⁾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8% 감소하였고, 2013년 누적 신규보험료 증가율은 전년대비 성장이 정체되었음.

○ 2013년 4/4분기 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lifetime guarantee UL) 판매감소로 23% 감소하였고, 2013년 누적 기준으로는 7% 감소함.

-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저금리 지속 및 낮은 투자수익으로 인해 2013년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약 51% 감소하였으며, 2013년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약 26% 감소함.

1) 미국, 일본은 2013년 4/4분기, 영국, 중국은 2014년 1/4분기 기준임.

2)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3)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 반면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L) 신규보험료는 3년째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변액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6% 성장하였으며 2013년 연간 기준 변액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대비 24% 증가함.
- 정기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 감소하였으며, 종신보험 신규보험료는 3% 증가함.
- 2013년 연간 기준 신규보험료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각각 전년대비 3%, 4% 증가함.

■ 2013년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비중의 경우 유니버설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비중이 하락하고,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비중이 상승함.

- 유니버설보험 비중은 40%로 생명보험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비중이 각각 32%, 22%를, 변액유니버설보험이 6%의 비중을 차지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0	6	4	20	8	43	8	1	-8	-23	-7	40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1	-6	-4	16	0	8	10	9	33	36	24	6
정기	1	-3	-1	4	0	19	3	6	5	-1	3	22
종신	10	9	5	6	7	30	7	5	2	3	4	32
계	3	4	3	12	6	100	7	4	0	-8	0	100
연납화 보험료	2,311	2,443	2,334	2,887	9,975		2,479	2,531	2,333	2,667	10,01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4, 3),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3년 4/4분기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변액연금과 정액연금의 신규보험료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하였음.

○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36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하였으며, 2013년 연간 신규보험료는 전년대비 1.4% 감소함.

○ 정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1.8% 증가한 25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연간 신규보험료는 전년대비 16.7% 증가함.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변액연금	보험료	36.9	38.7	36.8	35.0	147.4	35.3	38.0	35.7	36.3	145.3
	증가율	-6.6	-7.7	-7.5	-7.9	-6.6	-3.8	-1.3	-3.0	3.7	-1.4
	비중	673.0	67.9	67.8	67.0	67.1	69.2	67.6	59.9	59.1	63.3
정액연금	보험료	18.1	18.6	17.9	17.7	72.3	16.5	18.8	23.9	25.1	84.4
	증가율	-10.5	-14.1	-13.8	-9.0	-11.9	-11.7	-0.9	33.5	41.8	16.7
	비중	32.7	32.1	32.2	33.0	32.9	30.8	32.4	40.1	40.9	36.8
합계	보험료	55.0	57.3	54.7	52.7	219.7	51.8	56.8	59.6	61.4	229.6
	증가율	-7.9	-7.9	-9.7	-8.3	-8.4	-6.4	-1.2	9.0	16.5	4.5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4, 3), U.S. Individual Annuities.

■ 2013년 4/4분기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의 경우 독립중개인이 2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속설계사가 20.5%, 독립설계사가 17.6%, 은행, 증권중개인, 직접판매가 각각 16.0%, 12.5%, 8.5%의 비중을 차지함.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1/4	2/4	3/4	4/4
은행	13.5	13.7	13.1	12.9	14.1	14.8	17.3	16.0
전속설계사	23.8	21.8	21.9	23.7	22.4	21.0	20.7	20.5
직접판매	8.8	9.6	8.3	8.9	8.7	8.3	7.4	8.5
독립중개인	23.2	23.2	25.0	23.1	25.0	24.9	23.2	22.6
독립설계사	16.3	15.6	16.4	16.5	15.3	15.3	15.5	17.6
증권중개인	12.6	14.0	13.4	12.5	12.4	13.2	13.6	12.5
기타	1.8	2.1	1.8	2.3	2.1	2.5	2.4	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MRA(2014, 3),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3년 4/4분기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의 경우 Guaranteed Renewable⁴⁾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Non-cancellable⁵⁾이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함.

○ Guaranteed Renewable의 신규보험료는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하였음.

○ Non-cancellable 소득보상보험은 Multilife⁶⁾ 보험 판매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함.

- Multilife 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9% 증가하였고, Non-multilife 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 감소함.

○ 2013년 소득보상보험 연간 신규보험료는 전년대비 1.4% 감소함.

4)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5)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6) Multilife 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부부 둘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임.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CY2012					CY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계약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 수	107.6	67.5	75.0	77.9	327.9	96.3	65.3	75.3	73.6	310.6
		증가율	0.4	-11.2	-8.2	-6.3	-5.7	-10.4	-3.3	0.4	-5.5	-5.3
		구성비	75.4	65.9	65.2	64.9	68.3	73.5	64.4	65.0	63.1	66.8
	Non-cancellable	건 수	35.1	34.9	40.0	42.8	152.8	34.7	36.3	40.3	43.0	154.3
		증가율	5.0	2.5	-2.1	4.8	2.5	-1.1	3.8	0.8	0.5	1.0
		구성비	24.6	34.1	34.8	35.6	31.8	26.5	35.8	34.8	36.9	33.2
	전체	건 수	142.7	102.4	115.0	120.7	480.2	131.0	101.4	115.8	116.7	464.9
		증가율	1.5	-7.0	-6.1	-3.1	-3.4	-8.2	-1.0	0.7	-3.3	-3.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64.5	46.7	49.5	51.3	212.0	57.9	45.0	48.7	49.8	201.3
		증가율	0.6	-4.3	-4.0	-3.5	-2.6	-10.3	-3.6	-1.7	-2.9	-5.0
		구성비	47.6	37.6	37.1	38.3	40.2	45.6	36.5	36.5	36.6	38.8
	Non-cancellable	보험료	71.1	77.4	83.8	82.7	314.9	69.2	78.2	84.6	86.1	318.1
		증가율	6.8	5.8	3.3	3.2	4.7	-2.7	1.1	0.9	4.2	1.0
		구성비	52.4	62.4	62.9	61.7	59.8	54.4	63.5	63.5	63.4	61.2
	전체	보험료	135.6	124.0	133.3	133.9	526.9	127.0	123.2	133.2	135.9	519.4
		증가율	3.8	1.8	0.5	0.6	1.6	-6.3	-0.7	0.0	1.5	-1.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4, 2),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라. 손해보험

■ 2013년 4/4분기 미국 손해보험 총보험영업이익은 원수보험료의 증가와 지급보험금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약 142억 달러 증가한 50억 달러를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한 1,142억 달러를 기록함.

○ 지급보험금은 대재해 손실 지급보험금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2.0% 감소한 795억 달러를 기록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와 경과 보험료는 각각 5.8%, 5.0% 증가하였고, 지급보험금은 12.2% 감소하였으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110.0%에서 12.6%p 감소한 97.4%임.

- 2013년 4/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109.6%에서 약 12.5%p 하락한 97.1%를 기록함.
- 이는 1986년 이후 미국 4/4분기 합산비율 평균 수준인 106.9%보다 9.8%p가 낮은 수치임.

■ 총투자영업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이익과 실현자본이익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5.9% 증가한 184억 달러를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13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였으며, 실현자본이익은 5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6.9% 증가함.

■ 손해보험산업의 2013년 4/4분기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 증가와 총투자영업이익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86.2% 증가한 20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5%에서 8%p 상승한 13%로 개선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3/4분기 8억 달러를 실현했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은 21.3%로 전년동기 20.1%에 비하여 1.2%p 증가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한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200억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134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은 12.8%로 전년동기 4.6%에 비해 8.2%p 증가함.

■ 2013년 미국 손해보험 연간 당기순이익은 총보험영업이익과 총투자영업이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81.9% 증가한 638억 달러를 기록함.

- 2013년 연간 총보험영업이익은 원수보험료 증가와 지급보험료 감소로 전년대비 309억 달러 증가한 155억 달러를 기록함.
-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4.7% 증가하였으나 지급보험금은 5.5% 감소함.
- ISO(Insurance Service Office)에 따르면 2013년 대재해 손실 지급보험금은 221억 달러로 2012년 35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대폭 감소함.
- 2013년 연간 총투자영업이익은 588억 달러로 전년대비 8.6% 증가함.
- 이에 따라 2013년 당기순이익은 638억 달러로 전년대비 81.9% 증가하였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은 10.3%로 전년대비 4.2%p 증가함.
- 2013년 미국 손해보험 합산비율은 96.1%로 2012년 102.9%에 비해 개선됨.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¹⁾		CY2012					CY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수보험료	금액	112,470	114,337	121,622	108,022	456,451	117,110	120,048	126,186	114,241	477,676
	증가율	3.1	4.2	5.1	4.7	4.3	4.2	5.0	3.8	5.8	4.7
지급보험금	금액	75,644	84,800	82,669	90,270	333,383	74,214	83,590	77,598	79,471	315,035
	증가율	-4.0	-11.1	-8.0	12.2	-3.3	-1.9	-1.4	-6.1	-12.0	-5.5
보험영업이익	금액	376	-6,039	552	-8,189	-13,300	5,192	-1,777	8,461	6,285	18,045
	증가율	-107.3	-68.6	-105.2	997.7	-61.3	1666.0	-70.6	1432.8	-176.7	-235.7
계약자 배당금	금액	520	287	316	1,001	2,124	552	454	264	1,263	2,536
	증가율	12.8	-17.5	21.5	28.0	14.6	6.0	58.2	-16.5	26.2	19.4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144	-6,326	236	-9,190	-15,424	4,640	-2,231	8,197	5,022	15,509
	증가율	-94.9	-67.7	-102.2	501.4	-57.4	-2144.1	-64.7	3373.3	-154.6	-200.6
투자영업이익	금액	11,657	12,143	11,477	12,654	47,931	11,385	11,786	11,139	13,014	47,352
	증가율	-7.5	-0.6	-1.7	0.8	-2.6	-2.3	-2.9	-2.9	2.8	-1.2
실현자본이익	금액	689	1,025	1,236	3,232	6,182	1,380	2,502	2,151	5,394	11,433
	증가율	-30.7	-60.8	-33.6	114.0	-12.2	101.5	144.1	74.0	66.9	84.9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2,346	13,168	12,714	15,885	54,113	12,765	14,288	13,290	18,408	58,786
	증가율	-9.2	-11.3	-6.1	13.0	-3.8	3.4	8.5	4.5	15.9	8.6
세전 영업이익 ²⁾	금액	11,873	7,205	12,168	3,633	34,879	15,885	10,029	19,891	18,607	64,321
	증가율	36.6	-198.1	506.3	-68.9	126.1	34.8	39.2	63.5	412.2	84.4
당기순이익	금액	10,214	6,999	10,610	7,251	35,074	14,394	10,182	18,520	20,755	63,784
	증가율	29.6	-324.5	229.4	-34.5	80.3	40.9	45.5	74.6	186.2	81.9
자기자본(surplus)	금액	573,944	571,346	584,095	587,061	587,061	607,737	613,988	624,366	653,348	653,348
	증가율	0.7	2.2	8.4	6.0	6.0	5.9	7.5	6.9	11.3	11.3
지급준비금	금액	571,080	573,662	575,475	576,815	576,815	572,504	577,410	573,551	573,727	573,727
	증가율	1.2	-0.2	-0.5	0.7	0.7	0.2	0.7	-0.3	-0.5	-0.5
자기자본이익률		7.2	4.8	7.3	5.0	6.1	9.6	6.7	12.3	13.0	10.3
합산비율		99.0	104.8	98.5	109.6	102.9	94.8	100.8	91.8	97.1	96.1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총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자료: III(2014. 4), P/C Insurers' 2013 Profits and Profitability Reflect First Net Gains On Underwriting Since 2007.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 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 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2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0개사	95%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 동향⁷⁾

〈생명보험 전체〉

■ 2014년 1/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시장규모는 신규 보험료⁸⁾ 기준으로 178억 2,559만 파운드이며, 전년동기보다 7억 3,878만 파운드 증가함.

○ 퇴직연금 전체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0.9% 증가하여 생명보험 전체 신규 보험료도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함.

■ 2014년 1/4분기 정기납 보험료는 19억 9,155억 파운드로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함.

○ 정기납 보험료 중 비중이 가장 큰 퇴직연금계좌가 23.4% 증가하고 보장성보험이 9.4% 증가하였으나, 기타 정기납 보험은 모두 감소함.

■ 2014년 1/4분기 일시납 보험료는 158억 3,404만 파운드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함.

○ 비중이 가장 큰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가 33.5% 증가하였으나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이 18.2% 감소하면서 소폭 증가에 그침.

7)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1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8)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 합계.

〈표 6〉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정기납 신규보험료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투자 및 저축보험	금액	8.7	10.0	13.5	8.1	40.4	7.9
	증가율	-26.4	2.2	7.6	-24.5	-10.2	-8.3
	구성비	0.5	0.5	0.9	0.5	0.6	0.4
퇴직연금계좌	금액	1,155.3	1,166.6	997.1	1,204.5	4,523.4	1,425.9
	증가율	26.9	27.5	24.3	4.5	19.7	23.4
	구성비	66.2	55.0	66.1	71.0	64.0	71.6
Individual Pension 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Work-Based Pensions 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금액	81.3	86.3	72.6	77.2	317.4	68.8
	증가율	-35.8	-34.2	-29.4	-23.9	-31.3	-15.3
	금액	43.1	54.6	40.7	40.6	179.1	40.0
	증가율	n/a	n/a	n/a	n/a	n/a	-7.3
	금액	15.3	13.9	13.3	11.8	54.1	12.1
	증가율	n/a	n/a	n/a	n/a	n/a	-20.6
	금액	1,074.0	1,080.2	924.5	1,127.3	4,206.0	1,357.1
	증가율	37.0	37.9	32.2	7.3	26.8	26.4
	금액	943.4	905.1	800.8	996.0	3,645.4	1,185.2
	증가율	n/a	n/a	n/a	n/a	n/a	25.6
	금액	130.6	175.1	123.7	131.2	560.6	171.9
	증가율	n/a	n/a	n/a	n/a	n/a	31.7
퇴직연금	금액	335.9	670.1	243.4	236.0	1,485.4	289.5
	증가율	110.0	297.6	85.1	53.6	142.1	-13.8
	구성비	19.3	31.6	16.1	13.9	21.0	14.5
보장성보험	금액	245.1	275.0	255.0	248.5	1,023.6	268.2
	증가율	-9.9	-0.6	-3.2	-10.9	-6.2	9.4
	구성비	14.0	13.0	16.9	14.6	14.5	13.5
소계(A)	금액	1,744.9	2,121.7	1,509.0	1,697.1	7,072.7	1,991.6
	증가율	28.9	54.9	24.8	6.4	27.9	14.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시납 신규보험료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투자 및 저축보험	금액	2,275.4	2,002.4	2,082.2	2,203.9	8,563.9	1,960.5
	증가율	-27.4	-36.6	-33.2	-35.6	-33.3	-13.8
	구성비	14.8	14.8	12.0	15.6	14.2	12.4
변액연동채권	금액	739.9	550.6	564.1	608.7	2,463.3	549.4
	증가율	n/a	n/a	n/a	n/a	n/a	-25.8
유배당채권	금액	479.2	396.9	469.3	551.4	1,896.8	524.1
	증가율	n/a	n/a	n/a	n/a	n/a	9.6
퇴직연금계좌	금액	3,756.8	3,937.6	3,225.4	3,227.8	14,147.7	3,320.7
	증가율	1.8	-17.2	-7.9	-15.1	-13.5	-11.6
	구성비	24.5	29.1	18.6	22.8	23.4	21.0
Individual Pension	금액	1,757.6	1,806.0	1,534.6	1,710.1	6,808.3	1,916.5
	증가율	n/a	n/a	n/a	n/a	n/a	9.0
Personal Pension	금액	1,076.6	1,214.7	1,031.0	1,011.8	4,334.1	1,106.9
	증가율	n/a	n/a	n/a	n/a	n/a	2.8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금액	134.3	110.2	58.4	63.1	366.0	104.6
	증가율	n/a	n/a	n/a	n/a	n/a	-22.1
Work-Based Pensions	금액	1,999.3	2,131.6	1,690.9	1,517.7	7,339.4	1,404.2
	증가율	n/a	n/a	n/a	n/a	n/a	-29.6
Group Personal Pension	금액	1,887.8	2,057.9	1,632.0	1,456.6	7,034.2	1,313.3
	증가율	n/a	n/a	n/a	n/a	n/a	-30.4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금액	111.5	73.6	58.9	61.1	305.2	90.9
	증가율	n/a	n/a	n/a	n/a	n/a	-18.5
퇴직연금	금액	5,658.4	4,029.9	8,608.5	5,525.2	23,822.0	7,556.3
	증가율	29.3	13.5	128.6	-2.3	37.3	33.5
	구성비	36.9	29.8	49.7	39.0	39.5	47.7
Bulk Buyouts	금액	1009.9	1144.2	5362.4	1912.3	9428.8	4315.9
	증가율	n/a	n/a	n/a	n/a	n/a	327.4
보장성보험	금액	43.6	40.5	37.3	46.3	167.8	45.7
	증가율	-18.0	-19.8	-25.8	-7.2	-17.7	4.8
	구성비	0.3	0.3	0.2	0.3	0.3	0.3
퇴직소득보험	금액	3,607.5	3,523.4	3,379.2	3,159.0	13,669.2	2,950.8
	증가율	5.9	-5.9	-14.6	-23.6	-10.3	-18.2
	구성비	23.5	26.0	19.5	22.3	22.6	18.6
소계(B)	금액	15,341.9	13,533.8	17,332.7	14,162.2	60,370.6	15,834.0
	증가율	4.7	-11.3	20.4	-17.0	-2.6	3.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계(A+B)	금액	17,086.8	15,655.5	18,841.7	15,859.3	67,443.3	17,825.6
	증가율	6.7	-5.9	20.8	-15.0	-0.1	4.3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n/a는 통계집계방식 변경에 의해 자료가 없는 경우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투자·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투자·저축 보험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시납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13.8% 감소하면서 투자·저축보험료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3.8% 감소함.
-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일시납 변액연동채권(Unit-Linked Bonds) 보험료가 전년대비 25.8% 감소하고 유배당채권(with profit bonds)이 전년동기대비 9.4%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함.
- 정기납 투자·저축 보험료는 793만 파운드에 그쳤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8.3%가 감소한 것임.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2014년 1/4분기 퇴직연금계좌(Individual Pensions)⁹⁾ 정기납 보험료는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Pension)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23.4% 증가함.
- 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비중이 큰 Personal Pension과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의 판매가 전년대비 각각 7.3%, 20.6%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5.3% 감소함.
- 단체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 Sponsored Stakeholders의 판매 호조로 전년대비 26.4% 증가함.
- 일시납 기준 퇴직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계좌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단체개인연금계좌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1.6% 감소한 33억 2,073만 파운드를 보임.
- 일시납 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이 22.1% 감소했으나 Personal Pension, SIPP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2.8%, 32.2%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9.0% 증가함.
- 일시납 단체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규모가 큰 Group Personal Pension이 30.4% 감소하고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도 18.5% 감소하면서 전체 29.8% 감소함.

9) 퇴직연금계좌는 개인보험(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 등), 단체보험(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s, Group SIPP 등)으로 구분.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2014년 1/4분기 정기납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¹⁰⁾ 보험료는 규모가 가장 큰 DC형 퇴직연금과 맞춤형 퇴직연금(Trustee Investment Plans)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3.8% 감소한 2억 8,953만 파운드임.

- 전체 정기납 퇴직연금의 58.9%를 차지하는 DC형 퇴직연금은 전년동기대비 5.4% 감소한 1억 7,067만 파운드를 수준임.
- 33.7%의 비중을 차지하는 맞춤형퇴직연금(TIPs)은 전년동기대비 24.5% 감소한 9,757만 파운드임.

■ 한편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맞춤형퇴직연금이 부진하였으나 Bulk Buyout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33.5% 증가함.

- Bulk Buyout¹¹⁾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27.4%의 큰 폭의 증가를 시현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정기납 보장성보험료(Protection Products)¹²⁾는 비중이 큰 대출관련 정기보험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한 2억 6,816만 파운드를 기록함.

- 대출관련 정기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7.1% 증가하였고 기타 정기보험 보험료는 0.5% 감소함.
-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6.0% 감소한 2,761만 파운드 수준임.

■ 일시납 보장성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4,574만 파운드임.

10) 퇴직연금은 Defined Benefits, Defined Contributions, Group AVCS, TIPs(Trustee Investment Plans), Buyouts 등으로 구분.

11) DB형 퇴직연금 관리를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임.

12) 개인보험인 정기생명보험(Term Life), 종신보험(Whole Life), CI(Critical Illness), 소득보장(Income Protection) 과 단체보험인 단체생명보험(Group Life), 단체CI(Group Critical Illness), 단체소득보장(Group Income Protection)보험으로 구분.

- 이 중 종합생명보험(Collective Life)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2.5% 감소함.

〈퇴직소득보험 신규보험료〉

- 2014년 1/4분기 일시납 퇴직소득보험¹³⁾ 신규보험료는 종신연금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8.2% 감소한 29억 5,077만 파운드 수준임.

- 종신연금(Pension Annuities)은 비중이 큰 외부연금(Pure External Annuities) 보험료가 10.6% 감소하면서 22.8% 감소함.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4년 1/4분기 정기납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의 경우, 독립 자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無 자문, 제한적 자문 순임.

- 정기납 전체에 대한 독립 자문 채널비중은 77.3%이며, 종목별로는 퇴직연금계좌가 85.6%로 가장 크고, 보장성보험이 70.9로 그 뒤를 이었고 투자 및 저축보험이 0.6%로 가장 낮음.
- 無 자문 채널의 정기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13.6%이며,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 92.8%, 퇴직연금 50.3%이었으며, 퇴직연금계좌 6.3%로 가장 작았음.
- 제한적 자문 채널 비중은 정기납 신규보험료 판매 중 8.9%를 차지했으며, 종목별로는 보장성 보험이 16.5%로 가장 높고 퇴직연금이 5.8%로 가장 낮았음.

- 2014년 1/4분기 일시납 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의 경우, 독립 자문, 無 자문, 제한적 자문 순으로 채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일시납 전체 판매 중 독립 자문 비중은 69.6%이었으며, 종목별로는 보장성보험이 90.1%, 퇴직연금계좌가 85.1%로 높고 퇴직소득보험이 42.6%로 가장 낮음.

13)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은 종신연금(Pension Annuities),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나뉨.

- 無 자문 채널의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20.9%이며, 종목별로는 퇴직소득보험 비중이 46.8%, 퇴직연금이 20.6%이나, 보장성보험은 가장 낮은 0.3%의 비중을 차지함.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채널의 판매비중은 9.5%로 가장 낮고,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의 경우 23.3%로 비교적 높으나 퇴직연금계좌의 경우에는 4.9%로 가장 낮음.

〈표 7〉 2014년 1/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¹⁾ (Restricted Advice)		無 자문 ²⁾ (Non-Advised)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투자 및 저축보험	0.6	73.6	6.6	23.3	92.8	3.1
퇴직연금계좌	85.6	85.1	8.1	4.9	6.3	10.0
퇴직연금	43.9	70.5	5.8	8.8	50.3	20.6
보장성보험	70.9	90.1	16.5	9.6	12.6	0.3
퇴직소득보험	-	42.6	-	11.5	-	46.8
전체 ³⁾	77.3	69.6	8.9	9.5	13.6	20.9

주: 1) 독립중개인(WoM), 단일 전속(Single Tied)과 다중 전속(Multi Tied)설계사 포함.

2) 보험회사의 직접판매와 제3자판매를 포함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3) 각 채널별 신규보험료를 합산하여 재계산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4년 1/4분기 방카슈랑스 채널의 정기납 및 일시납 신규보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함.

- 방카슈랑스를 통한 정기납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8.8% 감소한 3,842만 파운드였는데 퇴직연금계좌가 23.6% 증가하였으나 가장 비중이 큰 보장성보험이 19.0% 감소한데 기인함.
-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 중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9.7% 감소한 3억 2,908만 파운드였으며, 이 중 비중이 큰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60.6%, 퇴직소득보험 보험료가 49.9% 감소하였음.

〈표 8〉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방카슈랑스 판매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정기납						일시납						
	2013					2014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1/4	2/4	3/4	4/4	연간	1/4	
투자 및 저축보험	0.1	0.2	0.2	0.1	0.6	0.3(217.6)	292.4	115.7	125.3	128.4	661.7	115.1(-60.6)	
퇴직연금계좌	9.6	10.9	20.9	9.8	51.3	11.9(23.6)	43.1	31.5	28.7	31.8	135.2	28.2(-34.5)	
퇴직연금	0.0	0.0	0.0	0.0	0.0	0.0	57.1	38.8	52.3	52.7	200.8	54.9(-3.9)	
역외영업	0.0	0.1	0.0	0.0	0.2	0.0(15.4)	86.3	90.4	85.5	121.1	383.3	94.3(9.3)	
보장성보험	32.4	28.7	28.5	26.9	116.2	26.2(-19.0)	2.8	2.2	3.4	3.9	12.4	4.4(10.7)	
퇴직소득보험 ¹⁾	-	-	-	-	-	-	64.3	44.6	49.6	44.3	202.8	32.2(-49.9)	
전체	42.1	39.9	49.6	36.8	168.3	38.4(-8.8)	546.0	323.2	344.8	382.2	1,596.2	329.1(-39.7)	

주: 1) 별도 취합된 퇴직소득보험의 방카슈랑스판매를 합침.

2) 괄호안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통계집계변경으로 인해 2014년 1/4분기만 표시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 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 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역외영업의 경우 투자·저축성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표시하지 않음.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Pension Annuity와 Income Drawdown으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 동향¹⁴⁾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3 4/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단체보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험 및 개인연금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2.4% 감소한 21조 3,822억 엔임.

○ 4/4분기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생존보험은 증가하였지만,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세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8.1% 감소함.

- 사망보험에서 비중이 큰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신규계약액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5.7%, 29.4% 감소하면서 사망보험 신규계약액도 감소함.

- 또한, 생사혼합보험인 양로보험(정기양로보험 포함)과 기타 생사혼합보험의 신규계약액은 4/4분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11.2%, 33.8% 감소함.

○ 4/4분기 개인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8.1%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본 주식시장의 회복으로 변액보험은 증가하였으나 고령화 지속으로 비중이 큰 정액연금보험은 감소한 것에 기인함.

- 변액연금보험은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2.9% 증가한 반면, 정액연금보험은 11.0% 감소함.

○ 4/4분기 단체보험 신규계약액은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¹⁵⁾ 포함)과 단체신용생명보험의 증가로 2조 306억 엔을 기록함.

- 4/4분기 단체정기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7.9% 증가하였고, 단체신용생명보험은 20배 이상 증가함.

14)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1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15)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이 사망 시 또는 고도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을 말함.

〈표 9〉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

구분 ¹⁾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개 인	금액	732,046	157,838	174,145	178,390	166,772	677,145
	증가율	8.0	-5.9	-2.3	-2.3	-18.1	-7.5
	구성비	86.3	85.7	88.8	85.9	78.0	84.5
사 망	금액	613,920	130,239	144,201	145,083	141,933	561,456
	증가율	10.2	-5.5	-3.6	-5.5	-17.9	-8.5
	구성비	72.4	70.7	73.5	69.9	66.4	70.0
정기보험	금액	314,329	66,488	74,168	76,150	74,110	290,916
	증가율	29.1	-3.0	-4.9	-4.7	-15.7	-7.4
종신보험	금액	174,907	32,248	39,938	36,450	36,616	145,252
	증가율	15.3	-16.9	-4.8	-13.7	-29.4	-17.0
생사 혼합	금액	113,112	26,199	28,504	31,678	22,835	109,217
	증가율	-0.9	-9.0	3.5	13.8	-21.2	-3.4
	구성비	13.3	14.2	14.5	15.3	10.7	13.6%
양로보험 ²⁾	금액	57,348	13,696	14,762	13,287	12,724	54,467
	기타	-3.1	-8.4	3.3	-3.6	-11.2	-5.0
기타	금 액	52,922	11,690	12,858	17,429	9,137	51,114
	증가율	1.3	-11.4	2.0	31.0	-33.8	-3.4
생 존	금액	5,014	1,400	1,440	1,629	2,004	6,473
	증가율	-24.3	26.5	36.5	40.6	18.4	29.1
	구성비	0.6	0.8	0.7	0.8	0.9	0.8
개인연금	금액	85,507	15,929	17,876	19,185	26,744	79,734
	증가율	7.5	-13.8	0.5	-4.7	-8.1	-6.8
	구성비	10.1	8.6	9.1	9.2	12.5	9.9
정액연금	금액	80,238	13,311	15,971	17,038	24,222	70,542
	증가율	7.0	-23.9	-3.1	-10.6	-11.0	-12.1
변액연금	금액	5,268	2,618	1,905	2,147	2,522	9,192
	증가율	14.7	165.5	44.9	100.7	32.9	74.5
단체보험	금액	30,415	10,424	4,056	10,007	20,306	44,794
	증가율	0.7	-14.3	47.8	148.4	76.8	47.3
	구성비	3.6	5.7	2.1	4.8	9.5	5.6
단체정기 ³⁾	금액	23,333	9,999	3,438	7,356	14,348	35,141
	증가율	-11.8	78.3	31.2	89.3	27.9	50.6
단체신용생명	금액	7,082	426	618	2,651	5,958	9,653
	증가율	88.0	-93.5	394.4	1,766.9	2,139.8	36.3
합 계	금액	847,968	184,192	196,077	207,582	213,822	801,673
	증가율	7.7	-7.1	-1.4	0.4	-12.4	-5.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 구성비임.

2) 양로보험은 정기양로보험을 포함함.

3) 단체정기보험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을 포함함.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3 4/4분기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규모는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금전신탁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입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의 감소로 인해 전분기대비 0.3% 감소한 350조 5,826억 엔을 기록함.

〈표 10〉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¹⁾

(단위: 억 엔, %)

구분 ^{1),2)}	FY2012		FY2013							
	4/4		1/4		2/4		3/4		4/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35,749	11.0	33,974	-5.0	40,397	18.9	36,270	-10.2	44,168	21.8
단기자금	27,669	70.9	16,023	-42.1	21,649	35.1	18,650	-13.9	26,697	43.1
매입금전채권	30,254	-0.4	27,000	-10.8	27,230	0.9	26,523	-2.6	25,859	-2.5
금전신탁	20,599	4.8	20,555	-0.2	21,695	5.5	23,136	6.6	24,592	6.3
유가증권	2,782,449	3.3	2,798,208	0.6	2,820,451	0.8	2,875,769	2.0	2,850,318	-0.9
- 국채	1,487,692	1.8	1,491,967	0.3	1,495,198	0.2	1,499,348	0.3	1,498,157	-0.1
- 지방채	139,347	-0.5	138,488	-0.6	141,180	1.9	143,220	1.4	140,089	-2.2
- 회사채	251,552	-0.6	250,035	-0.6	253,411	1.4	252,754	-0.3	248,959	-1.5
- 주식	167,257	20.1	171,533	2.6	182,812	6.6	190,312	4.1	180,299	-5.3
- 외화증권	559,865	4.8	568,081	1.5	571,913	0.7	613,478	7.3	614,509	0.2
대출금	402,446	-0.6	393,975	-2.1	388,130	-1.5	386,344	-0.5	380,992	-1.4
부동산	63,748	-1.2	63,196	-0.9	62,598	-0.9	63,041	0.7	62,372	-1.1
운용자산 ³⁾	3,390,880	3.2	3,376,430	-0.4	3,408,962	1.0	3,456,510	1.4	3,448,009	-0.2
비운용자산	59,101	-10.8	63,984	8.3	60,745	-5.1	59,802	-1.6	57,817	-3.3
총자산 ⁴⁾	3,449,981	2.9	3,440,414	-0.3	3,469,707	0.9	3,516,312	1.3	3,505,826	-0.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분기대비 증가율.

3)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4)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 총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은 전분기대비 0.9% 감소한 285조 318억 엔을 기록함.
- 4/4분기에는 외화증권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화증권을 제외한 국채, 지방채 등 모든 유가증권이 감소함.
- 또한, 4/4분기 대출금은 일반대출금과 보험약관대출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1.4% 감소하였고 비운용자산도 3.3% 감소함.
- 한편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금전신탁 등의 자산 규모는 각각 전분기보다 21.8%, 43.1%, 6.3% 증가함.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3 4/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모든 종목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한 2조 1,362억 엔으로 집계됨.
- 4/4분기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주택수요 확대 및 재해 관련 보험 수요증가 지속으로 일반보험과 지진보험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함.
- 2013년 일본에서 4만 8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1억 3,000만 명에 이르는¹⁶⁾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화재보험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 4/4분기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유로 지역 경기회복 및 엔저에 따른 수출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하며 545억 엔으로 집계됨.
-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9,409억 엔으로 집계되었고 자동차배상책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한 2,583억 엔으로 집계됨.
-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자동차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의 원수보험료 규모도 확대됨.
- 4/4분기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2,324억 엔을 나타냄.

16) 2014년 소방방재청 자료.

〈표 11〉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엔, %)

구분 ^{2),3)}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재	보험료	14,134	3,432	3,497	3,854	3,740	14,523
	증가율	2.6	0.2	4.3	1.6	5.0	2.8
	구성비	17.2	15.8	16.7	17.8	17.5	16.9
해상	보험료	1,979	562	528	531	545	2,167
	증가율	1.5	9.8	11.9	11.8	4.8	9.5
	구성비	2.4	2.6	2.5	2.5	2.6	2.5
운송	보험료	632	172	152	157	163	644
	증가율	1.6	0.6	1.3	1.3	4.5	1.9
	구성비	0.8	0.8	0.7	0.7	0.8	0.8
자동차	보험료	35,927	9,407	9,037	9,652	9,409	37,505
	증가율	3.4	3.1	2.9	6.8	4.7	4.4
	구성비	43.5	43.3	43.1	44.6	44.0	43.8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9,308	2,540	2,586	2,520	2,583	10,229
	증가율	4.4	5.4	15.9	13.8	5.3	9.9
	구성비	11.2	11.7	12.3	11.6	12.1	11.9
상해	보험료	10,295	2,772	2,600	2,437	2,324	10,134
	증가율	-3.6	-3.8	-1.1	-2.4	1.6	-1.6
	구성비	13.4	12.8	12.4	11.2	10.9	11.8
특종	보험료	9,648	2,828	2,549	2,512	2,597	10,486
	증가율	4.6	6.7	8.0	10.7	9.8	8.7
	구성비	11.5	13.0	12.2	11.6	12.2	12.2
합계	보험료	81,923	21,714	20,948	21,664	21,362	85,688
	증가율	2.5	2.6	4.9	6.0	5.1	4.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임. 그리고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및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구성비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보험종목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9.8% 증가한 2,597억 엔으로 집계됨.
- 특종보험 중 비중이 큰 배상책임보험(46.1%)과 비용·이익보험¹⁷⁾(21.0%) 등이 각각 8.0%,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¹⁸⁾

〈자산 현황〉

■ FY2013 4/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현금 및 예금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매조건부채권, 매입금전채권, 유가증권 등 대부분의 자산 감소로 전분기대비 2.0% 감소한 28조 9,298억 엔을 기록함.

- 4/4분기 현금 및 예금은 전분기대비 18.4% 증가한 8,612억 엔을 나타내었고 단기자금과 금전신탁도 전분기대비 각각 0.8%, 0.1% 증가함.
- 반면, 환매조건부채권 규모는 전분기대비 26.8% 감소한 2,710억 엔을 나타내었고 매입금전채권 규모도 43.4% 큰 폭으로 감소하며 1,383억 엔을 기록함.
- 유가증권의 경우 4/4분기 지방채, 주식, 외화 증권 등이 전분기대비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2% 감소함.
- 4/4분기 말 국공채(국채 + 지방채)는 전분기대비 2.0% 증가하며 증가세를 지속함.
- 또한, 4/4분기 대출금과 부동산은 전분기대비 각각 2.6%, 0.9% 감소함.

17) 산업화 이후 기업활동이 복잡하고도 고도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사고가 늘어나면서 기업에게 영업 이익을 잃게 하거나 영업유지를 위해 상실이익이나 그 비용을 담보로 하는 보험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기계보험 기업휴지손해부담특약 또는 이익상실 담보특약 등과 유사함.

18) 일본손해보험협회 자료.

〈표 12〉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2		FY2013							
		4/4		1/4		2/4		3/4		4/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9,288	34.4	7,102	-23.5	8,448	19.0	7,272	-13.9	8,612	18.4
단기자금		4,278	19.2	3,369	-21.2	3,913	16.1	4,012	2.5	4,044	0.8
환매조건부채권		4,289	46.4	4,188	-2.4	3,228	-22.9	3,703	14.7	2,710	-26.8
매입금전채권		2,832	-34.6	3,023	6.8	2,547	-15.8	2,443	-4.1	1,383	-43.4
금전신탁		914	64.7	1,199	31.2	1,131	-5.7	1,192	5.4	1,193	0.1
유 가 증 권	국 채	61,961	0.2	63,408	2.3	64,526	1.8	64,563	0.1	66,010	2.2
	지방채	3,493	-3.9	3,516	0.7	3,554	1.1	3,575	0.6	3,461	-3.2
	회사채	26,708	-1.0	26,348	-1.3	26,568	0.8	26,048	-2.0	26,193	0.6
	주 식	63,484	15.2	67,114	5.7	70,172	4.6	73,634	4.9	67,307	-8.6
	외화증권	47,534	-0.8	49,157	3.4	50,333	2.4	53,167	5.6	52,922	-0.5
	기타증권	2,725	-0.1	2,402	-11.9	2,460	2.4	2,394	-2.7	2,470	3.2
	소 계	205,905	3.9	211,946	2.9	217,612	2.7	223,381	2.7	218,363	-2.2
대출금		17,589	-1.9	17,123	-2.7	16,957	-1.0	16,680	-1.6	16,252	-2.6
부동산		10,429	-0.3	10,291	-1.3	10,429	1.3	10,321	-1.0	10,225	-0.9
운용자산		255,526	4.3	258,242	1.1	264,265	2.3	269,005	1.8	262,784	-2.3
비운용자산 ²⁾		29,071	-3.6	28,024	-3.6	26,278	-6.2	26,076	-0.8	26,514	1.7
총자산		284,598	3.5	286,267	0.6	290,544	1.5	295,082	1.6	289,298	-2.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 전분기대비 증가율.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 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資金運用状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해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해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 동향¹⁾

가. 중국 보험산업 총괄

〈수지상황〉

■ 2014년 1/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7,0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5.9% 증가함.

○ 인보험 수입보험료의 증가로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확대됨.

■ 2014년 1/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24.9% 증가한 1,859억 위안, 사업비는 12.3% 증가한 613억 위안으로 집계됨.

○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세가 전년동기대비 둔화되었으나 인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전년동기에 비해 상승하면서 전체 지급보험금 증가세가 지속됨.

〈표 13〉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입보험료	금액	15,488	5,151	4,362	3,920	3,790	17,222
	증가율 ³⁾	8.0	6.5	18.0	10.6	11.1	11.2
인보험	금액	10,157	3,638	2,748	2,426	2,199	11,010
	증가율 ³⁾	4.5	2.9	19.5	7.8	6.1	8.4
손해보험	금액	5,331	1,513	1,614	1,495	1,591	6,212
	증가율 ³⁾	15.4	16.3	15.4	15.7	18.8	16.5
지급보험금	금액	4,716	1,488	1,475	1,546	1,704	6,213
	증가율 ³⁾	20.2	27.0	35.2	36.8	28.7	31.7
인보험	금액	1,900	758	710	688	617	2,774
	증가율 ³⁾	9.1	26.5	59.9	72.1	35.0	46.0
손해보험	금액	2,816	730	765	858	1,087	3,439
	증가율 ³⁾	28.8	27.5	18.2	17.5	25.5	22.1
사업비	금액	2,171	546	585	596	772	2,500
	증가율 ³⁾	15.4	16.9	15.8	11.3	16.3	15.1

주: 1) 기간별 실적치 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9)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자산운용〉

- 2014년 1/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7.9% 증가한 8조 9,459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7.0% 증가한 8조 2,228억 위안,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20.2% 증가한 7,231억 위안임.
- 운용자산 중 예치금의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늘어난 반면, 투자금의 비중은 줄어들었는데 이는 중국 보험회사들이 부동산, 인프라 투자 비중을 축소하였기 때문임.
 - 예치금은 2조 5,031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총자산대비 예치금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0.7%p 상승한 28.0%를 기록함.
 - 투자금은 5조 7,197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5.5% 증가하였으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65.4%에서 63.9%로 감소함.
 - 중국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 우려로 보험회사들은 부동산,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하였음.

〈표 14〉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운용자산계	금액	68,543	70,868	72,829	74,159	76,873	76,873
	증가율 ³⁾	23.6	3.4	2.8	1.8	3.7	12.2
	구성비	92.2	92.4	92.4	92.1	92.7	92.7
예치금	금액	23,446	23,992	23,405	22,879	22,641	22,641
	증가율 ³⁾	32.2	2.3	-2.4	-2.2	-1.0	-3.4
	구성비	31.9	31.3	29.7	28.4	27.3	27.3
투자금	금액	45,097	46,875	49,424	51,280	54,232	54,232
	증가율 ³⁾	19.5	3.9	5.4	3.8	5.8	20.3
	구성비	61.3	61.1	62.7	63.7	65.4	65.4
비운용자산계 ⁴⁾	금액	5,003	5,819	6,010	6,371	6,014	6,014
	증가율 ³⁾	7.3	16.3	3.3	6.0	-5.6	20.2
	구성비	6.8	7.6	7.6	7.9	7.3	7.3
총자산	금액	73,546	76,686	78,840	80,530	82,887	82,887
	증가율 ³⁾	22.3	4.3	2.8	2.1	2.9	12.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분기대비.

4)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

〈수입보험료〉

■ 2014년 1/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5,243억 위안²⁰⁾으로 전년동기대비 44.1% 증가함.

-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전년동기에 비해 상승하면서 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확대됨.

■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4년 1/4분기에 크게 상승하였으며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1/4분기 생명보험 성장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및 2014년 1/4분기 방카슈랑스 판매 급증으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2.9% 증가한 4,607억 위안을 기록함.
 - 전통 생명보험 예정이율 상한 폐지²¹⁾에 따른 생명보험 수요 증가, 그림자금융 규제 강화²²⁾에 따른 은행의 자산관리상품(WMP) 판매 감소는 방카슈랑스 판매 급증의 원인으로 분석됨.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신상품 출시로 전년동기대비 66.8% 증가한 492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1.0% 증가한 144억 위안이었음.

■ 2014년 1/4분기 변액보험 및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임.

- 귀진증권(Sinolink Securitie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77개 변액보험 투자계정의 평균수익률은 -1.3%로 조사됨.
- ICBC-AXA Life 및 Met Life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변액연금보험²³⁾의 수익률은 각각 -1.2%와 -1.4%였음.

20) 인보험 수입보험료에는 인보험회사 수입보험료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의 단기의료보험과 상해보험, 연금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인보험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포함됨.

21)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2013년 8월부터 전통 생명보험(배당금이 없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연금보험 포함)에 대한 예정이율 상한을 폐지함.

22) 중국은 2013년 3월부터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 억제를 위해 은행의 자산관리상품(WMP)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규정 등 그림자금융 규제강화 조치를 발표함.

23) 변액연금보험은 중국에서 2011년 8월부터 출시되었는데, 현재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ICBC-AXA Life 및 Met Life 2개가 있음.

〈표 15〉 인보험 수입보험료^{1),2),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보험료	10,157	3,638	2,748	2,426	2,199	11,010	5,243
	증가율 ⁴⁾	4.5	2.9	19.5	7.8	6.1	8.4	44.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생명보험	보험료	8,908	3,224	2,332	2,033	1,836	9,425	4,607
	증가율 ⁴⁾	2.4	0.7	18.9	4.5	2.0	5.8	42.9
	구성비	87.7	88.6	84.9	83.8	83.5	85.6	87.9
건강보험	보험료	863	295	292	271	266	1,123	492
	증가율 ⁴⁾	24.7	28.9	23.2	32.9	37.8	30.2	66.8
	구성비	8.5	8.1	10.6	11.2	12.1	10.2	9.4
상해보험	보험료	386	119	124	122	97	461	144
	증가율 ⁴⁾	15.6	16.0	25.3	18.2	18.2	19.5	21.0
	구성비	3.8	3.3	4.5	5.0	4.4	4.2	2.7

주: 1) 기간별 실적치기준.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4년 1/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1,02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5.2% 증가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보험금은 각각 863억 위안, 133억 위안, 2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4.0%, 49.4%, 16.0% 증가함.

○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급부금 만기 도래 및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증가로 2014년 1/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13년 1/4분기 26.5%에서 35.2%로 상승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에 판매된 10년 만기 생명보험과 2008년에 판매된 5년 만기 생명보험의 급부금은 약 500억 위안임.

- 2014년 1/4분기 중국런쇼우생명, 중국핑안생명, 신화생명, 중국타이핑양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해약환급금은 전년동기대비 17.0% 증가한 402억 위안을 기록함.

〈표 16〉 인보험 지급보험금^{1),2),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보험금	1,900	758	710	688	617	2,774	1,025
	증가율 ⁴⁾	9.1	26.5	59.9	72.1	35.0	46.0	35.2
생명보험	보험금	1,505	644	594	558	457	2,253	863
	증가율 ⁴⁾	15.7	27.8	68.3	88.0	30.2	49.7	34.0
건강보험	보험금	298	89	92	101	129	411	133
	증가율 ⁴⁾	-17.2	22.0	33.3	31.6	62.7	38.0	49.4
상해보험	보험금	97	25	24	29	32	110	29
	증가율 ⁴⁾	18.3	11.4	14.3	10.0	16.9	12.9	16.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4년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상승한 데 반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하락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6.3%로 전분기에 비해 3.5%p 상승하였으며,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3.7%로 전분기대비 3.5%p 하락함.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ICBC-AXA Life, AIA China, Metlife로 나타남.

○ 한편,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²⁴⁾의 시장점유율은 65.8%로 전분기에 비해 2.6%p 감소함.

24)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는 중국런쇼우생명, 중국핑안생명, 중국런민생명, 신화생명, 중국타이핑양생명으로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5.7%, 13.7%, 9.5%, 9.4%, 7.5%임(2014년 1/4분기 기준).

〈표 17〉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사	71.0	70.1	68.9	70.5	68.4	69.5	65.8
		중소형사 ³⁾	24.3	25.7	25.3	23.7	24.4	24.9	30.5
		소계	95.2	95.8	94.2	94.1	92.8	94.4	96.3
	외국계		4.8	4.2	5.8	5.9	7.2	5.6	3.7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 2014년 1/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1,75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함.

○ 자동차 판매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중국자동차협회(CAAM: China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에 따르면 2014년 1/4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592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9.0% 증가함.

〈표 18〉 손해보험 수입보험료^{1),4)}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보험	보험료 ²⁾	5,331	1,513	1,614	1,495	1,591	6,212	1,757
	증가율 ³⁾	15.4	16.3	15.4	15.7	18.8	16.5	16.1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3) 전년동기대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4년 1/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83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함.

○ 인건비 및 자동차부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의 증가세가 지속됨.

〈표 19〉 손해보험 지급보험금^{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보험	보험금 ³⁾	2,816	730	765	858	1,087	3,439	834
	증가율 ⁴⁾	28.8	27.5	18.2	17.5	25.5	22.1	14.2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4년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상승한데 반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하락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3%p 상승한 98.9%였으며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0.3%p 하락한 1.1%였음.

○ 손해보험회사 상위 3사인 중국런민재산, 중국평안재산, 중국타이핑양재산은 각각 34.2%, 18.7%, 12.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손해보험시장에서 65.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분기에 비해 0.9%p 상승한 수준임.

○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AIG, Liberty Mutual, Samsung Insurance로 조사됨.

〈표 20〉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5.3	65.1	64.2	65.3	64.6	64.8	65.5
		중소형사 ³⁾	33.4	33.8	34.5	33.4	34.0	33.9	33.3
		소계	98.8	98.9	98.7	98.7	98.6	98.7	98.9
	외국계		1.2	1.1	1.3	1.3	1.4	1.3	1.1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라. 연금보험²⁵⁾

■ 2014년 1/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16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는 2,648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6.1% 증가함.

○ 중국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기업연금 신규가입 증가세 둔화가 연금보험회사 수탁보험료 감소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2014년 1/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의 7.7%보다 낮은 7.4%에 그침.

〈표 21〉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수탁보험료 ²⁾	금액	160	662	167	146	132	143	589	166
	증가율 ²⁾	46.8	61.5	-19.2	-12.6	4.3	-10.7	-11.1	-0.6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2,009	2,009	2,180	2,312	2,384	2,495	2,495	2,648
	증가율 ³⁾	9.1	45.8	8.5	6.1	3.1	4.7	24.2	6.1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3) 전분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5) 중국은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연금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연금보험회사를 정식으로 허용함.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설립된 연금보험회사는 타이핑, 핑안, 런쑤우, 장장, 타이강 등 5개 회사임.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 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유니버설),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부 록 I. 통계표

〈부록 표 I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성장률		2.4	2.1	2.1	2.1	2.7	3.4	3.7	3.9
경상수지		11,605	16,887	23,089	10,458	20,805	23,782	24,839	15,071
수출		140,130	133,125	139,768	135,318	141,156	136,791	146,367	137,590
수입		130,431	125,652	129,831	129,732	126,758	126,034	133,062	132,378
실업률		3.3	3.0	2.8	3.6	3.1	3.0	2.8	4.0
금리	국고채(3년)	3.39	2.88	2.81	2.68	2.67	2.92	2.90	2.87
	회사채(3년)	4.04	3.44	3.31	3.07	3.04	3.33	3.33	3.30
소비자물가지수		106.12	106.42	106.70	107.55	107.41	107.87	107.84	108.76
환율	원/달러	1,151.81	1,133.54	1,090.86	1,084.08	1,122.15	1,112.18	1,062.10	1,069.01
	원/엔화	1,436.85	1,441.20	1,346.13	1,175.64	1,137.42	1,124.22	1,058.26	1,039.62
KOSPI		1910.29	1902.32	1940.24	1985.40	1932.58	1917.71	2009.31	1946.13
외환보유고		312,378	322,015	326,968	327,408	326,440	336,922	346,460	354,341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부록 표 I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보험 ¹⁾	139,042	174,037	201,794	195,836	139,623	138,497	164,155	133,551	-
- 생보	105,806	145,350	169,906	166,114	109,365	108,554	135,447	101,936	-
수입보험료	245,286	281,233	313,339	313,227	245,003	240,001	287,363	257,467	-
지급보험금	139,480	135,883	143,434	147,113	135,639	131,447	151,916	155,531	-
- 손보	33,236	28,687	31,889	29,722	30,258	29,943	28,708	31,615	-
원수보험료	167,964	167,265	180,624	169,569	173,584	171,156	186,613	183,082	-
원수손해액	134,729	138,578	148,736	139,847	143,326	141,213	157,905	151,466	-
은행	120,525	113,355	104,974	123,354	182,746	-31,782	229,979	272,496	258,539
- 일반 ²⁾	108,131	54,395	118,680	48,120	147,443	-40,955	128,580	199,612	201,535
- 신탁	12,394	58,960	-13,706	75,234	35,303	9,173	101,399	72,884	57,004
증권 ³⁾	-33,365	67,718	-22,900	96,983	9,232	-5,597	-47,513	6,904	19,088
자산운용 ⁴⁾	83,820	32,104	21,299	183,595	44,093	-9,264	-41,835	96,918	16,689
종금 ⁵⁾	-490	-17,161	-2,493	-21,220	-11,420	1,082	2,444	8,863	2,733

주: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부록 표 I-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¹⁾

(단위: 억 원, %)

구분 ²⁾		FY2012				FY2013				20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생존	보험료	89,359	91,316	97,580	336,612	53,144	53,996	55,496	162,636	58,006
	증가율	107.5	108.6	88.9	87.6	-8.9	-39.6	-39.2	-32.0	-40.6
	구성비	31.8	29.1	31.2	29.2	21.7	22.5	19.3	21.1	22.5
사망	보험료	76,309	77,232	78,494	308,411	78,913	79,458	80,289	238,660	81,286
	증가율	6.5	7.6	8.8	7.4	3.3	4.1	4.0	3.8	3.6
	구성비	27.1	24.6	25.1	26.7	32.2	33.1	27.9	30.9	31.6
생사 혼합	보험료	54,615	52,905	68,084	221,677	47,606	46,222	45,910	139,738	50,697
	증가율	91.7	79.9	83.3	81.1	3.3	-15.4	-13.2	-9.0	-25.5
	구성비	19.4	16.9	21.7	19.2	19.4	19.3	16.0	18.1	19.7
변액 보험	보험료	51,775	52,803	55,297	212,230	52,577	51,368	51,498	155,443	51,884
	증가율	-5.4	1.3	4.1	-0.3	0.4	-0.8	-2.5	-0.9	-6.2
	구성비	18.4	16.9	17.7	18.4	21.5	21.4	17.9	20.1	20.2
개인계	보험료	272,058	274,256	299,455	1,078,929	232,239	231,044	233,194	696,477	241,873
	증가율	37.5	39.1	39.9	34.6	-0.4	-15.1	-15.0	-10.6	-19.2
	구성비	96.7	87.5	95.6	93.6	94.8	96.3	81.1	90.2	93.9
단체	보험료	9,175	39,083	13,772	74,156	12,765	8,957	54,169	75,891	15,594
	증가율	1.5	-1.8	40.1	-3.1	5.3	-2.4	38.6	25.7	13.2
	구성비	3.3	12.5	4.4	6.4	5.2	3.7	18.9	9.8	6.1
합계	보험료	281,233	313,339	313,227	1,153,086	245,003	240,001	287,363	772,367	257,467
	증가율	35.9	32.3	39.9	31.3	-0.1	-14.7	-8.3	-8.0	-17.8

주: 1) 단체보험에는 특별계정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함.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1,2)

(단위: 억 원, %)

구분 ³⁾		FY2012				FY2013				20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26,885	28,993	28,657	110,254	26,096	26,434	29,850	82,379	30,778
	증가율	2.7	12.4	8.4	9.5	1.5	-1.7	3.0	1.0	7.4
	지급률	30.1	31.8	29.4	32.8	49.1	49.0	53.8	50.7	53.1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43,438	42,291	45,951	173,710	42,868	42,859	44,217	129,944	45,364
	증가율	14.5	10.7	12.2	13.5	2.0	-1.3	4.6	1.7	-1.3
	지급률	56.9	54.8	58.5	56.3	54.3	53.9	55.1	54.4	55.8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24,049	23,177	27,628	104,948	27,646	25,171	27,710	80,527	32,856
	증가율	84.7	75.2	90.1	97.9	-8.1	4.7	19.6	4.1	18.9
	지급률	44.0	43.8	40.6	47.3	58.1	54.5	60.4	57.6	64.8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29,795	30,903	30,318	118,839	26,178	28,021	32,989	87,188	28,805
	증가율	13.4	31.7	-3.7	3.5	-5.9	-6.0	6.8	-1.5	-5.0
	지급률	57.5	58.5	54.8	56.0	49.8	54.6	64.1	56.1	55.5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24,167	125,365	132,553	507,751	122,788	122,485	134,766	380,038	137,803
	증가율	20.0	24.5	16.9	20.4	-2.3	-1.4	7.5	1.3	4.0
	지급률	45.6	45.7	44.3	47.1	52.9	53.0	57.8	54.6	57.0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11,716	18,069	14,560	58,159	12,851	8,963	17,151	38,964	17,728
	증가율	-15.0	-53.9	3.4	-39.0	-7.0	-23.5	-5.1	-10.6	21.8
	지급률	127.7	46.2	105.7	78.4	100.7	100.1	31.7	51.3	113.7
전체	지급보험금	135,883	143,434	147,113	565,911	135,639	131,447	151,916	419,002	155,531
	증가율	15.9	2.6	15.4	9.5	-2.8	-3.3	5.9	0.0	5.7
	지급률	48.3	45.8	47.0	49.1	55.4	54.8	52.9	54.2	60.4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에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 증가율이며,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1),2),3)}

(단위: 억 원, %)

구분 ⁴⁾		FY2012				FY2013				20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⁶⁾	1/4
생존 보험	사업비	9,970	10,157	10,399	39,603	7,859	7,929	8,742	24,530	7,572
	증가율	9.1	15.1	13.4	10.2	-13.4	-20.5	-13.9	-16.0	-27.2
	사업비율	11.2	11.1	10.7	11.8	14.8	14.7	15.8	15.1	13.1
사망 보험	사업비	22,634	23,625	25,280	93,050	23,143	23,723	25,309	72,174	23,332
	증가율	11.4	13.6	20.7	14.8	7.6	4.8	7.1	6.5	-7.7
	사업비율	29.7	30.6	32.2	30.2	29.3	29.9	31.5	30.2	28.7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5,678	6,101	5,947	23,698	4,712	4,529	4,908	14,148	4,378
	증가율	-7.6	3.8	-4.3	-2.5	-21.1	-20.2	-19.6	-20.3	-26.4
	사업비율	10.4	11.5	8.7	10.7	9.9	9.8	10.7	10.1	8.6
개인 보험계	사업비	38,253	39,882	41,626	156,351	35,714	36,181	38,958	110,852	35,282
	증가율	7.5	12.4	14.6	10.7	-2.4	-5.4	-2.3	-3.4	-15.2
	사업비율	14.1	14.5	13.9	14.5	15.4	15.7	16.7	15.9	14.6
단체 보험계	사업비	1,213	1,136	1,221	4,687	1,005	1,083	1,334	3,422	1,059
	증가율	15.3	-6.0	8.9	7.5	-10.0	-10.8	17.4	-1.3	-13.3
	사업비율	13.2	2.9	8.9	6.3	7.9	12.1	2.5	4.5	6.8
전체	사업비	39,466	41,018	42,847	161,038	36,719	37,263	40,292	114,274	36,341
	증가율	7.7	11.8	14.4	10.6	-2.6	-5.6	-1.8	-3.3	-15.2
	사업비율	14.0	13.1	13.7	14.0	15.0	15.5	14.0	14.8	14.1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율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임.

4)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 증가율이며,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함.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6)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²⁾		FY2012			FY2013				201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1/4
화재	보험료	946	808	3,293	755	734	923	2,413	759
	증가율	24.8	23.2	25.0	-3.4	-3.1	-2.4	-2.9	-6.1
	구성비	0.5	0.5	0.5	0.4	0.4	0.5	0.4	0.4
해상	보험료	2,165	1,493	8,230	2,122	2,257	1,638	6,016	1,747
	증가율	18.1	-36.1	-5.4	-9.9	1.8	-24.3	-10.7	17.0
	구성비	1.2	0.9	1.2	1.2	1.3	0.8	1.1	1.0
자동차	보험료	32,268	31,376	128,416	32,338	32,190	32,907	97,435	32,377
	증가율	-1.6	-3.5	-1.5	-0.9	0.1	2.0	0.4	3.2
	구성비	17.9	18.5	18.7	18.6	18.8	17.1	18.1	17.7
보증	보험료	3,913	4,013	15,816	3,801	3,461	3,976	11,238	3,842
	증가율	0.1	-1.7	4.2	-6.9	-9.1	1.6	-4.8	-4.3
	구성비	2.2	2.4	2.3	2.2	2.0	2.1	2.1	2.1
특종 ¹⁾	보험료	12,063	12,249	48,557	13,064	11,673	12,435	37,172	12,566
	증가율	9.4	28.6	17.8	5.6	-1.6	3.1	2.4	2.6
	구성비	6.7	7.2	7.1	7.5	6.8	6.4	6.9	6.9
해외 원보험	보험료	1,314	1,418	4,876	1,390	1,688	1,762	4,840	1,376
	증가율	53.8	40.8	54.1	39.5	47.1	34.0	40.0	-3.0
	구성비	0.7	0.8	0.7	0.8	1.0	0.9	0.9	0.8
장기 손해	보험료	99,782	103,114	401,896	103,238	106,053	106,187	315,478	110,858
	증가율	14.9	6.8	17.7	4.9	5.4	6.4	5.6	7.5
	구성비	55.2	60.8	58.6	59.5	62.0	55.1	58.7	60.6
개인 연금	보험료	10,707	10,628	41,489	10,622	10,573	10,633	31,829	10,349
	증가율	17.1	13.8	21.1	7.8	2.7	-0.7	3.1	-2.6
	구성비	5.9	6.3	6.1	6.1	6.2	5.5	5.9	5.7
퇴직 보험	보험료	2	0	9	3	0	7	10	0
	증가율	-97.7	-100.0	-99.0	229.6	-100.0	233.6	18.8	-
	구성비	0.0	0.0	0.0	0.0	0.0	0.0	0.0	0.0
퇴직 연금	보험료	17,465	4,469	32,840	6,251	2,527	22,374	31,152	9,209
	증가율	-7.4	-1.7	3.3	-4.1	-42.4	28.1	9.8	106.1
	구성비	9.7	2.6	4.8	3.6	1.5	11.6	5.8	5.0
계	보험료	180,624	169,569	685,422	173,584	171,156	192,842	537,582	183,082
	증가율	8.7	5.5	12.4	3.3	2.3	6.8	4.2	8.0

주: 1)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고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함.

3) FY2013은 2013년 13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1),2),3)}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3/4	4/4	1/3	2/3	3/3	1/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52.7	56.1	56.8 ⁴⁾	60.9	44.0	73.2
	사업비율	43.8	55.9	55.3	45.2	50.5	50.0
	합산비율	96.5	112.0	112.1	106.1	94.5	123.3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56.1	77.8	48.6	58.0	67.5	89.5
	사업비율	42.3	39.2	31.3	29.7	55.4	36.3
	합산비율	98.4	117.0	79.9	87.7	122.8	125.8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48.1	72.3	155.0	31.7	45.8	72.5
	사업비율	14.0	48.2	12.4	10.2	34.4	13.1
	합산비율	62.0	120.5	167.4	41.9	80.2	85.5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72.1	69.3	59.8	71.1	66.1	69.2
	사업비율	20.6	24.3	18.7	23.1	20.9	19.6
	합산비율	92.8	93.5	78.5	94.2	87.0	88.8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54.5	67.6	63.8	54.1	116.9	64.6
	사업비율	38.1	41.1	37.7	43.4	43.0	42.1
	합산비율	92.6	108.7	101.5	97.5	159.9	106.7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47.4	65.6	59.8	60.0	52.8	72.9
	사업비율	60.1	1.9	30.3	27.6	30.1	29.4
	합산비율	107.5	67.5	90.1	87.6	82.9	102.2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91.9	83.7	84.4	89.3	90.3	84.1
	사업비율	21.6	21.4	21.2	19.1	22.5	20.8
	합산비율	113.5	105.2	105.6	108.4	112.8	104.9
장기보험 ³⁾	경과손해율	82.9	83.2	83.8	83.5	84.0	85.1
	사업비율	18.2	19.9	18.4	18.3	18.4	18.0
	합산비율	101.1	103.0	102.2	101.8	102.4	103.1
전체	경과손해율	82.3	81.6	82.5	81.8	82.5	83.3
	사업비율	20.0	21.1	19.5	19.2	20.4	19.1
	합산비율	102.3	102.7	102.0	101.0	103.0	102.3

주: 1) 개인연금, 퇴직보험, 그리고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임.

3) 경과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4)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금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부 록 Ⅱ.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78호 (4. 7)	일본의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논란 (최원) · 일본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세를 인상하였으며, 이는 사회보장비 증가로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비세 인상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가능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의한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유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아사이신문, 매일경제 등)
제278호 (4. 7)	중국의 보험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이소양) · 최근 중국 보험시장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의 개인 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민원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CIRC(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들의 전화권유 및 판매행위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고객정보관리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의 사례는 보험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와 정책 수립이 보험산업 위축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CIRC, FSC 등)
제279호 (4. 14)	미국 생명보험산업: 저금리의 영향과 시사점 (김진익)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금리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였음. · 미국 생명보험산업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저금리 환경에서도 지급능력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최근 IMF는 향후 저금리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금리리스크관리 및 보험상품개발 전략의 중요성이 커짐. (NAIC, Moody's 등)
제279호 (4. 14)	주요국 기준금리 전망과 시사점 (이아름) ·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14년 4월 현행으로 동결되었으나 향후 국내 경제 상황과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향후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 · 선진국 중 미국과 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반면, 유럽 및 일본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동결 혹은 인하를 언급함. · 신흥국의 경우 인도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였고 브라질과 러시아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을 전망함. (각국 중앙은행, WSJ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80호 (4. 21)	2014년 1/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대한 논란 (채원영) · 2014년 1/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2013년 4/4분기보다 소폭 둔화된 7.4%로 발표되었는데 투자 및 수출주도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대와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이 구조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경제 전망과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점에서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기획재정부, 중국 해관총서 등)
제280호 (4. 21)	인터넷 기업의 금융서비스업 진출과 시사점 (이해량) · 최근 구글, 알리바바, 텐센트,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의 금융서비스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비금융회사들의 금융서비스업 진출은 금융업의 탈중개화 촉진과 Big Data를 활용한 경쟁력 측면에서 기존의 금융회사를 위협할 가능성이 큼. ·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 금융회사들은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의 경쟁력 강화,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편의성 제공 등 경쟁력 있는 디지털화 전략을 고려해야 함. (FT 등)
제281호 (4. 28)	국내의 그림자금융 확대 추세와 시사점 (최원) · 2009년 이후 둔화 추세를 보이던 전 세계 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이 최근 확대되고 있음. · 그림자금융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이 모색됨. · 우리나라도 환매조건부채권(RP)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늘어나 그림자금융 규제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FSB, 한국은행 등)
제281호 (4. 28)	중국의 보험회사 M&A 규제완화 및 시사점 (이소양) · CIRC(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산업의 진입·퇴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14년 4월 4일 보험회사 M&A(인수·합병) 관련 규제를 완화함. · 이번 보험회사 인수·합병 규제 완화가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성장세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보이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중국 보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WSJ, Sina Financial 등)
제282호 (5. 7)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도전과 성장기회 (김진익) ·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은 소비자의 니즈와 거시경제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고령화와 기술의 진보가 상품수요를 형성하고 이에 따른 상품설계 및 판매가 핵심요소임을 지적함. (CIPR)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82호 (5. 7)	과거 금융위기 발생 배경과 대응의 시사점 (이해랑) · 「The Economist」 지(誌)는 과거 다섯 번의 금융위기 발생원인과 대응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금융시스템의 기원과 정부의 금융지원 및 규제강화의 한계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정부차원의 금융회사 지원과 규제였으며, 이는 금융위기 시마다 반복되었고,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이 심화되었음. · 각국 정부는 금융회사들의 독립적인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금융위기 예방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축소를 고려해야 함. (The Economist 등)
제283호 (5. 12)	2013년 세계 보험산업 M&A 현황과 특징 (채원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규제 강화, 경쟁심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의 영향이 M&A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생명보험산업의 수익성은 손해보험산업에 비해 금융위기, 저금리, 규제 강화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의 M&A 거래건수는 증가하고 피인수기업의 영업실적 대비 인수가격은 하락하였음. · 또한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M&A 거래 증가, 사모펀드의 보험산업 M&A 증가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음. (A.M. Best 등)
제284호 (5. 19)	중국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감소와 시사점 (최원) · 최근 중국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8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수입 증가세 둔화와 대(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가 최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흑자 원인이 수입 감소라는 점은 향후 경기회복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제284호 (5. 19)	미국의 원칙중심 책임준비금 제도(PBR) 도입 추진현황 (이아름) · 미국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는 생명보험 상품의 준비금 제도를 규정중심 책임준비금 제도에서 원칙중심 책임준비금 제도(PBR: Principle-Based Reserving)로 변경을 추진 중임. · PBR은 규정중심 책임준비금 제도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준비금 산출 제도임. · 우리나라의 경우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로드맵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NAIC 등)
제285호 (5. 26)	금융안정위원회의 보험권 자본규제 강화 (김진익)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자본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권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자본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국제자본기준인 BCR과 ICS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형 보험회사에 적용될 계획이나 장기적으로 모든 보험회사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CIPR, IAIS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85호 (5. 26)	중국 방카슈랑스시장의 현황 (이소양) · LIMRA(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이하 'LIMR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카슈랑스는 지역별 시장점유율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그 비중도 확대되고 있음. ·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보험회사들은 해외시장의 판매채널 변화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LIMRA, Timetric, OTC 등)
제286호 (6. 2)	미국의 Big Data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이해랑) · 미국 백악관은 2014년 5월 1일 Big Data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공개함. · 보고서는 Big Data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 등 사생활(privacy) 침해,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 있음. · Big Data의 발전으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되는 Big Data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 (The White House 등)
제286호 (6. 2)	유럽 방카슈랑스시장의 현황과 전망 (이소양) · 유럽보험연합(Insurance Europe Federation, 이하 'IE')에 따르면, 유럽의 생명보험 방카슈랑스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특히 서유럽 국가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이 동유럽 국가에 비해 높음. · 향후 바젤 III와 솔벤시 II 등 자본규제 강화, 영국의 소매판매채널 개편 등으로 유럽 방카슈랑스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IE, BNP Paribas 등)
제287호 (6. 16)	미국 401K 적립금 감소 예상과 영향 (최원) · 베이비붐(baby boom) 세대들의 은퇴 시기 도래로 미국의 퇴직연금 가운데 하나인 401K의 연간 순 유출입이 2016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적립금 규모 확대로 과거 401K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적립금 규모 감소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FT, 매일경제, 금감원 등)
제287호 (6. 16)	일본 1/4분기 경제성장률 개선 평가 (이아름) · 일본 내각부는 2014년 1/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이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전기대비 1.6%(연율화 6.7%) 성장하였다고 발표함. ·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기업 수익성 개선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와 고용개선 등이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한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 인상을 앞둔 일시적인 소비 증가가 성장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함. (일본내각부, WSJ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88호 (6. 23)	글로벌 보험산업 건전성 규제강화의 영향과 대응 (김진익) · 최근 PwC는 세계적인 보험산업 건전성 규제 강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험회사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함. · 글로벌 보험산업 건전성 규제 강화의 원인은 규제의 글로벌화(Globalisation), 정치화(Politicisation), 중앙집권화(Centralization) 등임. · 글로벌 건전성 규제 강화의 원인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국내 보험회사들도 건전성 규제 강화의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PwC 등)
제288호 (6. 23)	글로벌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위험요인 (채원영) · 최근 글로벌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보다는 선진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원인임. ·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주택 및 부동산시장으로도 자금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신흥국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었음. · 2014년에도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신흥국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경제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A,M, Best 등)
제289호 (6. 30)	미국의 인플레이션 논쟁과 기준금리 인상 전망 (채원영) ·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한 인플레이션 논쟁이 재발하였음. · 최근 미국 경기가 빠른 속도로 개선됨에 따라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점을 당겨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준과 상승속도가 미 연준의 정책기조를 변경할 만큼 높거나 빠르지 않다는 주장이 대립함. · 이러한 논란에도 미 연준은 6월 FOMC에서 저금리 지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자금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장기채를 줄이고 있으며 원화 표시채권 및 한국 국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A,M, Best 등)
제289호 (6. 30)	2014년 하반기 유럽 은행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전망 (이해량) · Earnst&Young(이하 'EY')은 유럽은행들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은행 재무건전성 및 경영전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 대다수 은행들은 2014년 하반기 유로존 경기 회복을 전망하고 있으나 국가 부채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조사대상의 60%가 2014년 하반기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74%가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실시하는 AQR과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함. (WSJ, EY 등)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운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운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 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 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 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전성주, 전용식 2014.5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2호 2009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3호 2010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4호 2011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5호 2012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6호 2013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정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4년 여름호 (통권 70호)

발행일	2014년 7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57, 3775-905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